

AI 콘텐츠 제작실

주제 하나로 글·이미지·짧은 영상까지



Coreline-AI

AI 콘텐츠 제작실

주제 하나로 글·이미지·짧은 영상까지

Coreline-AI 지음

한 편의 글에서 시작해, 이해를 돕는 그림을 고르고, 짧은 설명 영상으로 연결하는 실무 제작 안내.

무료 PDF 제공용

이 책과 자료를 사용하는 범위

저자: Coreline-AI

제작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이 파일은 무료 PDF 제공용으로 준비한 판입니다. 무료 제공은 저작권 양도나 수정·재배포·재판매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행일은 최종 배포 확인 후 안내합니다.

‘문장사이’와 독서모임의 사람·대화·운영 조건은 교육을 위한 가상 자료입니다. 글·이미지·음성·영상의 파일을 실제 만들고 확인한 제작 과정과, 실제 행사를 운영한 경험을 구분합니다. 생성 삽화는 현장 사진이 아니며 내레이션은 AI 합성 음성입니다.

공식 제품 설명은 링크와 확인일의 범위에서 참고했습니다. 제품 문서와 이용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독자는 자신의 환경과 이용 주체에 적용되는 현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책의 자체 점검과 저자의 권리 확인 자료는 독립 법률 검토나 이용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본 스킴 전체·영상 렌더러 전체·음성 모델 가중치·렌더용 브라우저는 실습 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새로 작성한 작은 화면 예제와 이미 만든 결과를 나누어 제공합니다. 필요한 의존성과 사용 조건은 별도 안내를 읽으세요.

도구보다 먼저, 설명할 한 가지

AI에게 글을 부탁하면 글이 나옵니다. 그림을 부탁하면 그림도 나옵니다. 영상까지 연결하면 파일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독자에게 무엇을 알려 주려는지는 더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점은 도구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질문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독자가 지금 모르거나 고르기 어려운 것을 적습니다. 자료로 확인한 조건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나눕니다. 글에는 이유와 예외를 맡기고, 그림에는 대상과 관계를, 영상에는 짧게 따라갈 행동을 맡깁니다. 한 형식이 다른 형식의 설명을 모두 복사하지 않으면서 같은 사실과 목적을 지키는 제작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독서모임의 준비라는 한 주제를 끝까지 사용합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의 사업이나 행사와 같아서가 아닙니다. 글에서 그림으로, 그림에서 영상으로 설명을 바꾸는 판단을 같은 자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기존 제목 스킬을 소개하는 짧은 설명으로 자기 주제를 옮기는 시작을 보여 줍니다.

이 책은 스킬의 내부를 새로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교재가 아닙니다. 기존 작업 규칙을 읽고 필요한 입력을 준비해 결과를 만드는 책입니다. 직접 렌더하고 싶은 독자를 위한 작은 예제는 있지만, 그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글·그림·대본과 수정 이유를 읽으며 실습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길로 읽기

처음에는 이미 만든 결과를 열어 보는 길을 권합니다. 완성 글을 읽고 그림의 역할과 캡션을 비교합니다. 약 39초 영상에서는 글의 어떤 설명이 빠지고 어떤 행동이 남았는지 봅니다. 글·그림·영상이 같은 숫자를 말하는지 대조해 보세요. 설치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콘텐츠 판단입니다.

직접 만들고 싶다면 자기 주제 의뢰서를 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편이 답할 질문과 자료를 정한 뒤 제목과 본문을 작성합니다. 문단에 필요한 그림을 고르고 영상에 남길 한 행동을 정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편수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작게 만든 결과를 읽어야 잘못된 조건이 늘어나기 전에 고칠 수 있습니다.

영상 재현은 선택할 수 있는 별도 길입니다. 실습 자료의 [reader-demo](#) 안내를 읽고 자기 이용 조건을 확인한 뒤 실행합니다. 의존성과 렌더용 브라우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저장공간·설치 권한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책을 읽는 것 자체에는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림 번호로 본문과 설명을 연결하고, 장 끝의 완성 기록으로 실제 선택을 따라 갑니다. 책에는 바로 시작할 네 항목을 남겼습니다. 길게 쓸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에 있으므로 필요한 것만 복사하세요. 빈칸을 모두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한 판단을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책에서 따라갈 실제 결과

주 실습의 선택 원자료는 가상 참가자 여덟 명, 모임 60분입니다. 진행 예시는 도입 10분·대화 35분·마무리 15분입니다. 책 한 권과 메모 도구, 질문 두 개는 이 가상 사례의 준비 조건입니다. 실제 날짜·주소·참가비·신청 링크는 없으며 만들어 채우지 않았습니다.

글은 첫 독자가 책과 질문을 준비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표 그림은 모임의 분위기와 전체 인원을 보여 줍니다. 본문 그림 세 장은 준비물·질문과 듣기·진행 역할에 각각 쓰입니다. 정확한 시간 비율은 별도의 수정 가능한 도해로 나타냅니다. 삽화의 물건이나 같은 칸 너비를 운영 규칙과 시간 비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전체 운영 설명을 압축한 낭독이 아닙니다. 책·메모·질문을 고르는 준비 행동에 집중합니다. 실제 로컬 선택 MP4는 1080×1920·30fps·1,179프레임이며 논리 길이는 39.3초입니다. 목소리는 합성했고, 핵심 자막과 전문 대본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처음 결과는 현재 선택과 같지 않았습니다. 가상 인원을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바꾸고 글·대표 그림·영상 도입을 수정했습니다. 처음 영상의 긴 무음도 소리 연결을 조정해 고쳤습니다. 이력은 실패를 감추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왜 현재 결과를 골랐는지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가상, 아직 하지 않은 것

이 책에서 ‘실제’는 파일을 작성하거나 도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범위를 뜻합니다. 글을 실제 썼다고 가상 독서모임이 실제 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성 삽화를 실제 받았다고 그림 속 인물이 존재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파일 제작과 현장 경험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실패 시험에는 일부러 누락·충돌·잘못된 화면 요소를 넣은 합성 입력을 사용했습니다. 실행 중 실제 오류가 났고 수정 뒤 다시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이 모든 AI와 상황에서 오류를 막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해당 입력과 코드, 결과에 한 정해 무엇을 멈췄는지 봅니다.

작성 AI의 자체 검토와 사람의 답변도 나눕니다. 저자는 선택 영상의 소리를 끝까지 듣고 발음과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모든 화면 동기화나 출판의 승인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검사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읽으세요.

로컬 준비는 로그인·화면 입력·임시저장·발행과 다릅니다. 이 제작에서는 외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콘텐츠를 공개할 때에는 최종 파일의 내용·권리·개인정보·계정 권한과 현재 규칙을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차례

1부 만들기 전에 정할 것

01. 주제 하나가 세 가지 콘텐츠가 되는 과정
02.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03. 자료와 파일을 먼저 준비한다

2부 읽히는 글 한 편

04. 제목과 본문을 같은 방향으로 맞춘다
05. 첫 초안을 쓸모 있는 설명으로 바꾼다
06. 사실과 말투를 고쳐 글을 완성한다

3부 이해를 돕는 이미지

07. 예쁜 그림보다 필요한 그림을 고른다
08. 삽화와 참조 이미지를 만들고 고친다
09. 복잡한 설명을 인포그래픽과 표로 바꾼다

4부 짧지만 이해되는 영상

10. 긴 글에서 짧은 영상 대본을 뽑는다
11. 장면과 자막, 목소리를 맞춘다
12. 영상을 실제로 만들고 실패를 고친다

5부 내 제작실로 옮기기

13. 글·이미지·영상을 한 묶음으로 완성한다
14. 순서대로 실행하고 멈춘 곳에서 이어간다
15. 내 주제로 바꾸고 발행 전 확인한다

1부 만들기 전에 정할 것

질문과 자료가 먼저

완성 결과를 나란히 놓고 역할을 찾습니다. 누구의 어느 순간에 답할지 정한 뒤 자료를 사실·가상·제품 근거로 나눕니다. 그림이나 영상의 수를 정하기 전에 이번 한 편의 질문을 적습니다.

독자에게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부를 넘어갑니다. 자료가 없거나 충돌하는 곳은 다음 작업에 몰래 넘기지 않습니다.

이번 부에서 남길 결과

주제 하나가 세 가지 콘텐츠가 되는 과정

무엇부터 만들고 어떻게 연결할까? 이 질문을 따라 완성작 비교와 제작 지도를 만듭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독자와 질문을 어떻게 좁힐까? 이 질문을 따라 주제 의뢰서와 금지 표현을 만듭니다.

자료와 파일을 먼저 준비한다

믿을 내용과 실습 자료를 어떻게 나눌까? 이 질문을 따라 자료 묶음과 작업 폴더를 만듭니다.

결과의 이름보다 실제로 확인한 범위를 봅니다. 사용할 파일이 없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영향을 받은 판단부터 다시 읽습니다.

01. 주제 하나가 세 가지 콘텐츠가 되는 과정

책 한 권과 작은 메모장, 질문 두 개.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글 옆에 그림을 놓고, 같은 준비물을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틀어 봅니다. 세 결과는 닮았지만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글에서는 메모가 왜 필요한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책과 메모, 질문 카드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어느 준비물부터 챙길지 차례로 보며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차이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긴 글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그 이미지를 영상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세 가지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파일 형식은 달라졌지만 독자가 이해하는 방식은 그대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형태로 옮길 때는 무엇을 그대로 지키고 무엇을 새로 설계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완성 결과를 먼저 보고 제작 순서를 거꾸로 찾아갑니다. 설치 방법이나 복잡한 프로그램 구조부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 결과가 각각 말을 일을 구별하고, 한 묶음으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먼저 완성작 세 개를 나란히 놓아 본다

책 전체의 주 실습은 ‘처음 시작하는 주말 독서모임’입니다. ‘문장사이’라는 콘텐츠팀과 8명이 60분 동안 모인다는 조건은 모두 가상입니다. 실제 행사나 참가자를 취재한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이 가상 자료로 글을 작성하고, 그림을 생성하고, 영상 파일을 만든 제작 과정은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가상의 내용과 실제 제작을 구별해 읽어 주세요.

선택한 글의 제목은 「처음 독서모임, 책 한 권과 질문 두 개로 시작하기」입니다. 글은 준비물의 이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책은 함께 바라볼 대상을 마련하

고, 메모는 대화 중 생긴 생각을 붙잡으며, 질문은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는 데쓰 인다고 설명합니다. 준비물과 행동 사이에 이유를 놓아 독자가 다음 행동을고르게 합니다.

대표 그림에는 여덟 명의 가상 독자가 모임방에 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역할은 ‘독서모임에서 대화한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덟 명이라는 수가 그림에서 구별되더라도 실제 참가 인원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생성 삽화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현실의 행사가 있었다는 증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선택한 세로 영상은 약 39초입니다. 글 전체를 읽어 주지 않고 ‘첫 모임 전에 준비할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준비물 하나를 보여주고, 짧은 자막과 합성 음성으로 그 역할을 설명한 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글에서 다루는 모든 예외를 이 길이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은 관심을 붙잡고 출발점을 알려 주는 역할을 맡고, 자세한 설명은 글에 남겼습니다.

세 결과는 같은 자료, 다른 역할

실제 콘텐츠 제작 결과 · 운영 조건과 사람은 가상

글

책 한 권을 가져오는 이유는 많이 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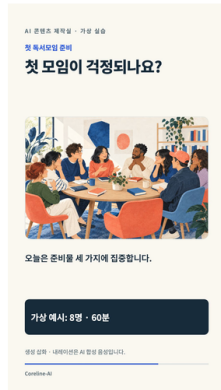
함께 바라볼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



가상 8명
생성 삽화

영상



실제 MP4 화면

글 발췌와 결과 화면을 비교하기 위한 편집 배치

그림 01-01. 같은 가상 자료로 실제 제작한 세 결과의 비교. 왼쪽은 글 발췌, 가운데는 생성 삽화, 오른쪽은 제작한 MP4의 화면이다. 비교를 위한 편집 배치이며 제품 사용 화면이나 실제 모임 사진이 아니다.

세 결과를 보고 “같은 책과 질문이 나오니 잘 연결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글은 여덟 명을 설명하는데 영상 도입에 여섯 명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 그림은 밝고 편안하지만, 글이 준비물로 지정한 메모나 질문의 역할은 전혀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제라는 인상과 같은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세 결과의 공통 기준을 적어 보세요. 이 실습에서는 독자, 중심 질문, 가상 운영 조건, 준비물, 하지 않을 안내가 공통 기준입니다. 글의 길이나 그림의 색,

영상의 장면 수는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을 만드는 동안 공통 기준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은 같게, 역할은 다르게

한 주제를 여러 콘텐츠로 옮길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전부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내용을 같은 분량으로 반복할수록 각 형태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그림 안에 글의 모든 문단을 넣으면 읽기 어려운 작은 글씨가 됩니다. 영상에서 긴 문장을 전부 읽으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따라갈 여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형태에 따라 마음대로 새 정보를 붙여도 문제가 생깁니다. 글에 없는 신청 날짜를 영상 끝에 넣거나, 정하지 않은 참가비를 그림에 적는 것은 표현의 변화가 아닙니다. 안내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좋은 연결은 사실을 일치시키면서 설명의 역할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결과	이번 실습에서 맡는 일	같은 기준으로 남길 것
글	준비 이유·진행 방법·예외를 풀어 설명	대상 독자, 준비물, 가상 조건
이미지	장면과 관계를 눈으로 이해하게 도움	문단의 뜻, 가상 표시, 정확한 라벨
영상	핵심 한 가지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들려줌	준비물, 필요한 조건, 공개 범위

이 표는 모든 콘텐츠의 공식 규칙이 아니라 이번 책의 제작 설계입니다. 다른 주제에서는 영상이 자세한 설명을 맡고 글이 참고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은 언제나 짧아야 한다’ 같은 일반론이 아닙니다. 이번 독자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따라 역할을 정하는 일입니다.

독서모임 실습의 글에는 “다 읽지 않은 사람도 읽은 범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 모임의 규칙입니다. 실제 독서모임이 지정 도서의 완독을 요구한다면 그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누구나 편안해 보인다고 실제 참가 조건까지 느슨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이 나뉘면 빠는 일에도 기준이 생깁니다. 영상에서 모임 진행표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고 중요한 내용을 숨긴 것은 아닙니다. ‘준비물 세 가지’라는 메시지를 흐리지 않기 위해 자세한 진행 방법을 글로 넘긴 것입니다. 다만 영상만 보고 행동할 사람에게 필수인 조건은 빠면 안 됩니다. 실제 신청이나 방문을 안내한다면 날짜와 장소가 정확해야 하지만, 이번 실습에는 그런 실제 정보가 없으므로 모집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넣을지보다 무엇을 맡기지 않을지를 정하면 제작이 쉬워집니다. 대표 그림에는 시간 배분의 정확한 비교를 맡기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사람이 확인한 표와 도해로 설명합니다. 짧은 영상에는 모든 예외를 담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예외는 글에서 읽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각 결과에 서로 다른 책임을 주되, 독자가 잘못된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공통 경계를 유지합니다.

파일을 만드는 순서보다 판단하는 순서가 먼저다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 되겠네요.” 큰 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글인지, 무엇을 알려줄지, 어떤 자료를 믿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글부터 만들면 뒤의 그림과 영상은 잘못된 방향을 더 보기 좋게 꾸미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독자의 질문입니다. ‘독서의 가치’는 넓은 주제입니다. ‘첫 독서 모임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는 이번 결과가 답할 질문입니다. 질문을 좁히면 글에서 설명할 이유와 예외가 정해지고, 그림에서 보여줄 물건과 장면도 정해집니다. 영상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뽑을 때도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단은 자료입니다. 여덟 명과 60분은 실습용 가정입니다. 도구의 사용 조건은 해당 도구의 공식 자료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실제 영상 길이는 만든 파일을 검사해 알게 된 값입니다. 이 셋을 같은 종류의 근거로 취급하면, 가상 숫자를 권장 기준으로 설명하거나 프로그램 설명을 실제 실행 기록처럼 쓰기 쉽습니다.

세 번째 판단은 결과의 역할입니다. 자료에 ‘메모 도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메모장 사진을 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글에서 메모를 왜 쓰는지 설명한 뒤, 이미지가 그 설명을 보완할지 결정합니다. 영상에서는 메모 도구를 보여주며 짧은 생각을 남긴다는 행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그 물건이 쓰이는 순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만들기 전에 정하고, 결과마다 확인

이 책에서 제안하는 제작 순서 · 외부 표준 아님

먼저 정할 것

독자 질문 + 사용할 자료 + 하지 않을 일



글

이유와 예외를
설명하고 읽기



이미지

문단에 필요한
장면 골라 보기



영상

핵심 한 가지를
장면·소리로 확인

같은 기준을 지켰는가?

자료가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음

그림 01-02. 이 책의 제작 지도. 앞의 결과를 무조건 복사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말길 설명을 선택한다. 저자의 작업 모델이며 외부 표준이나 제품 공식 기능이 아니다.

글이 먼저인 이유도 이 사례에 맞춰 이해해야 합니다. 글에서는 어떤 주장에 이유가 없고 어떤 정보가 비어 있는지 찾기 쉽습니다. 사람이 문장을 읽고 준비물과 조건을 정리한 다음, 필요한 장면을 이미지와 영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제가 시각적 동작 중심이라면 다른 출발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책은 하나의 설명 글을 중심으로 세 결과를 연결하는 경로를 배웁니다.

각 단계의 끝에는 ‘다음 단계로 보내도 되는가?’라는 작은 판단이 있습니다. 제목이 본문의 질문과 다르면 글을 고칩니다. 본문 이미지가 옆 문단의 설명을 돕

지 않으면 장면을 바꿉니다. 음성이 끝난 뒤 오래 빈 화면이 남으면 영상의 시간을 다시 톱니다. 단계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 단계를 자동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하고, 통과한 결과를 다음 작업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세 결과를 한꺼번에 시키면 생기는 일

다음은 실습의 가상 요청을 더 막연하게 바꾼 예입니다. 실제로 이 요청의 전체 결과를 시험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요청 범위를 비교하기 위한 설명 예입니다.

독서모임 홍보 글과 이미지 네 장, 짧은 영상을 한꺼번에 만들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고 싶게 해 주세요.

이 요청에서는 무엇이 홍보 대상인지부터 불분명합니다. 실제 모집인지 연습용 콘텐츠인지, 신청 방법이 있는지, 누가 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이 신청하고 싶게’라는 목표는 자료에 없는 혜택이나 마감 분위기를 덧붙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그럴듯할수록 부족한 입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일을 아래처럼 나누면 방향을 확인할 자리가 생깁니다. 우선 첫 모임 준비를 설명하는 글을 만듭니다. 사람이 독자 질문과 가상 조건을 대조합니다. 확인한 글에서 그림이 필요한 문단을 골라 장면을 요청합니다. 그림의 역할과 인원, 캡션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물 세 가지를 짧게 설명하는 대본과 장면을 정하고 영상 파일을 만듭니다.

나누는 목적은 클릭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이 다음 결과로 넘어가기 전에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자료에 날짜가 없다면 글에서 확인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글에 없는 날짜를 이미지나 영상에서 새로 만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빠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뒤에서 세 결과를 모두 다시 고치는 시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시간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절약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결과가 있다면 전부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먼저 찾습니다. 인원만 바뀌었는데 준비물 그림까지 다시 만드는 것은 변경과 관

계없는 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종합 실습에서는 가상 인원을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바꾸면서 사람 수를 보여주는 대표 그림과 영상 도입 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비물과 질문을 설명하는 본문 그림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파일을 다시 만들지 고르는 자세한 방법은 14장에서 다룹니다.

‘파일이 있다’와 ‘쓸 수 있다’ 사이

영상 파일이 열리면 제작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파일이 열리는 것은 가장 앞의 확인일 뿐입니다. 글의 질문에 답하는지, 이미지와 자막이 같은 조건을 말하는지, 소리가 끊기거나 문장이 읽기 전에 사라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책의 첫 영상은 실제로 만들어졌지만 장면 사이에 긴 무음 구간이 있었습니다. 검사에서 다섯 구간이 약 1.31~1.52초로 나타났고, 음성 클립 앞뒤의 빈 구간을 정리해 다음 제작에 반영했습니다. 선택한 최종 영상은 약 39초입니다. 이는 이번 파일의 제작·검사 결과이지 어떤 도구로든 같은 품질이 나온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수정 과정은 12장에서 실제 결과를 비교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과 문단이 있다고 설명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메모를 하세요”라는 한 문장에 무엇을 적고 언제 써야 하는지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저장됐다고 완성은 아닙니다. 질문의 역할을 설명하는 문단 옆에 관계없는 책상 그림을 붙이면, 화면은 채워져도 이해는 늘지 않습니다.

이번 장의 확인은 완성도를 점수로 매기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묻는 것입니다. 문장사이 예시는 실제 모집용이 아니므로 ‘모집 안내로 공개할 준비가 됐는가?’에 답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상 조건임을 알 수 있는가?’, ‘준비물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가?’, ‘세 결과가 같은 자료를 사용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의 범위를 정해야 하지 않은 일도 정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파일이 생긴 뒤에도 확인은 남는다

가상 콘텐츠의 로컬 완료 범위 · 공개 결정은 별도

필요한 자료와 조건이 있는가?



세 결과의 뜻과 숫자가 맞는가?



확인한 로컬 결과를 한 묶음으로

없거나 다름 → 질문·수정 후 다시 확인

실제 행사 안내·업로드·발행은 여기서 수행하지 않음

그림 01-03. 이번 콘텐츠 묶음의 확인 흐름. 파일 생성과 의미 확인을 나누고, 외부 발행은 별도의 결정으로 남긴다. 책에서 제안하는 작업 규칙이다.

확인인 사람과 AI가 같은 일을 중복하는 방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AI에게 후보와 비교 자료를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읽으며 독자 질문, 실제 정보의 유무, 공개해도 되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보지 않은 화면을 봤다고 기록하거나, 권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확인됐다고 적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빈칸을 정직하게 남기는 것도 결과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번 주제로 작성한 제작 지도

다음은 실제 가상 원자료와 선택 결과를 대조해 정리한 제작 지도입니다. 모임을 운영한 기록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한 기준입니다. 각 항목을 연결해 읽으면 세 결과를 만들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제: 처음 시작하는 주말 독서모임

독자: 작은 독서모임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

중심 질문: 첫 모임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자료: 가상 원자료 v2, 8명·60분, 책·메모·질문 두 개

글의 역할: 준비 이유와 진행, 모를 때의 확인 방법 설명

그림의 역할: 분위기와 준비물·질문·진행의 이해 도움

영상의 역할: 준비물 세 가지를 약 39초에 설명

완료 범위: 가상 콘텐츠의 로컬 제작·검토·파일 정리

하지 않을 일: 실제 주소·날짜·참가비·신청 링크 생성과 외부 발행

사람의 결정: 자료 선택, 표현 수정, 권리 확인, 공개 여부

이 지도를 만들고 나면 부탁의 문장도 달라집니다. ‘독서모임 콘텐츠 만들어 줘’보다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물의 이유를 이해하도록 설명해 줘’가 이번 작업에 맞습니다. 다만 지도 자체가 원자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세 결과가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는 다음 두 장에서 독자와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며 확인합니다.

자기 주제로 바꿀 때는 먼저 아래의 짧은 양식을 채워 보세요. 영상 길이나 이미지 개수부터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자가 무엇을 이해한 뒤 어떤 행동을 고르게 할지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란이 많다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질문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01-production-map-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주제: — 시작 기록

주제·독자 질문:

글 / 그림 / 영상의 역할:

확인한 자료와 실제 결과:

다음 판단과 멈출 조건:

한 주제가 세 가지 콘텐츠가 되는 출발점은 도구 세 개가 아닙니다. 독자 질문 하나, 함께 사용할 자료, 결과마다 맡긴 역할입니다. 이 셋을 먼저 잡으면 그림을 더 만들지, 글을 고칠지, 영상을 멈출지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를 구체적인 의뢰서로 바꿉니다.

02.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독서모임 소개 글을 만들어 주세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임을 처음 여는 사람에게는 진행 순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비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여러 번 참여한 사람에게는 다음 모임에서 새롭게 시도할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는 같지만 읽는 순간이 다르면 필요한 설명도 다릅니다.

콘텐츠를 부탁한 사람과 콘텐츠를 읽을 사람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임 진행자가 안내 글을 의뢰했다고 해서 진행자만 읽는 글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는 제작의 요청자이고, 첫 참여를 앞둔 사람은 결과의 독자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섞으면 요청자는 만족스럽게 느끼는데 정작 읽는 사람은 준비 방법을 찾지 못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번 장에서는 주제를 더 많이 발굴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른 주제 안에서 누구의 어느 질문에 답할지 결정합니다. 결정한 내용을 짧은 의뢰서에 적으면, 뒤에서 제목을 고르거나 이미지를 부탁할 때 같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신 읽는 순간을 적는다

독자를 고르라는 말에 나이, 직업, 성별부터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에서는 그런 정보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실습에서는 먼저 읽는 순간을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성인’이라고 쓰면 왜 지금 이 글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첫 독서모임을 앞두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쓰면 설명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문장사이의 모임과 다음 독자 비교는 가상 교육 사례입니다. 실제 독자 조사나 인터뷰 결과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 실제로 작성한 준비 안내 글을 읽으며 독자의 필요를 구분해 보는 작업입니다.

같은 주제를 읽는 사람	지금 필요한 답	이번 준비 안내와의 관계
모임 참여를 앞둔 초보자	무엇을 가져가고 무슨 질문을 준비할까?	중심 독자로 삼음
첫 진행을 맡은 사람	순서를 설명하고 대화를 어떻게 넘길까?	글의 진행 예시가 일부 도움
반복 운영하는 사람	이전 모임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이번 한 편의 주 범위에서 제외

가상 원자료의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넓게 읽으면 진행자와 참여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완성 글은 책 한 권, 메모 도구, 질문 두 개의 준비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장의 의뢰서에서는 **읽는 사람의 개인 준비를 중심으로 하고, 진행 방법은 상황을 이해하는 보조 설명**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운영 지침 전체를 다룬 책처럼 약속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독자를 구체화했다고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가 안내 글을 참가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장의 중심을 누구에게 둘지 정한 것입니다. 중심 독자가 준비물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면, 글은 운영자의 내부 계획보다 독자가 들고 갈 물건과 질문의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제에서도 ‘누가 읽나?’ 옆에 ‘어느 순간에 읽나?’를 함께 적어 보세요. 신청하기 전인지, 준비를 마치려는 때인지, 실패한 뒤 원인을 찾는 때인지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이를 정하지 않으면 AI가 고른 무난한 설명이 독자의 실제 질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작아 보여도 설명할 것이 많다

‘첫 모임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질문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가치, 대화의 장점, 모임 운영 철학까지 덧붙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이름을 나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져갈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건이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할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준비하라고 하면 ‘끝까지 읽어야 하나?’라는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메모 도구를 준비하라고 하면 ‘대화를 전부 적어야 하나?’가 이어집니다. 질문 두 개를 준비하라고 하면 ‘어떤 질문이어야 하나?’가 남습니다. 중심 질문을 작게 잡아도 이유와 예외를 풀면 내용은 충분해집니다. 넓은 주제를 모두 다룬다는 약속보다, 한 가지 질문을 끝까지 설명하는 편이 독자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넓은 주제에서 지금의 질문으로

독자 조사 결과가 아닌, 가상 안내의 편집 판단

주제만 적었을 때

독서모임



읽는 사람과 순간

첫 모임을 앞두고 준비물을 고르는 사람



이번에 답할 질문

책·메모·질문을 어떻게 준비할까?

주제를 모두 설명하기보다 한 질문의 이유와 예외를 풀기

그림 02-01. ‘독서모임’이라는 주제에서 이번 글이 답할 질문을 고르는 과정. 가상 실습의 편집 판단이며 실제 독자 조사 결과가 아니다.

질문을 좁힐 때는 이미 있는 자료로 답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 실습에는 책·메모·질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는 원자료가 있습니다. 반면 ‘초보자가 모임에 참여하면 얼마나 성장할까?’에 답할 측정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이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성장률이나 만족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 주장은 질문을 바꾸거나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끝에는 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독자가 질문 카드 두 장에 시작할 질문을 적을 수 있다면, 설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비교

적 분명합니다. ‘독서모임을 멋지게 느끼게 한다’처럼 감상만 남기면 무엇을 넣고 덜어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편안한 분위기와 실제 준비 행동을 구분해 설계하자는 뜻입니다.

글과 영상의 질문은 같은 넓은 방향 안에서 크기가 달라도 됩니다. 글은 준비물의 이유와 조건을 충분히 다룹니다. 약 39초 영상은 준비물 세 가지를 알아보는 출발점에 집중합니다. 영상의 제목을 만드는 방법은 10장에서 다루지만, 지금도 둘이 서로 다른 목표를 말하지 않도록 중심 질문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는 AI를 설득하는 문구가 아니라 작업의 기준이다

의뢰서를 쓰는 이유는 ‘최고의 전문가처럼 답해 주세요’ 같은 역할 문구를 많이 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작업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읽는지, 무엇에 답할지, 어떤 자료를 사용할지, 어떤 표현을 하지 않을지 적어 두면 결과를 보고 고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안에 “다양한 지적 자극과 깊이 있는 성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멋있게 들리지만 준비물의 이유를 설명하는 중심 질문에는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의뢰서가 없으면 문장의 분위기만 평가하기 쉽습니다. 의뢰서가 있으면 “이 문단에서 독자가 메모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 수 있나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의 중심 독자는 사전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활성화’보다 ‘말이 막혔을 때 함께 볼 대상을 마련한다’가 어울립니다. 이것은 어휘를 무조건 짧게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행동을 눈앞에 그릴 수 있도록 주체와 이유를 넣는 작업입니다. 길이가 조금 늘어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설명일 수 있습니다.

자료의 조건도 의뢰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상 8명·60분, 각자 고른 책, 완독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는 예시 규칙을 적습니다. 이 조건이 보편적인 독서모임 규칙이 아님을 함께 적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독서모임은 원래 모두 같은 책을

읽는다’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덧붙이면 이번 자료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서에는 결과의 사용 범위도 적습니다. 이번 작업은 교육용 가상 콘텐츠의 로컬 제작입니다. 실제 참가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로컬’은 여기서는 내 작업 폴더에 결과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AI 처리가 인터넷 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게시나 계정 업로드는 결과 저장과 별도의 행동으로 구분합니다.

도구 이름과 출력 위치를 적을 때도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스킬을 사용해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외부 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게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에 신청 링크가 있으면 독자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지 않은 링크를 만드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넓히고 싶은 경우에는 사람이 목적과 자료, 권한을 다시 결정합니다.

‘쓰지 않을 말’은 불확실한 약속을 막는다

좋은 표현을 적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항목이 금지 표현입니다. ‘과장하지 마세요’만으로는 무엇이 과장인지 모호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하지 않을 말을 예시로 적을 수 있습니다. 모임 성공률 100%, 조회수 두 배, 직접 운영해 검증했다는 표현은 자료에 근거가 없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금지’는 모든 책과 플랫폼에 적용되는 법률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입력과 목적에 맞춰 정한 편집 경계입니다. 실제 운영 경험이 없어서 체험담을 쓰지 않는 것이고, 효과를 측정하지 않아서 성과를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자료가 달라져도 공개 가능한지와 표현의 범위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에는 말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사람이 준비 방법을 찾는데 “이것조차 모른다면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라고 쓰면 평가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상 안내는 책에 대해 잘 말하는 사람만을 모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읽은 범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므로, 독자를 시험하는 문장 대신 준비를 고를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제약을 편만한 말로 지우면 안 됩니다. 가상 모임은 완독을 필수로 하지 않지만 실제 모임의 조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책을 안 읽어도 언제든 오세요’라고 단정하면 실제 안내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 모임이 지정 도서나 완독을 요구한다면 그 조건을 확인하세요”라는 문장은 독자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와 현실을 구별하도록 돕는 설명입니다.

자료로 말할 것, 새로 만들지 않을 것

문장사이 의뢰서의 경계 · 가상 교육 사례

설명할 것

책·메모·질문

준비하는 이유

쓰는 순간과 방법

다른 조건은 확인

만들지 않을 것

성과 보장

운영 경험 꾸미기

정하지 않은 주소

실제 신청 정보

그림과 영상에도 같은 경계를 적용

생성 장면은 현실의 행사·성과를 증명하지 않음

그림 02-02. 이번 의뢰서의 표현 경계. 준비 이유는 설명하되, 측정하지 않은 효과와 정하지 않은 실제 모집 정보는 만들어 넣지 않는다.

이미지를 부탁할 때도 같은 경계를 가져갑니다. 실제 참가자의 사진처럼 보이게 하거나 실제 모임이 성황을 이루었다는 인상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림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가상 장면으로 표시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도 실제

신청을 유도하는 링크를 넣지 않습니다. 의뢰서에서 정한 경계가 글에만 적용되고 그림과 영상에서는 사라지면, 한 묶음의 콘텐츠가 같은 기준을 읽습니다.

독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초안보다 확인 질문이 먼저다

다음은 **가상의 확인 대화**입니다. 실제 저자나 참가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독서모임 소개’라는 짧은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질문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청: 독서모임 소개 글과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확인: 이번 결과는 모임을 진행할 사람을 위한 지침인가요, 처음 참여할 사람을 위한 준비 안내인가요? 가상 답변: 처음 참여할 사람이 무엇을 준비할지 알게 하고 싶습니다. 실제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확인: 실제 날짜·장소 안내 없이, 제공한 가상 조건으로 준비물과 질문의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운영 경험이나 효과 수치는 넣지 않겠습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공손함이 아니라 결정한 내용입니다. 독자와 읽는 순간, 결과의 용도, 하지 않을 정보가 정해졌습니다. ‘친절하게 써 주세요’보다 이 결정들이 결과의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바꿉니다.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정할 수 있는 범위와 가정하면 안 되는 범위를 나눕니다. 제공한 가상 자료로 교육용 초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 ‘이 예시는 가상 조건을 사용한 준비 안내’라고 표시합니다. 반면 실제 모집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신청 주소나 비용을 만들어 넣으면 안 됩니다. 초안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같은 요청 안에 목표가 충돌할 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반드시 완독한 사람만 참여하도록 안내하라’는 요청이 가상 원자료의 조건과 함께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말투만 부드럽게 바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가 조건 자체가 무엇인지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AI가 두 규칙을 적당히 섞으면 글에서는 완독이 필요 없다고 하고 영상에서는 완독을 강

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번 콘텐츠가 따를 참가 조건은 어느 자료인가요?” 그 답을 받은 뒤 의뢰서와 원자료를 함께 갱신합니다.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면 조건을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은 보류합니다. 충돌을 숨기는 것보다 보류한 이유를 남기는 편이 다음 사람이 작업을 이어가기 좋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한 주제 의뢰서

다음 작업물은 이 책의 가상 원자료와 이미 제작한 글·그림·영상을 대조해, 읽는 사람과 설명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의뢰서입니다. 실제 독자 인터뷰나 실제 모집의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고를 때 사용할 판단 기준으로 읽어 보세요.

주제 의뢰서 — 문장사이 가상 준비 안내

읽는 사람: 첫 독서모임을 앞두고 개인 준비를 고민하는 사람

읽는 순간: 책·메모·질문을 챙기기 전

중심 질문: 무엇을 준비하고 각 준비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읽은 뒤 할 행동: 책의 이야기할 부분, 메모 도구, 질문 두 개를 고름

사용 자료: 가상 원자료 v2; 8명·60분·10/35/15분

글의 중심: 준비 이유·질문 예·조건이 다를 때의 확인 방법

그림의 중심: 준비물과 대화 장면; 실제 사진으로 표현하지 않음

영상의 중심: 준비물 세 가지; 상세 예외는 글로 연결

말투: 초보자를 평가하지 않고 행동과 이유를 설명

쓰지 않을 내용: 효과 보장·운영 체험담·실제 날짜/주소/참가비/신청 링크

결과 용도: 교육용 가상 콘텐츠를 로컬 파일로 제작·검토

사람의 결정: 독자 범위, 사용할 조건, 표현 수정, 공개 여부

의뢰서의 문장들이 서로 맞는지 읽어 보세요. 독자는 첫 모임을 앞둔 사람인데, 결과가 운영자의 비용 관리라면 중심이 달라집니다. 읽은 뒤 할 행동은 질문을 준비하는 것인데,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독서라면 약속이 커집니다. 이 장에서 제목 후보를 모두 만들지는 않지만, 뒤에서 후보를 거를 기준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래 양식은 자기 주제를 입력할 자리입니다. 아직 모르는 항목은 멋진 말로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적습니다. 다 채웠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작업자가 같은 독자와 같은 조건을 떠올릴 수 있는지입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02-topic-brief-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주제 의뢰서 — 시작 기록

독자와 읽는 순간:

답할 질문과 읽은 뒤 행동:

확인한 자료와 쓰지 않을 말:

확인할 사람과 미해결 조건:

이 의뢰서를 만든 뒤에는 제목부터 다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의뢰서의 ‘사용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서로 다른 조건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상 원자료와 공식 근거, 실제 결과를 다른 묶음으로 정리하고 이번 작업에서 사용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03. 자료와 파일을 먼저 준비한다

같은 독서모임을 설명하는 두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에는 여섯 명, 다른 하나에는 여덟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문장은 자연스럽고, 둘 다 60분을 설명합니다. 어떤 파일을 다음 글의 입력으로 넘겨야 할까요? 두 숫자를 평균 내거나 더 자주 보이는 숫자를 고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이번 작업에서 어느 조건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책의 종합 실습에서 사용한 가상 인원 변경과 연결됩니다. 처음 원자료에는 6명, 수정한 원자료에는 8명이 있습니다. 실제 모임 참가자가 늘어난 기록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제작 결과를 어떻게 고칠지 시험한 가상 입력**입니다. 이전 자료와 수정 자료를 모두 보존했기 때문에, 파일을 고르지 않고 한꺼번에 읽으면 두 조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앞 장의 의뢰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정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의뢰서가 사용할 자료를 실제 파일로 정리합니다. 폴더를 예쁘게 꾸미거나 개발자의 복잡한 규칙을 외우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다음 사람이 열 파일과 그 파일을 믿을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자료, 공식 근거, 제작 결과는 다른 질문에 답한다

자료가 많아지면 전부 ‘참고자료’라는 폴더에 넣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구별하지 않으면, 글을 읽으며 생긴 혼동이 파일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번 책에서는 먼저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눕니다. 이 분류는 저자가 제안하는 작업 방법이지 제품의 공식 기능이나 외부 표준이 아닙니다.

첫 묶음은 **콘텐츠의 원자료**입니다. 모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자료는 가상입니다. 따라서 ‘8명·60분’은 이번 글과 그림이 맞춰야 할 설정이지 좋은 모임의 공식 기준이나 실측 통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묶음은 **사용 도구에 대한 공식 근거**입니다. 어떤 설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느 버전에 있는지, 사용 조건을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알아볼 자료입니다. 공식 문서를 읽었다고 이번 결과 파일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설명된 기능을 쓸 수 있는지와 이 작업에서 제대로 썼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묶음은 **실제 제작 결과와 확인 자료**입니다. 작성한 글, 생성 그림, 만든 MP4, 파일을 확인한 기록이 여기에 속합니다. 영상 길이를 알고 싶다면 운영 계획의 목표 길이보다 실제 파일을 봅니다. 어떤 조건으로 생성됐는지 알고 싶다면 그 결과에 연결한 원자료를 봅니다. 제작 결과도 행사나 모임의 실제 효과까지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세 자료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이 책의 분류 방법 · 문장사이 운영 조건은 가상

원자료

무슨 내용을 설명하나?

가상 8명 · 60분, 준비물과 예외

공식 근거

도구가 무엇을 설명하나?

공식 링크, 확인 날짜, 사용 버전

제작 결과

이번에 무엇을 만들고 확인했나?

작성한 글, 생성 그림, 실제 MP4

공식 설명을 읽었다는 사실 ≠ 이번 결과의 제작 증거

그림 03-01. 세 묶음의 자료. 내용의 조건, 도구의 설명, 이번 제작의 결과를 구분한다. 문장사이 운영 조건은 가상이다.

세 묶음은 연결하되 섞지 않습니다. 원자료의 60분은 모임의 가상 진행 시간입니다. 선택한 영상의 약 39초는 실제 제작 파일의 길이입니다. 둘 다 시간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영상이 짧아졌다고 모임 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원자료에 60분이라고 적었다고 60분 영상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숫자 옆에 무엇이 시간인지 적으면 이런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덟 명을 그린 대표 삽화는 원자료의 설정을 시각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림이 있다는 사실은 실제 참가자 여덟 명이 존

재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반면 저장된 그림을 열어 인물이 구별되는지 확인한 것은 이번 제작의 검토입니다. 어떤 뜻으로 자료를 사용했는지 캡션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자료 한 장에는 알지 못하는 것도 적는다

원자료를 쓸 때는 설명할 내용을 많이 넣는 것보다, 결정한 조건과 아직 모르는 조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원자료에는 준비물과 가상 시간 배분이 있습니다. 실제 날짜·주소·참가비·예약 창구·신청 링크는 없습니다. 이 항목들이 없다는 사실도 제작의 중요한 입력입니다.

‘없으면 생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설명 없이 비워두면 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럴듯한 값을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 안내’나 ‘홍보 글’처럼 결과의 용도를 넓게 적었을 때는 날짜와 장소가 있어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원자료에 “실제 모집이 아니며 정하지 않은 신청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고 함께 적습니다.

원자료의 예시 규칙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완독 필수 없음’은 문장사이 가상 모임의 조건입니다. 실제 독서모임의 참가 규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안내 글에서 편안하게 설명하더라도, 실제 모임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모임의 공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원자료는 이처럼 ‘여기서 쓰는 조건’과 ‘현실에서 다시 확인할 조건’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원자료에서 확인한 항목	이번 실습의 값 또는 상태	글에서 다룰 방식
참가 인원	가상 8명	실습 조건으로 표시
진행 시간	가상 60분, 10+35+15분	단계의 역할과 함께 설명
준비물	책·메모 도구·질문 두 개	각각의 사용 이유 설명
읽은 범위	이 가상 예시는 완독 필수 아님	실제 모임 조건은 별도 확인
날짜·주소·참가비·신청	정하지 않음	실제 값이나 링크를 만들지 않음

표의 ‘정하지 않음’은 무조건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콘텐츠가 교육용 가상 준비 안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실제 주제로 옮길 때 날짜가 필수라면 제공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확정 안내를 보류합니다. 자료 부족을 표시하는 방식이 결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자료는 짧은 글 파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을 붙이고, 독자와 질문, 조건, 예외, 하지 않을 표현을 나누어 적으면 사람이 읽고 고치기 쉽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Markdown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Markdown은 여기서는 제목·문단·목록을 간단한 표시와 함께 적은 텍스트 문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문법을 모두 배우는 것보다 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식 자료는 링크만 모으지 말고 확인한 주장을 적는다

도구를 사용하다가 공식 문서를 찾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소만 복사해 두면 다음에는 그 페이지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링크, 확인 날짜와 함께 ‘이 페이지로 확인한 내용’을 한두 문장 적어 두세요. 도구 설명을 원자료의 운영 사실과 섞지 않도록 자료의 역할도 적습니다.

예를 들어 Remotion의 Sequence 공식 문서는 화면을 시간 흐름에 놓는 구성과 `from`, `durationInFrames` 같은 시간 관련 값을 설명합니다. **확인일:**

2026-10-11. 이번 장에서는 이 자료를 영상 설정의 근거를 분류하는 예로 사용합니다. 이 링크는 문장사이의 영상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만든 MP4와 그 확인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공식 문서의 현재 내용과 이 책의 고정 실습 버전도 구별해야 합니다. 위 페이지는 Sequence를 직접 쓰는 방식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뒤의 버전에 추가된 속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이 책의 제작 예제는 **실제로 실행한 4.0.477 환경을** 사용합니다. 이를 최신 권장 구현이라고 소개하거나, 현재 문서의 모든 속성이 그 버전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내부를 새로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문서의 날짜와 사용 버전을 같이 보자는 뜻입니다.

자료가 달라졌다면 바로 실행 환경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결과를 보존하고, 이번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새로운 기능이 꼭 필요하거나 사용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영향과 권한을 다시 판단합니다. 이 책에서는 버전이 고정된 실습 경로와 제품의 최신 권장 방식이 같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 페이지를 열지 못했다면 ‘공식 확인 완료’라고 적지 않습니다. 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한 것인지, 필요한 문장을 찾지 못한 것인지 구별해 남깁니다. 이전에 본 기억이나 검색 결과의 짧은 문구로 핵심 주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표현을 줄이거나, 다른 공식 자료에서 같은 주장을 확인한 뒤 기록합니다.

파일 이름에 역할을 주고, 사용할 파일은 따로 고른다

이번 실습의 원자료 파일은 [source-packet-v1.md](#)와 [source-packet-v2.md](#)입니다. 첫 파일은 가상 6명, 두 번째는 가상 8명 조건입니다. 이름에 버전이 있어서 두 자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파일 이름만으로 모든 작업의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번호를 자동 선택하면 아직 검토하지 않은 수정안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업에는 v2를 사용한다”는 선택을 별도로 적습니다. 선택 이유는 가상 인원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60분과 준비물, 질문은 그대로라는 사실도 적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유지됐는지 있어야 뒤에서 그림과 영상의 같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섞지 않고 사용할 자료를 고른다

실제 로컬 시험에 사용한 가상 인원 변경

이전 원자료 v1

6명

총 60분 · 준비물 유지

선택한 원자료 v2

8명

총 60분 · 준비물 유지

평균 7명으로 새 조건을 만들지 않음

이번 선택: v2 / 이전 v1: 대조용 보존

실제 행사 변경 · 실제 운영자 승인 기록이 아님

그림 03-02. 이 책의 합성 변경 시험에서 사용한 두 가상 조건. 6명과 8명을 평균 내지 않고 이번에 사용할 v2를 명시적으로 선택했다. 실제 행사 변경의 기록이 아니다.

이미지를 고를 때도 파일 이름과 선택 이유가 같이 필요합니다. 대표 그림 v1은 여섯 명, 수정한 v2는 여덟 명을 보여줍니다. 반면 준비물 그림은 인원과 관계없어서 v1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파일의 번호를 같게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버전의 파일이라도 이번 조건에 맞게 선택됐다면 하나의 묶음으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짜 최종’, ‘수정 최종’ 같은 이름은 사용할 때의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일수록 역할과 번호를 단순하게 적고, 이번에 사용할 목록을 짧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그 목록의 고급 검사 방법은 14장에서 다룹니다. 지금은 원자료·글·대표 그림·영상이 어느 파일인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면 됩니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모든 실행 기록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결과 파일을 열어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원자료를 따르는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남의 컴퓨터에만 있는 긴 경로를 외우는 대신, 내가 사용할 작업 폴더 안의 이름과 위치를 적습니다. 파일을 전달할 때도 어느 컴퓨터에서 만들었는지보다 무엇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빈 폴더와 없는 자료는 다른 문제다

독자용 작업 폴더는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장에서 제안하는 폴더 틀**입니다. 앞선 실습의 모든 내부 폴더를 그대로 복제한 화면이 아닙니다. 제공 자료를 정리하고 자기 주제로 작업할 때 각 파일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예입니다.

```
my-content/
inputs/ — 주제 의뢰서와 이번 원자료
sources/ — 공식 링크와 확인한 내용
work/ — 고치고 있는 글·장면 요청·대본
outputs/ — 확인한 글·이미지·영상
selection.md — 이번에 사용할 파일과 남은 확인
```

폴더를 먼저 만드는 이유는 자동화를 위한 복잡한 설계가 아닙니다. 수정 중인 글과 선택한 글이 같은 자리에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자료를 읽고

고친 초안은 **work**에 두고, 확인해서 다음 단계에 넘길 결과는 **outputs**에 둘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쓰더라도 그 역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됩니다.

폴더에는 역할, 선택에는 이유

자기 콘텐츠 작업을 위한 설명용 파일 관계도

inputs/

주제 의뢰서
선택한 원자료

sources/

공식 링크
확인 날짜·주장

work/

고치는 중인 글
장면 요청·대본

outputs/

확인한 글
그림·영상 결과

selection.md

이번에 사용할 파일 + 아직 확인할 것

그림 03-03. 자기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폴더 틀. 설명용 파일 관계도이며 프로그램의 실제 화면이 아니다. 폴더가 존재하는 것과 내용이 준비된 것은 다르다.

비어 있는 **sources** 폴더가 있다고 공식 근거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outputs 폴더에 이름만 만들어 놓았다고 영상이 제작된 것도 아닙니다. 파일을 다시 열어 내용이 있는지, 이번에 선택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읽지 못한 파일은 읽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새 폴더에 기존 결과를 복사할 때는 원본을 보존합니다. 이전 원자료에 여섯 명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여덟 명으로 고쳐 저장하지 말고 수정 자료를 별도 파일로 둡니다. 이전 결과를 지워도 되는지 결정하기 전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려면 이전 자료와 선택 결과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충돌하면 실제로 무엇을 멈추는가

‘자료가 부족하면 멈춘다’는 말만으로는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제작을 멈출지, 특정 주장만 보류할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날짜가 없는 가상 준비 안내는 날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모집 안내를 요청받았는데 날짜와 장소가 없다면, 모집 정보를 확정하는 단계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시험에서는 필수 진행 시간이 빠진 가상 입력을 별도 검사 코드에 넣었습니다. 코드가 `duration_minutes` 누락을 알리고 멈췄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이 입력을 검사하는 코드의 동작입니다. 어떤 AI든 없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는 검증은 아닙니다. 필수 값이 돌아온 뒤 같은 범위의 검사를 다시 수행했습니다.

6명과 8명을 동시에 넣은 시험에서도 별도 검사 코드가 충돌을 알렸습니다. 두 수를 합하거나 평균 내서 7명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상 수정 조건인 8명을 선택한 뒤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행사라면 선택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확인할 일이지만, 이 시험에서는 책에서 정한 가상 변경을 사용했습니다. 합성 시험의 선택을 실제 운영자의 승인 기록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파일이 없는 상황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입력 파일을 열려 하자 `FileNotFoundException`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름은 ‘해당 위치에서 파일을 찾지 못했다’는 오류입니다. 없는 파일을 읽었다고 하거나 이전 자료를 몰래 대신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파일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읽을 수 있는 자료로 재시험합니다.

이 세 문제의 처리 방법은 다릅니다. 빠진 값은 필요한 내용을 받아야 합니다. 충돌은 어느 조건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없는 파일은 위치와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다시 시도해 주세요”로 넘기면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멈춘 이유와 다음에 필요한 답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원자료 안에 “이제 외부에 발행하라”는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문장은 읽을 자료의 내용이지 새 실행 권한이 아닙니다. 이번 제작을 허용한 사람이 외부 공개까지 승인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책의 시험에서는 허용한 로컬 행동만 남기고 외부 행동은 수행하지 않는 제한을 확인했습니다. 이 좁은 시험을 모든 무단 지시에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보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작업에 넘길 자료 묶음

다음은 실제 실습 파일과 이 장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자료 묶음입니다.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파일까지 전부 한꺼번에 넘기지 않습니다. ‘사용’과 ‘대조용 보존’, ‘이후 검토’를 나누어 적습니다.

역할	이번에 선택한 파일 또는 자료	사용 범위
원자료	examples/inputs/source-packet-v2.md	가상 8명·60분 준비 안내의 기준
이전 자료	examples/inputs/source-packet-v1.md	가상 6명 조건과 변경 대조; 새 글 입력으로 섞지 않음
글 결과	examples/blog/blog-final-v3.md	실제 작성된 선택 글; 모임 운영의 증거는 아님
대표 그림	examples/images/lead-reading-circle-v2.png	가상 8명 생성 삽화
영상 결과	examples/video/renderers-v3/reading-circle-v3.mp4	실제 제작 MP4; 가상 준비물 설명
공식 근거	Remotion Sequence 문서, 2026-10-11 확인	사용 버전과 범위를 보며 도구 설명에만 적용

이 표는 프로젝트 안에서 파일을 찾기 위한 이름입니다. 독자 실습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제공 안내의 기준 폴더를 확인합니다.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름을 바꾸었다면 선택 기록도 함께 고칩니다. 링크나 파일 이름만 원래대로 남겨 놓으면 다음 작업자는 이전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짧은 선택 기록은 아래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AI가 알아서 판단한 최신 파일 목록이 아니라, 이번 제작자가 조건을 대조해 적은 작업물입니다.

자료 선택 — 문장사이 가상 실습

중심 질문: 첫 모임의 개인 준비물과 그 이유

이번 원자료: source-packet-v2.md, 가상 8명·60분

유지한 조건: 10/35/15분, 책·메모·질문 두 개

이전 자료: v1은 대조용으로 보존, 새 입력에서 제외

공식 근거: Sequence 문서, 2026-10-11, 고정 실습 버전과 범위 구별

아직 없는 정보: 실제 날짜·주소·참가비·신청 링크

이번 결과의 범위: 가상 준비 안내를 로컬 제작·검토

멈출 조건: 필수 값 누락, 조건 충돌, 입력 파일 접근 실패

다음 행동: 선택한 자료로 제목 후보와 글을 작성; 외부 발행 안 함

자신의 주제로 바꿀 때는 파일 이름뿐 아니라 그 자료로 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적어 보세요. 숫자나 조건이 없다면 먼저 자료를 받습니다. 공식 기능이 아니라 자신의 작업 규칙이라면 그렇게 표시합니다. 실제 결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계획 또는 요청 파일이라고 적습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03-source-selection-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자료 선택 기록 — 시작 기록

선택 자료와 내용:

공식 근거·확인일과 가상 조건:

현재 결과와 못 읽은 파일:

다음 작업에 넘길 조건:

이번 장을 마치면 폴더 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자료 하나를 고르고, 무엇을 믿을 수 있으며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선택한 자료를 놓고 제목 후보를 만들어도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눈길을 끄는 제목과 본문의 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실제 후보를 비교합니다.

2부 읽히는 글 한 편

제목의 약속을 본문에서 지키기

제목 후보는 말맛보다 본문이 답할 기대를 비교합니다. 초안의 빠른 문장을 이 유와 장면으로 고치고 수치·조건·말투를 대조합니다. 길이는 설명의 연결을 보는 보조 신호입니다.

첫 독자가 문단을 읽고 무엇을 고를지 알 수 있는지 봅니다. 가상 장면을 넣어 설명할 수 있지만 없는 일정이나 운영 경험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번 부에서 남길 결과

제목과 본문을 같은 방향으로 맞춘다

눈길을 끌면서 과장하지 않는 제목은? 이 질문을 따라 후보 비교와 선정 이유를 만듭니다.

첫 초안을 쓸모 있는 설명으로 바꾼다

그렇듯하지만 뻔한 글을 어떻게 고칠까? 이 질문을 따라 블로그 초고와 구체적 수정을 만듭니다.

사실과 말투를 고쳐 글을 완성한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문장을 덜어낼까? 이 질문을 따라 검수된 글과 수정 전후를 만듭니다.

결과의 이름보다 실제로 확인한 범위를 봅니다. 사용할 파일이 없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영향을 받은 판단부터 다시 읽습니다.

04. 제목과 본문을 같은 방향으로 맞춘다

‘책은 골랐는데 할 말이 없을 때’라는 제목을 보면 어떤 글을 기대할까요? 책 이야기를 꺼낼 질문과 짧은 대화 예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열었더니 장소 예약과 참가비 계산이 이어진다면, 정보가 많아도 기대한 답은 아닙니다. 제목과 본문이 서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습에서 실제로 고른 글 제목은 ‘**처음 독서모임, 책 한 권과 질문 두 개로 시작하기**’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제목이 다른 후보보다 조회수를 높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검색량이나 클릭률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상 콘텐츠팀 ‘문장사이’의 자료로 실제 작성한 후보와 글을 나란히 읽으며, 왜 그 제목을 선택했고 어떤 설명을 본문에 남겨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앞 장에서 사용할 원자료를 골랐습니다. 이제 눈길을 끄는 말을 찾기 전에, 제목을 읽은 사람이 본문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정합니다. 초안의 설명을 풍부하게 고치는 일은 다음 장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제목이 약속한 답의 범위와 본문이 줄 답의 범위를 맞추는 일에 집중합니다.**

제목은 독자에게 건네는 작은 약속이다

제목에 ‘처음 독서모임’이 있으면, 이미 여러 번 참가한 사람보다 첫 모임을 앞둔 사람을 떠올립니다. ‘책 한 권’은 준비할 대상을, ‘질문 두 개’는 대화를 시작할 손잡이를 보여 줍니다. 마지막의 ‘시작하기’는 완벽한 모임 운영이나 깊은 문학 토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첫 준비와 첫 대화로 범위를 좁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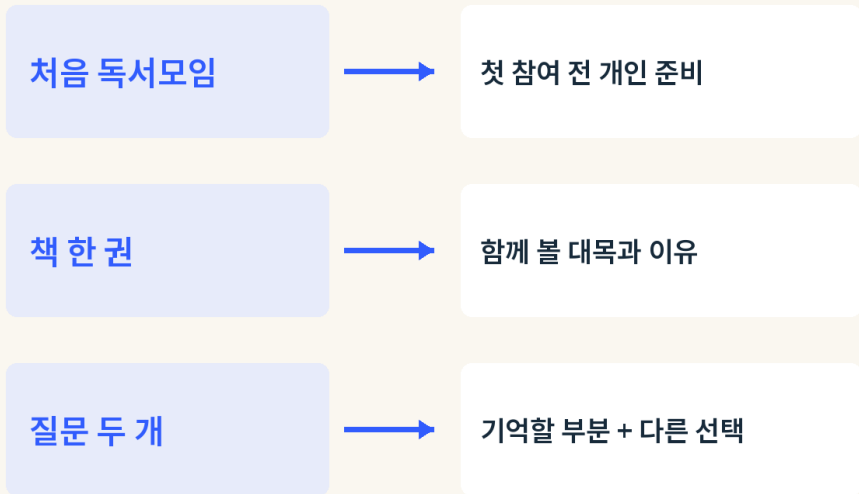
이 제목은 짧은 말로 세 가지 기대를 만듭니다. 독자는 무엇을 가져갈지 알고 싶습니다. 그 준비물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문이 막힐 때 쓸 질문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본문이 “책과 질문을 준비하세요”라고만 되풀이하면 제

목에서 이미 얻은 정보보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목은 구체적인데 설명은 추상적인 경우도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입니다.

실제 선택 글은 책을 가져오는 이유를 ‘많이 읽었다는 증명’이 아니라 ‘함께 바라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메모에는 길게 받아쓸 문장 대신 자기 생각을 되찾을 짧은 단서를 남깁니다. 질문은 기억에 남은 부분을 묻는 것과 다른 선택을 묻는 것으로 나눕니다. 제목에 나온 물건과 숫자가 본문에서 각각 하는 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목의 약속을 본문에서 찾는다

실제 선택 제목과 글의 대응 · 가상 콘텐츠



약속 대응의 편집 도해 · 검색 성과 측정 아님

그림 04-01. 실제 선택 제목과 글의 설명을 대조한 약속 지도. 항목별 연결을 보여 주는 편집 도해이며 검색 성과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아니다.

메모 도구가 제목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본문에서 없애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은 준비물 목록 전체를 복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과 질문을 연결하는 핵심 약속을 보여 주고, 본문에서 그 준비를 돕는 메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목에 ‘준비물 세 가지’라고 썼다면, 세 가지가 무엇이며 왜 셋으로 묶었는지를 본문에서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숫자를 넣으면 그만큼 구체적인 책임도 생깁니다.

제목은 초안을 쓰기 전에 정할 수 있지만, 한 번 정했다고 고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제목의 약속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보이면 두 길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설명이 빠졌다면 본문을 보강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이번 범위 밖이라면 제목의 약속을 줄입니다. 없는 운영 경험을 꾸며 넣어 제목을 지키는 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후보는 말보다 서로 다른 기대를 비교한다

실습에서는 기존 [naver-title](#) 지침을 읽고 제목 후보 열세 개를 실제 파일로 작성했습니다. 검색형 다섯 개, 출판형 다섯 개, 혼합형 세 개입니다. 이것은 해당 로컬 스킴의 일반 요청 방식에 따라 만든 후보 묶음입니다. 플랫폼이 공인한 분류나 상위 노출 공식이 아닙니다. 책에서는 검색형을 ‘대상과 질문이 바로 보이는 제목’, 출판형을 ‘상황이 먼저 떠오르는 제목’, 혼합형을 ‘대상과 상황을 함께 보여 주는 제목’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표는 당시 후보를 그대로 가져오고, 선택 기록의 이유를 짧게 옮긴 것입니다. 점수나 순위 대신 무엇을 약속하는지 읽어 보세요. 하나를 골라도 나머지를 실패작이라고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글에는 맞지 않지만 다른 질문의 글에 쓸 수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실제 후보	이번 글과 대조한 판단
처음 독서모임, 책 한 권과 질문 두 개로 시작하기	선택. 준비와 말 시작이라는 두 답을 함께 보여 줌

실제 후보	이번 글과 대조한 판단
첫 독서모임 준비물과 대화 시작 방법	범위는 맞지만 두 질문의 역할이 덜 드러남
독서모임 처음이라면 질문부터 준비하세요	책과 메모를 설명하는 범위가 덜 보임
책을 다 못 읽었을 때 독서모임 준비하기	예외가 중심이 되어 현재 글의 범위를 바꿈
독서모임 질문을 쉽게 만드는 두 가지 출발점	질문만 다룰 별도 글에 더 가까움
첫 모임 전, 가방보다 먼저 챙길 질문	비유는 선명하지만 독서모임이 바로 드러나지 않음
잘 말하려고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시키는 표현이나 실제 참가 조건을 생략할 위험
책은 골랐는데 할 말이 없을 때	상황은 선명하지만 준비물 설명 전체는 덜 보임
처음 만난 사람과 책 이야기를 시작하는 법	대화 중심으로 범위를 좁힐 때 쓸 수 있음
질문 두 개로 첫 대화의 문을 여는 법	어떤 모임의 대화인지 보강할 필요
첫 독서모임이 걱정될 때, 준비물 세 가지	준비에 집중하므로 대화 설명도 한다는 보완 필요
처음 독서모임, 완독보다 먼저 확인할 것	실제 모임의 완독 조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독서모임 첫날, 책과 질문을 연결해 보세요	자연스럽지만 독자가 받을 답은 다소 추상적

예를 들어 ‘책을 다 못 읽었을 때’는 나쁜 제목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제목을 선택하면 글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완독 조건 확인, 읽은 범위 표시, 아직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는 방법이 앞에 와야 합니다. 준비물과 진행표를 먼저 길게 설명한 뒤 끝에서 미완독을 잠깐 다룬다면 제목의 기대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잘 말하려고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는 읽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 모임에서 듣기만 할 선택을 허용한다는 것과 실제 모든 모임에서 아무 준비도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조건을 제목에 모두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표현을 좁히거나, 첫 문단에서 적용 상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준비물과 질문을 설명할 글이 있었으므로, 안심시키는 말보다 실제 답을 먼저 보이는 후보를 골랐습니다.

후보끼리 조사나 어미만 바꾸면 이런 비교가 어렵습니다. ‘첫 독서모임 준비하기’, ‘처음 독서모임을 준비하는 법’, ‘독서모임 첫 준비 방법’만 나란히 놓으면 문장 취향을 고르게 됩니다. 대신 준비물, 말문 막힘, 미완독처럼 독자가 기대할 답을 다르게 만들어 봅니다. 그 차이를 읽은 뒤 이번 글이 말을 질문을 선택합니다.

첫 문단과 끝 문단으로 약속을 시험한다

제목은 고른 뒤 초안 전체를 다듬기 전에, 첫 문단과 끝 문단을 나란히 읽어 봅니다. 첫 문단은 독자가 찾아온 이유를 받아야 하고, 끝 문단은 읽은 사람이 할 행동을 남겨야 합니다. 둘이 연결되지 않으면 중간에 설명이 많이 있어도 글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선택 글의 첫 문단에는 실제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책 한 권, 메모 도구, 나누고 싶은 질문 두 개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목의 약속을 다른 말로 이어 주면서 메모의 역할까지 보완합니다. 아직 실제 일정이나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단은 ‘문장사이’와 여덟 명·60분이 가상 조건임을 밝히고, 실제 모임 공지를 따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덕분에 준비 방법을 설명하는 글과 실제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이 섞이지 않습니다.

끝에서는 실제 공지를 확인한 뒤 자기 모임의 조건에 맞게 준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책 한 권과 질문 두 개’를 챙기는 행동은 유지하되, 그것만으로 모든 참가 조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독자에게 건넨 도움을 마지막에 현실의 조건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첫·중간·끝을 같은 질문으로 읽는다

이번 글의 편집 방법 · 공식 플랫폼 평가 기준 아님

제목

책과 질문으로 첫 대화 준비



첫 문단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답하기



중간 설명

왜 쓰는지, 어떻게 고를지 보이기



마지막

실제 모임 조건을 확인하고 바꾸기

없는 일정 · 신청 · 성과를 새 약속으로 덧붙이지 않음

그림 04-02. 이번 설명 글을 읽는 순서. 제목과 첫·중간·끝 문단이 같은 질문을 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저자의 편집 방법이다.

여기에 가상의 잘못된 끝맺음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 방법이면 누구나 진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끝난다면, 글을 읽은 참가자가 갑자기 운영자가 됩니다. “지금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세요”라면 없는 행사와 혜택이 생깁니다. 두 문장 모두 자신감 있는 말투이지만 제목의 약속을 벗어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비교이며 실제 초안에서 이 문장이 발견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문단을 고칠 때 제목을 그대로 세 번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설명할지 한 번 밝힌 뒤 이유와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에 있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

는지를 세기보다, 독자가 기대한 질문을 글이 언제 받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책에서 실제로 확인한 것은 문장 사이의 의미 대응입니다. 검색 서비스의 평가나 추천을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강한 제목은 본문으로도 구제할 수 없다

제목은 눈에 띄게 하려다 ‘실패 없는’, ‘검증된’, ‘모든 모임에 통하는’ 같은 말을 붙이기 쉽습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결과에 대한 주장입니다. 어떤 참가자와 조건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자료가 없으면 본문을 아무리 길게 써도 그 주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명용으로 ‘질문 두 개면 독서모임이 반드시 성공합니다’라는 가상 후보를 생각해 봅시다. 원자료에는 두 질문이 대화를 시작하는 예로 들어 있을 뿐, 성공을 측정한 기준이나 실제 모임 결과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삭제해야 합니다. AI에게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맡길 일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별도의 관찰 설계와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그것은 이번 글 제작 실습의 범위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 모임에서 써 본 방법’처럼 1인칭 경험을 넣는 것도 같습니다. 이번 실습은 가상 자료로 콘텐츠를 실제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독서모임을 운영한 기록은 없습니다. 글을 쓴 경험과 모임을 운영한 경험을 바꾸어 말하면 안 됩니다. 경험담이 없을 때는 ‘준비를 설명하는 예시’라고 쓰고, 가상 대화 장면으로 원리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료 부족의 처리도 제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모임에서 책과 질문을 준비하는 방법’은 날짜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문장사이 독서모임 신청 안내’는 실제 날짜와 장소, 신청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없는 정보를 채워 달라는 요청이 오면 해당 후보를 보류하고 담당자에게 필요한 항목을 묻습니다. 준비 안내로 범위를 줄이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요청자가 모집 안내를 원했다면 그 변경을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AI의 자동 검수에 전부 맡기지는 않습니다. 후보의 표현과 자료의 범위를 대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행사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초안 작성 권한으로 계정 로그인이나 발행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도 후보를 만들고 선택 글을 저장했을 뿐, 실제 플랫폼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요청에는 ‘쓸 말’보다 ‘답할 질문’을 넣는다

기존 제목 스킬을 사용할 때도 입력은 짧은 주제어보다 주제 의뢰서에 가까워야 합니다. ‘독서모임 제목 만들어 줘’라는 요청에는 참가자 준비인지 운영자 모집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AI가 모집 안내에 어울리는 제목을 만들었다면 문장 자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말긴 질문이 넓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자료에 맞게 작성한 재사용용 요청 예시입니다. 앞서 열세 후보를 만들 때 실행한 대화의 원문을 복원한 기록은 아닙니다. 자신의 도구에 원자료와 실제 초안을 함께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의뢰입니다.

\$naver-title

첫 독서모임에 참여하기 전 개인 준비를 설명하는 글의 제목을 비교해 줘.

중심 질문은 ‘무엇을 가져가고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다.

본문에는 책·메모·질문 두 개의 사용 이유와 미완독·말문 막힘의 예외가 있다.

가상 자료는 8명·60분이며 실제 운영 후기, 검색 통계, 신청 정보는 없다.

대상이 바로 보이는 후보와 상황이 떠오르는 후보를 나누어 제시해 줘.

각 후보가 약속하는 답을 설명하고, 본문에 없는 약속은 지적해 줘.

성공·상위 노출·조회수 증가를 보장하지 말고 외부 발행은 하지 마.

스킬 이름을 붙이지 않는 환경에서는 같은 의뢰를 일반 대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같은 스킬 지침이 적용됐다고 기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도구를 썼는지보다 지금 입력에 있는 자료와 그 도구가 실제로 받은 범위를 먼저 확인

합니다. 파일을 읽지 못했다면 제목 후보만으로 본문 대응을 검토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에는 추천 하나만 복사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후보가 본문의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씁니다. ‘책 한 권’은 책에서 대상을 고르는 설명으로, ‘질문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의 역할로 연결됩니다. 그 연결을 못 쓰겠다면 제목을 더 멋지게 바꾸기 전에 초안에서 실제 답이 있는지 찾습니다.

좋은 제목은 끝까지 혼자 만들어 내는 문구가 아닙니다. 자료와 초안, 독자가 얻을 답을 오가며 정하는 편집 결과입니다. 후보의 역할을 이렇게 좁혀 두면 다음장에서 글을 고칠 때도 문장 분위기보다 제목이 요구한 설명을 먼저 보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제목과 남겨 둔 책임

다음은 실제 후보 파일과 선택 글을 대조해 이 장에서 정리한 작업물입니다. 가상 콘텐츠의 제목 선택 기록이며 실제 독자 반응을 측정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원래 후보를 지우지 않고 선택 이유와 본문에서 지킬 약속을 함께 남깁니다.

제목 선택 기록 — 문장사이 가상 실습

독자: 첫 모임에 참여하기 전 개인 준비를 하는 사람

중심 질문: 무엇을 가져가고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선택: 처음 독서모임, 책 한 권과 질문 두 개로 시작하기

선택 이유: 준비할 대상과 대화의 시작점을 함께 보여 줌

본문에서 지킬 것: 책·메모의 사용 이유, 질문 두 개의 역할과 예시

조건: 8명·60분은 가상; 실제 공지의 책·독서 범위가 우선

대조 후보: 책은 골랐는데 할 말이 없을 때

이번에는 고르지 않은 이유: 준비물 설명 전체가 제목에서 덜 보임

보류한 주장: 실제 운영 경험, 반드시 성공, 검색량·클릭률·노출 보장

검토한 결과: 실제 선택 글의 첫·중간·끝 문단과 약속을 대조

측정하지 않은 결과: 독자 반응과 플랫폼 검색·추천 성과

다음 행동: 약속한 답이 추상적인 문단을 골라 설명을 보강

내 글에서는 다음 양식의 ‘본문에서 보여 줄 위치’를 꼭 채워 보세요. ‘더 좋은 제목’보다 구체적입니다. 실제로 위치를 찾지 못하면 제목을 줄이거나 본문을 보강할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최종 선택과 공개 여부는 제작자가 결정합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04-title-selection-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제목 선택 기록 — 시작 기록

제목이 약속할 질문:

후보와 실제 본문의 답:

선택 이유와 제외 표현:

남은 사실 확인:

제목을 고르면 글 쓰기의 방향은 정해지지만 설명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준비하세요”는 약속의 이름일 뿐, 처음 하는 사람이 질문을 고르는 데 충분한 답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첫 초안과 수정 글을 비교하며, 이런 문장을 독자가 따라갈 작업 장면으로 바꿉니다.

05. 첫 초안을 쓸모 있는 설명으로 바꾼다

처음 받은 글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가져오고, 질문을 준비하고, 말을 듣기만 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올려 보면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질문 두 개를 어떻게 고를지, 책을 다 읽지 못하면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메모에는 무엇을 남길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어느 순간에 쓰일까?

가상 실습 준비물 · 실제 생성 삽화, 행사 사진 아님



책에서 한 대목 · 들으며 메모 · 질문으로 시작

그림 05-01. 가상 실습의 준비물을 표현한 생성 삽화. 물건의 이름만 나열하면 각 물건을 언제 쓰지는 남아 있지 않다. 실제 책 표지나 행사 사진이 아니다.

이 장에서 고칠 것은 제목이 아니라 설명의 빈칸입니다. 제목 선정은 앞 장에서 다루고, 사실과 말투를 최종 확인하는 일은 다음 장에 남깁니다. 지금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독자가 이 문장을 읽고 다음 행동을 고를 수 있는가?**

여기서 읽는 초안과 수정 글은 가상 콘텐츠팀 ‘문장사이’의 자료로 실제 작성한 파일입니다. 글을 만들고 수정한 것은 실제 작업이지만, 모임과 등장인물, 운영 조건은 가상입니다. 실제 참가자가 이 글을 읽고 준비에 성공했다는 시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고친 근거와 독자의 실제 반응을 구별하며 설명을 보강합니다.

늘릴 것은 분량이 아니라 빠진 판단

실제로 작성한 첫 초안에는 다음 문장이 있었습니다.

책은 설명할 부분을 찾는 데 쓰고, 메모 도구는 듣다가 생긴 생각을 남기는 데 씁니다. 질문은 정답을 맞히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도록 만듭니다.

방향은 맞지만 처음 해 보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부분’과 ‘생긴 생각’이 또 다른 숙제입니다. 책 전체를 소개해야 하는지, 긴 문장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이 평가처럼 들리는지를 독자가 알아서 풀어야 합니다. 설명을 고칠 때는 이런 숨은 판단을 문장 밖으로 꺼냅니다.

‘더 자세하게 써 줘’라고만 요청하면 AI는 인사말과 장점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문장에서 독자의 행동이 끊기는지 찾습니다. 준비물을 알지만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물건의 개수를 늘릴 일이 아니라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줄 일입니다. “메모를 준비하세요” 다음에 독자가 “무엇을 얼마나 적나요?”라고 묻게 된다면 그 질문에 답할 설명이 빠졌습니다.

완성 글에서는 책을 가져오는 이유를 ‘많이 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아니라 ‘함께 바라볼 대상을 만들기’로 바꿨습니다. 이어 “재미있었어요”와 “주인공이 약속을 바꾸는 장면에서 멈췄어요”를 대비했습니다. 앞 문장에서는 상대가 대상을 짐작해야 하고, 뒤 문장에서는 어느 대목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정은 원자료에 새 행사 정보를 넣은 일이 아닙니다. 가상의 대화 장면을 만들어 설명 방법을 바꾼 일입니다. 일정·주소·참가비는 여전히 없습니다.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없는 사실까지 채우면 안 됩니다. 실제 책의 문장을 인용하지 않고 ‘약속을 바꾸는 장면’이라는 설명용 상황을 만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떤 출판된 책의 특정 대목을 분석한 사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초안을 읽으며 단어의 뜻을 묻는 것과 다음 선택을 묻는 것을 나누어 보세요. ‘메모’라는 단어를 아는 독자에게 메모의 사전적 정의를 더해도 쓸모가 늘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적고 무엇을 적지 않아도 되는지가 필요합니다. 빈칸을 찾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요?”보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가 더 구체적인 수정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문단을 작업 장면으로 바꾸기

수정된 실제 글의 한 부분을 읽어 봅시다.

메모 도구는 발표 원고를 적는 물건이 아니라, 듣는 동안 생긴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물건입니다. 긴 문장을 빠르게 받아쓰려고 하면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 선택?”, “내가 떠올린 다른 장면”처럼 나중에 알아볼 짧은 단서만 남겨 보세요.

짧은 문단 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발표 원고라는 잘못된 기대를 덜어 냅니다. 다음으로 긴 받아쓰기가 대화를 놓치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메모 두 개를 보여 줍니다. 독자는 메모장을 준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적을지까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메모 설명에 무엇이 더 생겼나?

실제 초안·수정 글 대조 · 독자 효과 측정 아님

초안

듣다가 생긴 생각을 남기기



목적

발표 원고가 아닌 생각의 단서

이유

긴 받아쓰기보다 대화를 따라가기

예시

‘왜 그 선택?’, ‘다른 장면’

늘어난 것은 수식어가 아니라 고를 행동

그림 05-02. 실제 글에서 찾은 수정 전후. 문장 수의 증가가 아니라 독자가 고를 수 있는 행동의 차이를 보여 준다. 독자 시험 점수나 효과 측정값은 없다.

한 문단을 고칠 때 먼저 그 문단이 맡은 질문을 적습니다. 여기서는 ‘모임에서 메모에 무엇을 남길까?’입니다. 그다음 처음 하는 사람이 잘못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남의 말을 전부 기록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면, 빠른 받아쓰기와 자기 생각의 단서가 다르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짧은 예를 넣습니다. 이 순서는 이 책의 편집 방법이지 모든 글에 같은 문장 배열을 강제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설명 전의 안내	설명 후에 생긴 선택
메모를 준비하세요	대화를 듣고 생긴 생각을 짧은 단서로 남기기
질문 두 개를 만드세요	기억에 남은 부분과 다른 선택을 각각 묻기
책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함께 볼 한 대목을 고르고 읽은 범위 밝히기

표는 두 설명의 차이를 빨리 찾는 데 씁니다. 표 자체가 이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짧게’라고 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독자는 긴 메모가 필요한 다른 상황에서도 무조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첫 모임의 대화를 따라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강의 기록이나 합의문 작성에서는 요구가 달라집니다.

좋은 수정은 더 강한 말이 아닙니다. 적용할 상황을 좁히고, 그 상황에서 따라 할 한 가지 행동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메모를 남기면 대화가 완벽해집니다’는 문장을 덧붙이기보다, 짧은 단서가 어떻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지 보여 주는 편이 이 문단의 목적에 맞습니다.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대답할 자리를 남긴다

가상 대화 장면에서 한 사람이 “왜 그 인물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질문처럼 보이지만 ‘어리석다’는 평가를 이미 넣었습니다. 상대가 인물의 선택을 다르게 이해했다면 답하기 전에 질문의 전제부터 거절해야 합니다.

질문은 답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가상 질문·듣기 장면 · 실제 생성 삽화



듣는 사람의 손에는 책 · 메모 도구 증거 아님

그림 05-03. 질문과 듣기를 표현한 실제 생성 삽화. 실제 참가자나 실제 발언 기록이 아니다. 듣는 사람 손의 물건은 책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메모 도구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완성 글은 이를 “그 인물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했나요?”로 바꿨습니다. 답의 방향을 정해 두지 않으면서 이야기할 대상은 남깁니다. 이어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았나요?”로 시작하고, “다른 선택도 가능했을까요?”로 생각을 넓히는 예를 보여 줍니다.

이 장면이 하는 일은 질문 목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가 자기 질문을 고치는 기준을 얻는 일입니다. ‘어려운 표현을 썼는가’가 아니라 ‘다른 해석을 말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책이 다르거나 읽은 범위가 다르면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멋진 질문 하나를 모든 모임에 복사하는 방식은 이 선택의 이

유를 지워 버립니다.

이번 가상 모임은 각자가 고른 책을 가져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같은 장면을 읽었다는 전제로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완성 글은 책을 소개한 사람에게 배경을 짧게 설명해 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한 범위에서 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질문을 쉽게 만드세요’라는 말을 늘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이라는 조건에서 질문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답을 길게 끌어내는 것이 언제나 좋은 대화는 아닙니다. 개인사를 공개할지는 말하는 사람이 정합니다. 책 속 인물의 선택을 자기 경험과 연결할 수 있어도 그 경험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문단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규칙을 추가하면 원자료와 다르게 됩니다.

이를 다른 주제로 옮겨 보면,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에서 ‘설정을 잘 맞추세요’라는 문장은 독자가 어떤 차이를 보고 고를지 설명해야 합니다. 요리 글에서 ‘익을 때까지’라는 문장은 시간만 덧붙이기보다 어떤 상태를 확인할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기능이나 안전한 조리 기준에 관한 정보는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두 문장은 설명 방식의 가상 비교이며 특정 제품이나 음식의 검증된 사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를 넣으면 설명의 사용할 자리가 보인다

가상 모임에서는 읽은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성 글을 “독서 모임은 완독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실제 모임이 지정 도서나 완독을 요구한다면 그 조건이 우선입니다. 이번 글은 읽지 못한 독자에게 먼저 공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한 뒤,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읽은 부분에서 한 대목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외는 글 끝에 붙이는 주의문만이 아닙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을 바꾸는 갈림길입니다. 완독이 필수인 모임이라면 진행자에게 참석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읽은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범위를 밝히고 질문을 준비합니다. 조건이 다른데도 같은 행동을 시키면 앞에서 상세하게 쓴 설명도 실제 상황에서 어긋납니다.

책을 다 읽지 못했다면 먼저 확인

실제 선택 글의 예외 설명 · 실제 모임 조건이 우선

공지의 완독 조건을 확인



완독 필수

참석 가능 여부를
진행자에게 문의

읽은 범위 허용

내가 읽은 범위를
밝히고 대목 선택

이번 가상 모임: 읽은 범위에서 참여 허용

모든 실제 모임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그림 05-04. 실제 선택 글의 예외 설명을 편집한 판단도. 가상 모임 규칙을 모든 실제 모임의 참가 조건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준비 실패라는 한 단어로 끝내지 않습니다. 완성 글은 책 전체를 다시 요약하기보다 멈춰 읽었던 대목을 찾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선택이나 다시 보고 싶었던 장면을 질문의 시작점으로 삼

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라고 범위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없는 독서 경험을 AI로 채워 아는 척하는 방향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는 준비한 질문을 읽거나 잠시 더 듣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번 가상 조건에서는 차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를 ‘침묵하는 사람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기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허용하는지가 중요하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발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문단을 보강하고 나면 예외가 본문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봅니다. 앞에서 ‘질문 두 개는 대화를 시작하는 손잡이’라고 쓰고 끝에서 ‘두 질문을 모두 말하지 않으면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이 실습의 글은 질문을 준비할 이유를 설명하되 실제 대화에 따라 질문이 바뀔 수 있다고 남겼습니다. 필요한 준비와 고정된 수행을 구별한 것입니다.

수정 요청도 결과를 향해 써야 한다

“전문적이고 풍부하게 다듬어 줘”는 분위기 요청입니다. 어느 독자가 무엇을 할지 빠져 있어서 AI가 용어와 수식어를 늘려도 요구를 만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안에서 막힌 지점과 남길 행동을 함께 적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번 자료에 맞춘 재사용용 수정 의뢰입니다. 실제 초안과 원자료를 함께 줄 때 쓸 작성 예이며, 앞선 작업 대화의 원문이나 한 번에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공식 명령은 아닙니다.

\$seo-series-writer

선택한 원자료와 초안을 읽고, 첫 모임 참여자의 개인 준비 설명을 보강해 줘.

책·메모·질문 두 개를 각각 언제, 왜 쓰는지 풀어 줘.

메모에는 짧은 단서 예시를 넣고, 평가가 들어간 질문을 고치는 이유를 보여 줘.

각자가 고른 책이라는 가상 조건을 유지하고 실제 참가 조건은 공지 확인으로 나눠 줘.

실제 일정·주소·참가비·신청 링크·운영 경험은 만들지 마.

8명·60분은 가상이라는 표시를 남기고, 새 연재나 외부 발행은 하지 마.

원자료에 없는 필수 정보가 필요하면 해당 부분을 보류하고 질문해 줘.

이 실습은 기존 [seo-series-writer](#) 지침을 읽고 글 한 편을 작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원고가 이번 자료와 질문을 풀도록 범위를 한 편으로 제한했습니다. 스킴 이름보다 입력의 구체성이 먼저입니다. 다른 자료와 질문, 작성 범위를 넘기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같은 문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요청한 뒤에는 처음 정한 질문으로 결과를 읽습니다. 메모 예시가 정말 있는지, 질문의 수정 이유가 설명됐는지, 없는 참가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완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행동이 생겼고 불필요한 사실은 늘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설명 글이 참가 안내처럼 변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 신청해 보세요”라는 끝맺음이 자연스러워 보여 날짜와 신청 링크까지 붙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원자료에는 실제 행사 일정이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채우는 수정은 보류합니다. 글에는 ‘실제 모임 공지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라는 다음 행동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정보를 숨기지 않아도 준비 방법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총시간이 없는 입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검사 코드가 필수 시간을 찾지 못하자 멈췄고 정상 자료로 재시험했습니다. 원자료 충돌 시험에서는 6명과 8명을 평균 내지 않고 가상 수정 조건인 8명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해당 입력을 검사한 실제 로컬 시험이지 AI가 모든 누락과 충돌을 알아내는 증명이 아닙니다. 설명을 보강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와, 검사 코드가 특정 필드의 부재를 찾는 일을 구별합니다.

사람은 글의 대상, 자료 선택, 허용하는 예시와 공개 범위를 결정합니다. AI에게 문장 작성을 맡겼다는 이유로 원자료의 운영 규칙이나 실제 참가 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계정 로그인이나 공개 발행도 별도입니다. 이 책의 글은 로컬 파일로 작성하고 검토했으며 실제 플랫폼에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완성 글과 수정 기록을 함께 남긴다

실습의 첫 완성 글은 제목과 표·메타정보를 빼고 공백을 제외한 본문이 3,361자였습니다. 이는 인원 변경 전 [blog-final-v2.md](#)를 정해진 규칙으로 센 결과입니다. 현재 선택 글 [blog-final-v3.md](#)는 가상 인원을 8명으로 바꾼 파일입니다. 다른 준비 도구에서 계산한 수치를 같은 글자 수로 섞지 않습니다. 공백과 제목, 표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량을 늘리기 전에 준비물에서 실제 대화까지 한 번 이어 읽어 보세요. 중간에 독자가 고를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찾는 편이 글자 수만 맞추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책의 한 대목을 고르고, 들으며 생각의 단서를 적고,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말하지 않을 선택과 실제 참가 조건까지 확인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독자 반응을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원고에서 확인한 연결입니다.

완성 글의 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책 한 권과 메모 도구, 질문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는 실제 모임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예시의 8명과 60분은 내 모임의 정답이 아니라 연습할 때 맞춰 본 조건입니다.

끝맺음은 새 주장으로 분위기를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행동을 독자의 실제 조건으로 돌려놓는 곳입니다. 질문 두 개를 준비했어도 지정 도서와 완독 조건이 다르면 준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있어야 가상 규칙을 실제 참가 조건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번 장의 작업물은 실제 초안과 선택 글에 더해, 아래처럼 이유를 적은 수정 기록입니다. 글 전체를 매번 새로 쓰는 대신 어디서 설명을 보강했는지 남깁니다. 이 기록은 모임에서 실제 사람이 취한 행동을 관찰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설명 수정 기록 — 문장사이 가상 실습

입력: blog-draft-v1.md와 선택 원자료 source-packet-v2.md

선택 글: blog-final-v3.md; 가상 8명·60분 조건

고친 문단: 메모 도구의 사용 설명

초안: 메모 도구는 듣다가 생긴 생각을 남기는 데 씀

빠진 판단: 긴 받아쓰기와 자기 생각의 짧은 단서는 어떻게 다른가

보강한 이유: 첫 대화를 따라가며 자기 질문을 준비하는 상황

보강한 장면: ‘왜 그 선택?’, ‘내가 떠올린 다른 장면’ 같은 단서

수정 뒤 글이 안내하는 행동: 짧게 적고 다음 질문에 연결

예외: 긴 기록이 필요한 강의·합의문에는 같은 방식 일반화 안 함

추가하지 않은 사실: 실제 일정·주소·참가비·운영 경험·성과

확정한 범위: 실제 두 원고의 의미와 안내 행동을 대조

다음 검토: 가상 조건·숫자·조건문·말투를 최종 확인

자신의 초안에서는 읽고도 행동을 고르기 어려운 문단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수정 목적을 ‘더 풍부하게’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가능하게 할지’로 적어 보세요. 자료가 필요한 빈칸과 설명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빈칸을 나누어야 없는 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05-revision-record-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설명 수정 기록 — 시작 기록

독자가 막힌 문장:

이유와 한 장면:

사실 / 설명용 가상 예:

수정 결과와 다음 검토:

완성 원고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이제 모든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상 인원과 시간, 참가 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근거보다 강한 표현을 줄입니다. 이 장에서 만든 구체적인 장면을 살리면서, 그 장면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 말투를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06. 사실과 말투를 고쳐 글을 완성한다

글을 다듬고 나면 처음보다 읽기 편해집니다. 메모에는 무엇을 적을지, 질문은 어떻게 고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 아직 ‘6명’이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앞에서는 여덟 명이라고 읽은 독자가 끝에서 다른 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과 글의 조건이 맞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번 실습의 실제 글은 인원 변경 전 파일과 변경 후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첫 완성 글의 가상 인원은 6명이었고, 선택한 원자료에서 8명으로 바꾼 뒤 글의 해당 표현도 고쳤습니다. 현재 선택 글은 [blog-final-v3.md](#)입니다. 이 장에서는 두 파일의 실제 차이와 원자료를 대조해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 줍니다. 가상 모임을 현실에서 운영하거나 참가자의 반응을 시험한 결과는 아닙니다.

앞 장은 독자가 행동을 고를 수 있도록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이제는 그 설명을 살리면서 **확인한 조건보다 강하게 말하지 않는 글**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장부터는 문단에 필요한 그림을 고르므로, 여기서 글의 기준을 먼저 정해야 그림과 영상이 다른 내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과 문장 다듬기는 순서를 나눈다

사실을 확인하는 읽기에서는 문장이 아름다운지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 문장이 어느 자료의 무엇을 말하는지 찾습니다. ‘8명이 60분 동안 모인다’는 말은 선택한 가상 원자료에 있습니다. ‘이 방식이 대화를 가장 잘 이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둘을 같은 수준의 사실처럼 다듬으면 안 됩니다.

문장 다듬기는 확인한 내용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일입니다. 숫자가 맞다는 이유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최적화합니다” 같은 표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흐려지면 말투를 고친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내용의 범위를 고정하고 그다음 문장을 편하게 읽히도록 고칩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원자료에 없는 말을 매끄럽게 만들어 확인할 주장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맞는 조건문을 긴 문장이라는 이유로 지워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 모임이 완독을 요구한다면 그 조건이 우선’이라는 문장은 적용 범위를 나눕니다. 더 간결하게 쓰더라도 이 갈림길은 남겨야 합니다.

초안을 한 번에 읽으면서 모든 것을 고치려 하면 숫자, 조건, 어미를 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자료와 대응하는 문장에 표시를 합니다. 다음 읽기에서는 표시한 범위를 유지하면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첫 문단부터 끝까지 이어 읽어 같은 독자를 돕는지 살펴봅니다. 단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건을 먼저, 표현은 그다음

저자의 편집 방법 · 제품 자동 검수 기능 아님

1. 내용 확인

원자료의 숫자 · 조건 · 가정과 대조



2. 말투 정리

누가 무엇을 하는지 쉬운 말로



3. 이어 읽기

같은 독자의 질문을 끝까지 푸는가

문장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생략하지 않음

그림 06-01. 이 장의 검토 순서. 저자가 제안하는 편집 방법이며 제품의 자동 검수 기능이나 실제 독자 반응의 측정 절차가 아니다.

SI에게도 한 번에 ‘최종 검수’를 맡기는 대신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원자료와 글을 함께 주고 인원 · 시간 · 조건의 대응을 찾아 달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사람이 대조한 뒤, 맞는 조건은 바꾸지 말고 어려운 문장을 고치도록 요청합니다. 사실 검수 요청을 했다고 모든 문장에 근거가 생기거나 사람의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숫자는 하나씩 맞고 서로도 맞아야 한다

실제 글의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바꾸면서 세 군데를 수정했습니다. 가상임을 밝히는 도입, 35분 대화의 설명, 마지막의 조건 확인 문장입니다. 숫자 하나를 처음 발견한 곳에서 바꾸는 것과 그 숫자가 쓰인 모든 곳을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표와 캡션, 끝맺음처럼 본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읽습니다.

실제 글에서 인원을 고친 세 곳

이전 글 v2와 선택 글 v3 대조 · 운영 조건은 가상

선택 원자료: 8명 · 총 60분 유지

도입의 가상 조건

→ 6명 → 8명

35분 대화 설명

→ 6명 → 8명

마지막 조건 확인

→ 6명 → 8명

질문 두 개와 10/35/15분은 바꾸지 않음

그림 06-02. 실제 [blog-final-v2.md](#)와 v3을 대조해 찾은 인원 변경 세 곳. 모든 문장이나 그림을 새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60분과 준비물 조건은 유지했다.

이 글에서 ‘둘’이 모두 인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 두 개는 준비물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화 순서입니다. 숫자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바꾸면

원래 유지할 조건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같은 글자를 찾는 검사는 빠진 위치를 찾는 데 보조로 쓰고, 무엇의 숫자인지는 문맥에서 판단합니다.

시간은 개별 값과 합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선택 원자료는 시작 10분, 이야기 35분, 마무리 15분입니다. 글과 표의 세 값이 같은지 보고, 더해서 총 60분인지 계산합니다. 각 값이 원자료와 맞아도 합계에 70분을 적으면 글 안에서 충돌합니다. 반대로 합계가 60분이라고 맞아도 시간을 임의로 20분씩 바꿨다면 원자료의 조건을 바꾼 것입니다.

확인한 조건	원자료와 실제 선택 글의 대응
가상 인원	v2 원자료 8명, 선택 글의 세 인원 표현 8명
진행 시간	시작 10분, 이야기 35분, 마무리 15분
합계	$10 + 35 + 15 = 60$ 분
준비물	각자 고른 책 한 권, 메모 도구, 질문 두 개
참가 조건	가상 예시는 미완독 참여 허용, 실제 공지 조건은 따로 확인

여기서 ‘v2 원자료’와 ‘v3 글’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파일마다 수정 횟수가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v2라는 번호 자체가 v3보다 오래됐으니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할과 선택 기록으로 파일을 고릅니다. 같은 버전 번호의 파일만 모으는 방식도 실제 조건을 확인하는 일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값을 실제 파일에서 다시 읽고, 세 시간의 합계를 별도 계산했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것은 가상 입력과 선택 글의 해당 범위입니다. 여덟 명과 60분이 현실에서 적절한 운영 조건이라는 실증 결과는 아닙니다. 숫자를 확인한 보고서를 만들 때도 무엇의 대응을 확인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근거는 말의 크기까지 결정한다

숫자 외에도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을 봅니다. ‘문장사이’의 원자료는 한 가지 운영 예시입니다. ‘작은 모임에서는 이렇게 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만들 수 있지만 ‘모든 독서모임의 정답’으로 확대할 근거는 없습니다. 편안한 말투로 쓰더라도 주장의 범위가 커지는 점은 같습니다.

설명용으로 두 가상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질문 두 개면 누구나 대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와 “질문 두 개를 준비하면 첫 말을 꺼낼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입니다. 뒤 문장은 이 글에서 질문을 쓰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앞 문장은 모든 사람의 결과를 장담합니다. 이 가상 비교는 실제 첫 원고에서 해당 과장 문장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검증된’이라는 말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글 파일을 작성했고 숫자와 조건을 대조했습니다. 영상 파일도 실제 만들고 정해진 범위로 검사했습니다. 그렇다고 독서모임의 성공이나 글의 조회수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 파일이 있는지, 설명이 자료와 맞는지, 현실의 성과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제품 기능을 설명하는 글이라면 공식 자료의 역할도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제공자가 어떤 기능을 설명하는지 확인했다고 그 기능을 내가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행했더라도 공식 지원 조건 밖에서 얻은 한 번의 결과를 모든 환경의 동작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습 버전과 현재 공식 문서의 범위가 다르면 그 차이를 남깁니다. 이 장의 독서모임 글에는 제품 요금이나 화면 기능을 새로 넣지 않았으므로 그런 정보를 채워 넣어 검수한 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공식 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도 문장을 다듬는 일과 확인을 나눕니다. 알고 있는 링크를 적었다고 내용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능 주장을 잠시 보류하거나 범위를 줄이고, 확인해야 할 페이지와 항목을 별도 기록합니다. 공식 자료끼리 조건이 다르면 어느 적용 시점과 버전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한쪽을

확정된 사실로 합치지 않습니다.

가상 준비 글의 실제 날짜와 신청 링크는 여전히 없습니다. 독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글로 바꾸라는 요청이 오면 실제 담당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준비 방법 부분을 고칠 수는 있어도 모집 안내의 완료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표시하는 말만 붙여 상상의 날짜를 넣는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쉬운 말은 조건을 지우는 말이 아니다

이번 글은 첫 모임을 앞둔 사람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친절한 설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장을 안심시키는 말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만 남기면 실제 참가 조건이 있는 독자를 잘못 안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지의 완독 조건을 확인하세요”라는 행동과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실제 초안에는 “처음에는 듣기만 해도 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가상 모임을 설명한다는 문맥 안에 있는 문장이지만, 짧게 따로 인용하면 조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글은 조용한 사람에게 차례를 넘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말하지 않는 선택과 참여를 포기하는 것을 같게 단정하지 않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규칙을 모든 모임으로 넓히지 않고 가상의 진행 장면 안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아래는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장에서 새로 작성한 문장입니다. 기존 선택 글의 실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가상 모임에서는 지금 답하지 않고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모임의 진행 방식이 다르면 진행자에게 차례를 넘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쉬운 말에는 주체가 보입니다. ‘진행 방식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보다 누가 무엇을 확인할지가 분명합니다. 중요한 조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이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 가상 모임’과 ‘실제 모임 확인’이라는 두 자리는 남깁니다.

쉬운 문장에도 조건은 남긴다

이 장에서 새로 만든 설명 예 · 실제 오류 기록 아님

어려운 가상 표현

참여 방식의 다양성 존중을 위한 운영 고려



누가 + 무엇을 + 어떤 조건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진행자에게
차례를 넘겨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말투가 쉬워져도 참가 조건을 임의로 바꾸지 않음

실제 원고의 발언 인용 · 독자 선호 측정 아님

그림 06-03. 이 장에서 새로 만든 설명용 문장 비교. 실제 원고의 오류 발견이나 독자의 선호 시험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명사를 이어 붙인 문장도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설명용 가상 문장인 ‘대화 참여 방식의 다양성 존중을 위한 운영 고려가 필요합니다’를 읽으면 뜻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첫 모임 준비자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차례를 넘길 수 있다고 알려 주세요”라고 바꾸면 진행자의 행동이 보입니다. 참가자용 글에 넣는다면 “말하기 어렵다면 진행자에게 차례를 넘겨도 되는지 물어보세요”처럼 독자에게 맞게 다시 바꿉니다.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독자가 바뀌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글의 독자는 개인 준비를 하는 참가자입니다. 진행자 행동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는 있지만, 모든 문단을 운영자의 지시문으로 바꾸면 제목의 약속을 벗어납니다. 첫·중간·끝을 이어 읽는 마지막 검토가 이때 필요합니다.

같은 주의문을 여러 번 붙이는 일도 조정합니다. 가상임을 처음 분명히 밝히고, 실제 참가 조건을 다룰 때 다시 필요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단에서 ‘이것은 가상입니다’를 반복하면 정작 준비 방법을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반복을 줄이는 목적은 경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나 발췌문이 본문 밖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독립해서 읽어도 필요한 표기를 남깁니다.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그대로 둔다

검토 결과가 수정으로만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인원 변경에서는 세 곳을 고치고 준비물과 질문, 10·35·15분의 배분은 유지했습니다. 한 숫자가 바뀌었다고 글 전체를 다시 생성하면 필요한 수정과 무관한 표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꾸지 않는 부분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물론 기존 문장을 유지하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원자료가 바뀌었는데 이전과 같을 것이라는 이유로 검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인원이 달라져도 ‘8명이 같은 시간을 정확히 나눠 가져야 하는 계산표가 아니다’라는 설명은 현재 조건에 맞습니다. 인원별 동일 발언 시간을 새로 계산해 넣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규칙은 원자료에 없기 때문입니다.

글을 검토하다 근거가 없는 문장을 발견하면 그 문장을 삭제할지, 확인을 기다릴지, 범위를 좁힐지 결정합니다. 실제 후기처럼 쓴 가상 경험담은 표시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설명 예로 다시 씁니다. 실제로 확인한 주장인데 표현이 너무 넓으면 적용 상황을 붙입니다. 숫자가 틀리면 원자료와 대조해 값을 고친 뒤 관련 위치를 다시 읽습니다. 모두 같은 ‘문장 다듬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첫 행은 실제 파일 변경이고 나머지 두 행은 이 장의 설명용 편집 예입니다. 실행 기록과 새 설명 예를 한 표에 넣을 때도 독자가 차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의 종류	전후와 그 이유
실제 인원 변경	글의 가상 6명 → 가상 8명. 선택 원자료 변경을 세 위치에 반영
설명용 주장 축소	누구나 잘함 → 첫 말의 출발점. 결과 보장을 준비 목적 설명으로 좁힘
설명용 말투 수정	추상적인 운영 고려 → 누가 차례를 확인할지 쓰기. 행동과 조건을 남김

검토 메모는 독자용 글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문자열 검사 통과’, ‘다음 렌더 대기’ 같은 내부 기록은 제작자가 볼 파일에 둡니다. 공개 글에는 필요한 설명, 가상 표시, 실제 조건 확인 안내가 남습니다. 글을 전달하는 사람이 수정 이유를 알아야 할 때는 별도 기록을 함께 줍니다.

이 책의 로컬 검토는 저자의 최종 원고 승인과 다릅니다. 파일명에 **final**이 있어도 검토한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을 확인했는지 기록을 봅니다. 계정에 올리지 않은 원고는 발행본이 아닙니다. 원고를 저장하고 검토했다는 사실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도 분리합니다.

글과 함께 넘길 검토 기록

이번 장의 작업물은 선택 글과 아래 검토 기록입니다. 원자료, 이전 글, 현재 글을 실제로 대조한 범위를 적었습니다. 가상 모임의 운영 효과를 확인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최종 승인이나 플랫폼 발행도 아직 포함하지 않습니다.

글 검토 기록 — 문장사이 가상 실습

선택 원자료: source-packet-v2.md, 가상 8명·60분

이전 글: blog-final-v2.md, 가상 6명; 대조용 보존

선택 글: blog-final-v3.md

제목: 처음 독서모임, 책 한 권과 질문 두 개로 시작하기

실제 수정: 인원 표현 세 곳을 6명에서 8명으로 변경

유지: 책·메모·질문 두 개, 10/35/15분, 미완독 참여의 가상 조건

다시 계산: $10 + 35 + 15 = 60$ 분

조건 검토: 각자 고른 책, 읽은 범위에서 이야기, 실제 공지가 우선

말투 검토: 평가형 질문 대신 다른 해석을 말할 수 있는 질문

없는 정보: 실제 날짜·주소·참가비·신청 링크·운영 성과

확인한 범위: 실제 파일의 조건·표·문장 대응과 설명 흐름

하지 않은 확인: 실제 참가자 반응, 검색 성과, 행사 효과, 법률 검토

전달 범위: 로컬 원고와 검토 기록; 계정 로그인·외부 발행 안 함

다음 행동: 글의 문단별 역할을 기준으로 필요한 그림을 선택

내 글의 검토 기록에는 무엇을 고쳤는지와 함께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적어 보세요. 미수행을 쓴다고 글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작업자가 어떤 조건으로 이 원고를 써도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정이 없었던 항목도 근거를 읽었다면 유지 이유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06-article-review-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글 검토 기록 — 시작 기록

대조한 자료와 글:

조건·수치·말투의 차이:

고친 이유와 보존한 부분:

확인 범위와 남은 판단:

이제 글에는 제목이 약속한 답과 그 이유, 예외와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아직 그림이 많다는 이유로 좋은 콘텐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완성 글의 문단을 읽고 어느 곳에 어떤 그림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사실과 말투를 맞춘 글이 그림의 역할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3부 이해를 돕는 이미지

보여 줄 것과 정확히 그릴 것

그림의 자리는 문단의 질문에서 찾습니다. 실제 받은 삽화를 요청과 비교하고, 정확한 수치와 순서는 수정 가능한 도해로 만듭니다. 이미지의 원본 크기와 책 속 크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장식으로 채우지 않고 대상·관계·비율 중 무엇을 이해시키는지 적습니다. 삽화의 같은 칸 너비와 소품은 운영 숫자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번 부에서 남길 결과

예쁜 그림보다 필요한 그림을 고른다

이 문단에 그림이 정말 필요할까? 이 질문을 따라 이미지 배치와 장면 의뢰서를 만듭니다.

삽화와 참조 이미지를 만들고 고친다

장면과 구도를 어떻게 구체화할까? 이 질문을 따라 대표·본문 이미지와 캡션을 만듭니다.

복잡한 설명을 인포그래픽과 표로 바꾼다

순서·차이·수치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 이 질문을 따라 도해·비교표·수정 가능한 원본을 만듭니다.

결과의 이름보다 실제로 확인한 범위를 봅니다. 사용할 파일이 없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영향을 받은 판단부터 다시 읽습니다.

07. 예쁜 그림보다 필요한 그림을 고른다

독서모임 글을 읽다가 준비물 문단에서 잠깐 멈춥니다. 책과 메모, 질문 두 개를 챙기라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가방에 넣을 물건일까요, 머릿속에서만 준비할까요? 책상 위에 책 한 권과 메모장, 카드 두 장을 놓은 그림이 있으면 준비할 모습을 떠올리기 쉬워집니다. 같은 자리에 모임방의 따뜻한 풍경을 넣으면 분위기는 좋아져도 이 질문에는 덜 답합니다.

그림을 고르는 첫 기준은 취향보다 **바로 옆 문단에서 독자가 이해할 것**입니다. 이 책의 가상 콘텐츠팀 ‘문장사이’는 같은 색의 그림 네 장을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색이 같아서 한 묶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모임의 분위기, 준비물, 질문과 듣기, 진행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어떤 장면을 만들고 어디에 놓을지 정한 일이 이미지 생성보다 먼저입니다.

앞 장에서는 글의 사실과 말투를 맞췄습니다. 이번 장은 그 글에서 필요한 그림을 골라 장면 의뢰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실제 이미지를 만들고 틀린 부분을 고치는 과정은 08장, 정확한 숫자와 관계를 그리는 방법은 09장에서 다룹니다. 그림의 수를 채우기보다 각 그림이 맡을 일을 찾아갑니다.

글을 덮지 말고 그림의 자리를 찾는다

이미지가 많은 글이 곧 쉬운 글은 아닙니다. 글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문장을 그림 안에 한 번 더 적으면 같은 말을 두 번 읽게 됩니다. 반대로 책을 고르고 메모를 남기는 순서처럼 눈으로 보면 빨리 구분할 관계가 있는데 긴 설명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읽고 남는 질문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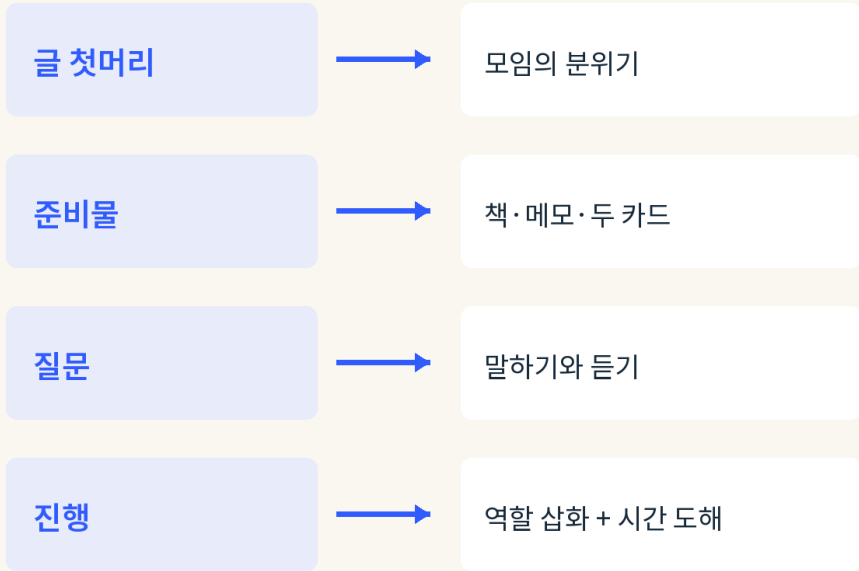
이번 글의 준비물 설명은 ‘물건을 챙기기’에서 ‘대화에 쓰기’로 이어집니다. 책은 함께 바라볼 대상을 마련하고, 메모는 생각의 단서를 남기며, 두 질문은 말을

시작하고 다른 생각을 듣게 합니다. 그림에는 물건을 구별하는 역할을 맡기고, 왜 쓰는지 옆의 문장에 남겼습니다. 이미지 한 장에 준비물 이름과 모든 사용법을 넣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다루는 문단은 다릅니다. 핵심은 책의 모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듣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말풍선을 비워 두어 실제 발언 기록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구체적인 질문의 차이는 본문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같은 책을 그리더라도 설명할 관계가 달라지면 구도도 달라집니다.

문단의 질문이 그림의 역할을 고른다

실제 선택 글과 이미지의 대응 · 모임은 가상



숫자의 길이 비교는 분위기 그림에 맡기지 않음

그림 07-01. 실제 선택 글과 이미지의 역할 대응. 정확한 시간 비교는 별도 도해로 넘긴다. 문단별 연결을 보여 주는 편집 지도이며 실제 행사 기록이 아니다.

그림의 자리를 찾을 때는 문장을 가리고 그림만 보기도 합니다. 준비물 그림을 보고 ‘한 권, 메모 도구, 두 질문’이라는 구성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임에 완독이 필요한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은 실제 공지를 확인하라는 문장에 남깁니다. 그림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까지 대신 읽었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안내가 빠집니다.

반대로 그림을 가리고 글만 읽어 보세요. 이해에 문제가 없다면 그 이미지의 역할이 분위기나 장면 전환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모두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첫머리에서 주제를 알아보게 하는 대표 삽화도 일을 합니다. 다만 본문의 모든 빈 공간을 같은 분위기 그림으로 채우면 역할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넣을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하는 그림은 일단 보류해도 됩니다.

대표 그림과 본문 그림은 다른 일을 한다

대표 그림은 글 전체의 입구입니다. 처음 참여할 독서모임이라는 주제와 편안하게 듣는 분위기를 보여 주면 됩니다. 실제 선택한 대표 삽화에는 여덟 명의 가상 독자가 책을 두고 앉아 있습니다. 글의 가상 인원에 맞춰 수정했지만, 이 그림을 실제 참가자 사진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 그림은 글 전체를 소개하기보다 바로 앞뒤 문단을 돕습니다. 준비물 그림에서는 사람을 없애고 물건 사이의 간격을 남겼습니다. 대화 그림에서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날짜나 장소 표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니다. 진행 그림은 책과 카드, 말풍선, 메모장으로 세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세 그림의 대상과 구도가 다른 이유입니다.

같은 색, 다른 설명을 맡은 네 장

실제 생성 결과의 편집 비교 · 실제 행사 사진 아님

임구: 모임 분위기



본문: 준비물 구별



본문: 질문과 듣기



본문: 세 단계의 역할



역할 삽화의 칸 너비는 시간 배분이 아님

그림 07-02. 실제로 생성한 이미지 네 장의 역할 비교. 인물과 모임은 가상이며 이미지의 칸 너비는 진행 시간을 뜻하지 않는다. 같은 색을 사용하되 같은 장면을 반복하지 않았다.

대표 그림의 모든 요소를 본문 그림에 다시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덟 명을 준비물 그림에도 넣으면 물건이 작아지고 가리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본문 그림이 다루는 질문에는 인원 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의 인원과 그림의 인물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림이 총인원을 표현하는지 특정 설명 장면을 표현하는지 구별하자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질문하는 장면은 가상 여덟 명 중 모든 사람을 보여주는 단체 그림이 아닙니다.

독자에게 그 구별을 알려 주는 것이 캡션입니다. ‘모임 현장’이라고만 쓰면 실제 공간을 촬영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듣기를 표현한 가상 두 독자의 생성 삽화’라고 쓰면 그 그림을 읽는 범위가 보입니다. 캡션을 나중에 장식처럼 붙이지 말고 이미지의 역할을 정할 때 함께 씁니다.

같은 이미지를 글과 영상에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로로 넓게 만든 그림이 세로 화면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잘라 쓰면 메모장이나 질문 카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용할 요소를 의뢰서에 적고, 구체적인 세로 배치와 자막은 영상 장에서 확인합니다.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그림을 처음부터 영상 장면처럼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여 줄 관계에 따라 그림의 종류를 고른다

‘참조 이미지’라는 말은 실제 사실의 증거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제작자가 구도나 색, 대상의 배치를 참고할 이미지라는 뜻으로 씁니다. 준비물 삽화를 다음 수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그림이 실제 행사 준비물을 확인해 주는 원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면을 상상하도록 돕는 데에는 삽화가 어울립니다. 서로 다른 준비물을 한눈에 구별하려면 위에서 본 물건 배치가 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려면 숫자와 길이가 대응하는 도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고르면 다른 행동을 할지 설명하려면 갈림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문단에 남은 질문	이번에 맡길 시각 표현
어떤 자리에서 대화하나?	분위기를 보여 주는 가상 장면 삽화
무엇을 챙기나?	책·메모·두 카드를 구별하는 물건 배치
질문한 뒤 무엇을 하나?	질문과 듣기의 관계를 보여 주는 두 인물 장면
어느 단계가 더 긴가?	확인한 시간에 비례한 도해; 장면 삽화로 대신하지 않음

이 선택은 그림의 품질 순위를 매기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아름다운 삽화도 수치 비교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정확한 표도 처음 모임의 분위기를 전하지는 못합니다. 한 요소에 두 일을 맡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되, 표현 사이의 차이를 흐리지 않습니다.

이번 진행 삽화는 세 칸을 같은 너비로 만들었습니다. 시작·이야기·마무리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자료의 시간은 10·35·15분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세 칸을 ‘60분을 세 구간으로 나눈 시간표’라고 부르면 뜻이 틀립니다. 시간이 필요한 자리에 역할 삽화를 넣는 것만으로 설명을 끝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측정값이 없는 성과 차트는 만들지 않습니다. 문장사이 글을 실제 작성했다고 해서 독자의 준비 시간이나 참가 만족도 수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성과를 보여주는 도형을 넣고 싶다면 무엇을 측정했는지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설명 순서나 선택 관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래프의 모양을 빌려 가상의 성과를 실제 결과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장면 의뢰서는 긴 형용사가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다

‘고급스럽고 따뜻하고 세련되게’라는 요청은 이미지 분위기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물의 무엇을 보여 줄지는 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준비물 요청에서는 물건을 세 묶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글자가 없는 책 한 권, 메모장과 연필, 서로 떨어진 빈 카드 두 장입니다. 물건 사이에 여백을 두고 위에서 바라보는 구도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두 카드는 질문을 종이에 써야 한다는 모임 규칙이 아닙니다. 두 질문을 준비할 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선택입니다. 카드에 문장을 넣지 않은 것은 본문에서 질문 예를 직접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 속 글자가 정확한 질문의 근거가 되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면 의뢰를 선택의 순서로 쓴다

준비물 요청을 읽고 정리한 저자의 방법

질문

무엇을 챙기고 구별할까?



대상

책 한 권 · 메모 · 두 카드



배치

위에서 보기 · 묶음 사이 여백

제외: 추가 책·카드, 손, 글자·상표

캡션과 실제 출력 확인은 별도로 남김

그림 07-03. 준비물 그림의 의뢰를 정리한 저자의 작성 방법. 표현할 정보와 넣지 않을 요소를 먼저 정하고 분위기를 보완한다.

실제 요청에는 다른 책이나 카드를 장식으로 더 넣지 말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준비물을 설명하는 그림에서 네다섯 권의 책이 보이면 ‘책 한 권’이라는 안내를 흐릴 수 있습니다. 인물을 뺀 것도 손이 물건을 가리는 장면이 이번 설명에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외 요소는 멋을 제한하려는 목록이 아니라 설명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장면 의뢰서는 사람의 판단을 남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 인물이나 공간을 참고하려면 그 자료를 사용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실습에는 실존 인물, 출판된 책 표지, 로고를 넣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모르는 이미지를 단순히 ‘

참고용’이라고 부른다고 사용 범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특정 인물이나 장소를 닮게 만드는 요청을 보류하고, 일반적인 가상 장면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제작자가 결정합니다.

의뢰한 내용을 모두 한 번에 만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장에서 실제 결과를 봅니다. 요청서가 정확하다는 이유로 그림 속 물건이나 인원까지 확인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완성 작업물은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요청과 배치 계획입니다.

그림이 없거나 맞지 않으면 자리를 먼저 다시 본다

글 중간에 빈 그림 자리가 있으면 관계없는 이미지를 넣어 마무리하고 싶어집니다.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비물 삽화 파일을 찾지 못했는데 대표 삽화는 열립니다. 대표 그림으로 바꿔 넣으면 파일 부재는 숨길 수 있지만 준비물을 구별하는 역할은 사라집니다. 이는 이번 실습에서 대체 그림을 실제 삽입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판단을 설명하는 가상 비교입니다.

먼저 필요한 파일의 위치와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물 그림이 없다면 해당 자리를 보류하고 텍스트 설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개 일정 때문에 대체가 필요하다면 같은 역할을 맡는 새 그림이나 직접 만든 간단한 도해를 선택합니다. ‘아무 이미지나 있으면 됨’으로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추가 생성이 비용이나 허용 횟수를 넘으면 먼저 승인을 확인합니다.

원자료가 바뀐 경우는 또 다릅니다. 참가 인원만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바뀌면 총인원을 보여주는 대표 그림이 영향을 받습니다. 책·메모·질문 두 개의 준비물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실제 종합 실습에서도 준비물·질문·진행 역할 삽화는 다시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적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경이 설명의 어느 부분에 닿는지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같은 그림을 여러 자리에 쓰는 것도 역할로 판단합니다. 질문 문단과 마지막 요약에 같은 대화 삽화를 반복해야 독자가 이해하는지 살펴봅니다. 반복이 장면

전환에 필요하면 쓸 수 있지만, 새 정보 없이 공간만 채운다면 하나를 덜어냅니다. 그림을 줄이는 일이 글을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림을 찾기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글과 반대로 말하는 경우에는 캡션만 바꿔 덮지 않습니다. 질문 문단의 핵심이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것인데 인물의 표정과 자세가 혼내는 장면처럼 보인다면, 구도나 인물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대화’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실제 보이는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수정·교체·사용 보류 중에서 고릅니다.

네 장의 역할과 한 장의 의뢰를 남긴다

이번 장에서 완성할 작업물은 이미지 배치 계획과 장면 의뢰서입니다. 다음 표는 실제 선택 글과 생성 결과를 대조해 정리한 배치입니다. 모든 문단마다 그림을 새로 넣지 않았고, 수치 설명의 도해는 별도 역할로 남겼습니다.

넣을 자리	선택한 그림과 맡긴 일
글의 입구	대표 삽화 v2; 가상 여덟 명의 모임 분위기
준비물 설명	준비물 삽화 v1; 책·메모·두 질문의 준비 모습
질문 설명	질문과 듣기 삽화 v1;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하고 듣는 관계
진행 설명	세 역할 삽화 v1; 시작·이야기·마무리, 정확한 시간은 별도 도해

아래 의뢰는 실제 준비물 요청을 읽고 한국어 작업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행한 영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한 로그나 다시 생성한 결과가 아닙니다. 필요한 선택을 자기 주제로 옮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장면 의뢰 — 문장사이 가상 준비물

넣을 자리: 준비물 세 가지를 설명하는 문단

독자의 질문: 무엇을 챙기고 어떻게 구별할까?

말길 일: 책·메모 도구·두 질문을 준비할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기

대상: 글자 없는 책 한 권, 메모장과 연필, 빈 카드 두 장

구도: 위에서 내려다본 탁자, 세 묶음 사이 넉넉한 간격

분위기: 밝은 종이 질감, 아이보리 바탕, 코발트·코랄의 절제된 색

넣지 않을 것: 사람 손, 추가 책·카드, 글자·숫자·상표·실제 표지

캡션: 가상 준비물을 표현한 생성 삽화; 실제 행사 사진 아님

검토할 것: 물건 개수, 가려진 부분, 본문과의 역할 대응

공개·비용 결정: 제작자가 확인; 요청만으로 외부 발행·추가 결제 안 함

내 글에서는 먼저 그림을 놓을 문단 하나를 고르세요. 그 그림이 없으면 무엇이 어려운지, 그림으로는 무엇을 설명하지 않을지 함께 적습니다. 요청을 길게 쓰기보다 필요한 대상을 읽는 사람이 같은 장면으로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07-visual-brief-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이미지 배치와 장면 의뢰 — 시작 기록

그림이 답할 문단 질문:

대상·관계·구도:

캡션·대체 설명과 출처:

맞지 않으면 멈출 조건:

좋은 이미지 의뢰는 ‘예쁜 그림을 달라’는 말을 길게 쓰는 일이 아닙니다. 문단에서 필요한 설명을 골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요청으로 실제 만든 삽화와 수정 결과를 열어 보고, 요청과 다르게 나온 요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봅니다.

08. 삽화와 참조 이미지를 만들고 고친다

그림을 의뢰할 때는 머릿속 장면이 분명했습니다. 책 한 권, 메모장, 질문 두 개. 그런데 받은 그림을 열어 보면, 메모장 대신 책이 들려 있거나 꼭 보여야 할 인물이 탁자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색감은 마음에 드는데 설명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AI가 알아서 잘 그렸다’와 ‘전부 다시 만들자’ 사이에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앞 장의 의뢰가 실제 어떤 이미지로 나왔는지 살펴봅니다. 실습에서 이미 생성한 네 삽화와 대표 그림의 수정본을 사용합니다. 다시 생성했다거나 실제 독서모임을 촬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인물·모임 조건은 가상이고, 요청을 보내고 파일을 받아 검토한 과정은 실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청의 길이가 아니라, 결과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차이를 받아들였는지입니다.

한 장의 요청을 눈으로 확인할 조건으로 바꾼다

‘편안한 독서모임’은 여러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넓은 강당에 책을 든 사람이 줄을 서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카페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의 대표 그림에는 작은 공간의 둥근 탁자, 서로 바라보는 성인, 평범한 옷과 책을 요청했습니다. 독자가 모임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되 실제 장소나 특정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한 선택입니다.

처음의 가상 원자료에는 참가자가 여섯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요청에도 ‘정확히 여섯 명’과 ‘인물을 서로 구별할 수 있게’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 두 조건은 다릅니다. 여섯 명을 그렸더라도 뒤쪽 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으면, 인원을 확인하거나 대화 장면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작자는 화면을 열어 머리와 몸의 위치를 연결해 보고, 같은 사람을 두 번 세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의 분위기도 눈으로 확인할 말로 바꿨습니다. 밝은 아이보리 바탕, 잉크색·코발트·절제된 코랄, 종이를 겹친 듯한 질감, 넉넉한 여백을 공통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제품의 스타일 설정 이름이 아니라 이 콘텐츠 묶음에 사용한 제작 방향입니다. ‘고급스럽게’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신, 그림끼리 함께 놓였을 때 맞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준비물 그림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를 요청했습니다. 책·메모 도구·두 질문을 서로 떨어진 세 묶음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두 개는 글자가 없는 카드 두 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카드 자체가 참가 필수 준비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질문 두 개를 생각해 오는 것이며, 카드는 그것을 구별해서 보여 주는 시각적 표현입니다. 이런 차이를 캡션과 본문에 남겨야 그림이 새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요청도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상과 개수는 맞는데 의미가 틀릴 수 있습니다. 서로 질문하는 두 사람을 요청했는데 한 사람이 지시하고 다른 사람이 주눅 든 표정이라면, ‘질문과 듣기’라는 제목을 붙이기 전에 관계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구도·표정·소품을 한꺼번에 완벽하다고 판정하는 대신, 이번 문단이 의지하는 요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받은 파일은 요청과 나란히 놓고 읽는다

실제 질문 삽화 요청에는 한 사람이 열린 책 쪽으로 가볍게 손짓하고, 다른 사람이 작은 메모장을 들고 듣는 장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를 열어 보니 오른쪽 인물이 들고 있는 것은 메모장이 아니라 책으로 보입니다. 빈 말풍선 두 개와 마주 앉은 관계는 나타났지만, 소품 조건 하나는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요청한 소품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 생성 출력 · 인물과 대화 상황은 가상



요청: 작은 메모장 / **결과:** 책으로 보임

선택: 질문과 듣기 설명에만 사용, 준비물 증거 아님

그림 08-01. 실제 생성 결과와 요청의 차이. 가상 인물의 삽화이며, 메모장 조건이 충족됐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이 차이 때문에 그림을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무슨 준비물을 챙기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말하고 듣는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을 메모장 준비의 증거로 옮겨 쓰거나, ‘요청의 모든 조건을 만족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그림이 쓰이는 자리와 연결됩니다. 준비물 설명의 유일한 그림에서 메모장이 빠졌다면 수정 필요성이 더 큼니다. 책 한 권만 가져오면 된다는 잘못된 해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보여 주는 삽화의 주변 소품이 조금 달라졌다면, 핵심 설명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차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숨기는 것과 필요에 맞게 수용하는 것은 다른 행동입니다.

요청에 없는 글자나 상표도 따로 봅니다. 이 실습에서는 실제 책 표지와 로고를 넣지 않도록 요청했고, 선택 이미지에서 눈에 띄는 표지 글자나 상표가 없는지 시각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는 모든 픽셀의 권리나 모든 외부 이미지와의 유사성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 파일의 육안 검토와 사용 범위에 관한 최종 판단을 구분합니다.

파일이 열리는지도 의미 검토와는 별개입니다. 이미지가 존재해도 깨진 파일이면 배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열리는 이미지가 잘못된 인원을 보여 주면 설명에 쓰기 어렵습니다. 실제 실습에서는 파일을 다시 열어 형식과 크기를 확인한 뒤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로 1,536, 세로 1,024픽셀이라는 정보는 파일 규격일 뿐, 책 속에서 작은 글씨가 잘 읽힌다거나 모든 장면이 자연스럽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새로 만들기와 기존 그림 고치기를 구분한다

처음 만들 때에는 장면을 담은 기존 그림이 없습니다. 의뢰서에서 대상·행동·구도·분위기를 정해 결과를 받습니다. 고칠 때에는 이미 선택한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꿀지뿐 아니라 무엇을 유지할지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두 작업을 같은 ‘멋진 그림 만들기’ 요청으로 처리하면, 인원만 바꾸고 싶었는데 방이나 인물 옷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OpenAI의 공식 이미지 생성 안내는 기존 이미지의 편집과 입력 이미지를 참조한 생성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참조 이미지가 있다고 원본의 모든 요소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능 구분만 참고하며, 책의 기본 이미지 도구 실행을 특정 API 호출이나 모델의 성능 시험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

습니다. OpenAI 공식 이미지 생성·편집 안내, 확인일: 2026-10-11.

실제 종합 실습에서는 원자료의 참가 인원이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섯 명을 보여 주는 대표 그림은 더 이상 선택 조건과 맞지 않았습니다. 준비물 세 가지나 질문과 듣기의 관계는 인원 변경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본문 삽화 세 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표 그림만 기존 이미지를 참조해 수정했습니다.

수정 요청에는 두 사람을 추가해 전체 여덟 명으로 만들 것, 기존 여섯 사람의 주요 모습과 밝은 공간·색감을 유지할 것, 인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필요하면 약간 넓게 잡을 것, 더 많은 사람이나 글자를 넣지 말 것을 담았습니다. ‘사람 좀 늘려줘’보다 바꿀 조건과 지킬 조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요청도 결과 확인을 생략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원 변경에 맞춰 대표 그림만 수정

실제 수정 전후 · 원본 전체를 줄여 배치, 잘라내지 않음

최초: 6명



선택: 8명



두 인물 추가 · 주요 모습과 색감 이어짐

탁자·의자 배치도 변화, 나머지 픽셀 동일하다는 뜻 아님

그림 08-02. 원자료 변경에 따른 실제 이미지 수정. 왼쪽은 최초 생성본, 오른쪽은 선택 수정본이다. 두 파일 모두 보존했다.

수정본을 열어 별개의 인물 여덟 명을 세었습니다. 왼쪽에는 붉은 머리 인물이, 오른쪽에는 곱슬머리 인물이 추가됐고, 가운데 여섯 사람의 주요 모습과 종이 질감의 색감이 이어집니다. 탁자와 의자 배치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원본에 사람 두 명만 붙였고 나머지 픽셀은 동일하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유지 여부는 이 장면의 역할과 시각적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지, 바이트나 픽셀 동일성으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수정본을 만든 뒤에는 글 속 인원과 맞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림만 여덟 명으로 바뀌고 캡션이 여섯 명으로 남으면 수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글의 관련 문장과 도입 음성도 인원 변경을 따라 고쳤습니다. 그 연결 전체는 13장에서 다룹니다. 지금은 그림을 고치는 일에도 원자료와 캡션을 함께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집중합니다.

참조 자료는 닮음보다 사용 목적을 먼저 적는다

참조 이미지는 ‘이것을 그대로 복제하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구도를 참조할 수도 있고 색의 비중이나 같은 콘텐츠 묶음의 분위기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적지 않으면 결과가 닮아야 할 부분과 바뀌어도 되는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습의 인원 수정에서 참조한 것은 이미 만든 대표 그림이며, 새로운 실존 인물 사진은 넣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든 제품 사진을 가지고 사용 장면을 설명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실습에서 실행한 사례가 아니라 독자에게 판단 방법을 보여주는 가상 적용입니다. 제품의 색·버튼 위치가 중요한 설명이라면 ‘비슷한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에서 구조가 달라졌다면 원본 사진을 쓰거나, 정확한 부분은 직접 만든 도해로 분리하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보기 좋게 그려 놓고 실제 제품의 작동 모습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모르는 인터넷 사진도 ‘참조용’이라는 이름만으로 사용 범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자료인지,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사적인 공간이 들어 있는지, 도구에 입력해도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해당 입력을 보류하고, 필요한 관계를 일반적인 가상 장면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사람이 결정합니다. 권리 판단을 이미지 품질 평가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 요청이 반복될 때에는 어느 버전이 기준인지 적습니다. 최초 그림, 인원 수 정보, 색감 수정본이 모두 '최종.png'이면 다음 작업에서 틀린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실습은 최초 대표 그림과 선택 수정본을 다른 파일로 남겼습니다.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같은 이름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보존하고 현재 선택과 변경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꿀 것과 지킬 것을 나누어 의뢰

실제 인원 수정에서 추린 저자의 작업 모델

바꿀 것

구별 가능한 성인 2명 추가 → 총 8명



지킬 것

기존 여섯 인물의 주요 모습 + 밝은 공통 색감



확인할 것

실제 인원 · 구별 · 글 · 캡션과 대응

요청을 보냈다고 결과 채택까지 끝난 것은 아님

그림 08-03. 실제 인원 수정에서 추린 의뢰와 검토의 구조. 저자의 작업 모델이며 자동으로 원본을 보존하는 제품 기능은 아니다.

결과를 더 만들기 전에 수정의 이유를 좁힌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을 여러 번 다시 만들다 보면 처음의 설명 목적이 희미해 집니다. 어느 순간 가장 화려한 그림이 선택되고, 왜 그 문단에 필요한지는 뒤로 밀립니다. 수정의 출발점은 취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취향과 설명 문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색이 너무 어둡다’면 책의 밝은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인지, 대상이 안 보이는 문제인지 함께 적습니다.

자료가 부족할 때는 생성으로 빈칸을 메우지 않습니다. 실제 행사 공간을 보여 달라는 요청인데 장소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인 가상 공간의 삽화로 바꿀 수 있는지 먼저 결정합니다. 제작자가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실제 장소의 외관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붙이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보일수록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메모장과 책의 차이는 관계 설명의 자리에서는 기록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 그림의 총 인원은 선택 자료와 맞춰야 했습니다. 이 구분 덕분에 네 장 전부를 다시 생성하지 않고 대표 그림만 수정했습니다. 한 번의 수정으로 모든 그림이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변경 이유를 각 이미지의 역할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추가 생성에는 시간뿐 아니라 이용 한도와 비용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사람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아질 때까지 계속’이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이 책 제작에서는 허용한 호출 안에서 실습 이미지와 표지를 만들었으며, 여기의 비교 그림은 기존 파일을 나란히 배치한 설명용 작업물입니다. 새 이미지 생성 결과로 세지 않습니다. 독자의 환경에서도 추가 실행 전에 사용할 도구와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검토는 원본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로 그림을 책의 세로 페이지에 넣거나 영상에 확대하면 가장자리 인물이 잘릴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 여덟 명을 확인했어도 배치한 화면에서는 여섯 명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의 비교는 원본 전체를 보존해 놓은 배치입니다. PDF·EPUB·영상의 실제 표시 영역에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원본 검토 기록을 모든 형식의 통과 기록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선택 이미지와 캡션을 함께 남긴다

이번 장의 작업물은 네 그림의 선택과 캡션, 한 장의 수정 기록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출력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캡션에는 그림이 알려 주는 것과 알려 주지 않는 것을 짧게 넣습니다. 인원이 보이는 그림도 실제 참가를 증명하는 사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택 이미지	독자에게 붙일 캡션
대표 삽화 수정본	가상 여덟 명이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생성 삽화. 실제 모임 사진이 아니다.
준비물 삽화	책·메모 도구·질문 두 개를 표현한 가상 준비 장면. 두 카드는 질문의 시각적 표현이다.
질문과 듣기 삽화	가상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말하고 듣는 장면. 요청과 달리 듣는 인물은 책을 들고 있다.
세 역할 삽화	시작·이야기·마무리를 나눈 가상 장면. 칸의 너비는 시간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수정 기록은 결과를 평가할 조건과 선택을 연결합니다. 아래는 실제 실행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어 작업물입니다. 도구에 보낸 영어 요청의 원문이나 새 실행 로그는 아닙니다.

대표 그림 수정 기록 — 문장사이 가상 모임

원자료 변경: 참가 인원 6명 → 8명

기존 그림: 최초 대표 삽화; 원본은 별도 보존

바꿀 것: 구별 가능한 가상 성인 두 명 추가, 전체 여덟 명

유지할 것: 가운데 여섯 인물의 주요 모습, 밝은 공간과 공통 색감

허용할 변화: 인물이 보이도록 약간 넓힌 배치

넣지 않을 것: 추가 인원, 글자, 로고, 실존 인물의 정체성

실제 결과: 여덟 인물 확인; 양옆에 두 인물 추가, 공간 배치 일부 변화

선택: 수정본을 대표 그림으로 사용; 픽셀 동일한 보존이라고 표현하지 않음

연결 확인: 선택 글의 인원과 캡션; 도입 음성의 연계 수정은 통합 과정에서 확인

그대로 둔 결과: 준비물·질문·세 역할 삽화; 해당 설명 조건 변화 없음

남은 확인: 각 배포 형식에서 잘림·크기·캡션 표시, 저자의 최종 사용 판단

내 그림을 고칠 때에도 먼저 실제로 보이는 차이를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뭔가 어색함’ 대신 ‘오른쪽 인물이 잘려 총인원을 알 수 없음’이라고 쓰면, 다시 만들지 않고 배치만 고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빈 양식은 그 선택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08-image-revision-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이미지 선택·수정 기록 — 시작 기록

수정할 핵심과 그대로 둘 요소:

실제 출력과 요청의 차이:

선택 파일·캡션·권리:

추가 실행의 권한과 확인:

그림의 완성은 받은 결과를 칭찬하거나 흠을 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설명에 필요한 조건을 대조하고, 다른 점을 드러낸 채 사용할지 고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장면의 분위기가 아니라 순서·비율·차이를 정확히 보여 주어야 할 때, 이미지에서 도해와 표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살펴봅니다.

09. 복잡한 설명을 인포그래픽과 표로 바꾼다

준비물 그림은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책과 메모, 질문 카드가 보이면 됩니다. 하지만 60분 진행을 같은 방식으로 그리자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해도 어느 단계가 긴지, 시간을 더하면 얼마인지, 그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 장은 필요한 그림을 의뢰하고 고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이 장은 이미 정한 설명에서 관계와 수치를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사진처럼 자연스러운 그림이 필요할 때와, 글자·숫자·길이가 정확한 도해가 필요할 때는 제작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정확한 비교를 한 장의 생성 그림에 모두 맡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한눈에 읽도록 배치한 그림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특별한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독자가 비교할 것이 시간인지, 순서인지, 선택지인지 정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모양을 고르면 됩니다. 이 장의 인원·시간은 가상 원자료의 조건이며, 실제 모임의 효과나 참가 만족도를 측정할 자료가 아닙니다.

그림의 모양보다 비교할 질문을 먼저 고른다

실습의 세 역할 삽화에는 책과 카드, 책과 말풍선, 열린 메모장이 왼쪽부터 놓여 있습니다. 시작하고 이야기하고 정리한다는 역할을 떠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 칸은 거의 같은 너비입니다. 이것을 60분 운영의 시간표라고 부르면 세 단계가 각각 20분이라는 해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의 역할을 바꾸면 같은 이미지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역할 그림과 시간 도해는 다른 질문

실제 제작 출력 비교 · 가상 조건과 장면

역할: 시작 → 이야기 → 마무리



시간: 같은 전체를 10:35:15로 나눔

60분을 세 가지 역할로 나누기

가상 모임 8명 · 시작 10분 + 이야기 35분 + 마무리 15분

시작	이야기	마무리
10분	35분	15분

시작: 순서와 책을 고른 이유

이야기: 두 질문으로 서로 다른 생각 듣기

마무리: 기억에 남은 부분과 다음에 바꿀 진행 방식

막대 길이는 예시 시간에 비례합니다. 실제 측정·최적 배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의 칸 너비는 시간 비율을 뜻하지 않음

그림 09-01. 실제 제작한 역할 삽화와 시간 도해의 비교. 내용은 가상이며, 위 그림의 칸 너비는 시간 배분을 뜻하지 않는다.

삽화 속 빈 말풍선은 대화가 오간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말풍선의 크기가 발언 시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 뜻이나 붙일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표현하지 않는지 캡션에 적어야 독자의 해석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독자가 알고 싶은 것	이번 글에서 선택한 표현
처음 모임의 분위기는?	가상 인물의 생성 삽화
어느 단계가 더 긴가?	시간에 비례한 막대 도해
단계별로 무엇을 남기나?	시간·역할을 나눈 표

관계를 먼저 고르면 화려함을 덜어낼 이유도 생깁니다. 세 단계의 순서를 보여주는 그림에 여러 갈래 화살표와 장식 아이콘을 넣으면, 되돌아가는 절차인지 병렬 작업인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화살표는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지, 여러 선택 중 하나를 고르는지, 같은 항목을 비교하는지에 따라 배치합니다.

같은 내용에 그림과 표를 모두 넣을 때는 서로 다른 일을 맡깁니다. 도해로 길이의 차이를 보고, 표로 단계의 목적을 확인하게 합니다. 두 요소가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를 덜어도 됩니다. 독자가 두 군데를 왕복해야 겨우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각 요소는 혼자 보더라도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제목과 단위를 붙입니다.

이번 실습의 생성 삽화에는 책·카드·메모의 역할만 맡겼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편집 가능한 도해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글자와 숫자를 사람이 바로 고칠 수 있는 원본을 남겨 두면, 다음에 60분이 90분으로 바뀌어도 그림 전체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새 배분은 원자료로 정해야 합니다. 전체가 늘었다고 세 구간을 무조건 같은 비율로 늘리는 것은 별도의 운영 결정입니다.

숫자를 그리기 전에 뜻과 전체를 고정한다

선택한 가상 자료에는 시작 10분, 이야기 35분, 마무리 15분이 있습니다. 합계는 60분입니다. 세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할 때는 각 시간을 같은 전체 60분으로 나눕니다. 막대의 전체 길이를 먼저 정하고, 각 구간을 10:35:15 비율로 나누면 이야기 구간이 가장 길어집니다.

실제 도해의 막대는 전체 1,080픽셀로 만들었습니다. 픽셀은 화면에서 길이를 정하는 작은 단위입니다. 60분을 1,080픽셀에 대응시키므로 1분은 18픽셀입니다. 시작은 $10 \times 18 = 180$ 픽셀, 이야기는 $35 \times 18 = 630$ 픽셀, 마무리는 $15 \times 18 = 270$ 픽셀입니다. 세 길이를 더하면 다시 1,080픽셀이 됩니다. 왼쪽 여백은 막대 전체 길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전체와 같은 단위로 계산

실제 시간 도해의 길이 계산을 풀어 그린 설명

전체 60분 ↔ 전체 막대 1080픽셀

1분 ↔ 18픽셀 · $1080 \div 60 = 18$

시작 10분

$10 \times 18 = 180$

이야기 35분

$35 \times 18 = 630$

마무리 15분

$15 \times 18 = 270$



$180 + 630 + 270 = 1080$ 픽셀

참가8명은 인원, 막대 길이를 정하는 시간 값이 아님

그림 09-02. 실제 시간 도해의 계산을 설명하는 새 도해. 수치는 가상 배분에 따른 길이 계산이며 공식 운영 기준이 아니다.

수학을 잘해야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같은 단위의 같은 전체를 나눈다’는 약속입니다. 시작 10분은 전체 시간의 일부이고, 이야기 35분도 같은 전체의 일부입니다. 한쪽은 분, 다른 쪽은 참가 인원이나 만족 점수라면 한 막대의 길이로 나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더하는지부터 분명해야 덧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명은 참가 인원이고 60분은 전체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한 막대에 섞지 않습니다. 참가 인원이 늘어도 시간을 그대로 두는 가상 변경 시험에서는 제목의 인원 표시만 바뀌고, 세 구간의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숫자가 도형 길

이를 결정하는지 알면, 바꿀 부분도 분명해집니다.

그림을 보기 좋게 만든다고 이야기 구간을 다른 구간과 같은 길이로 줄이면 비교의 뜻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 가상 시간을 ‘가장 효과적인 운영 비율’이라고 쓰면 측정하지 않은 성과가 생깁니다.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주장 범위는 함께 지켜야 합니다.

자료 충돌은 그림을 만들기 전에 처리합니다. 다음은 판단을 설명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표에는 10·35·15분이 있는데 소개 문장에는 ‘총 50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시간을 더하면 60분이므로 어느 값이 선택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제목에 맞추려고 마지막 구간을 5분으로 바꾸거나, 합계 문장을 지워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확인한 배분이 없으면 수치 도해는 보류하고 역할 설명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는 숫자 옆에 해야 할 일을 붙인다

막대를 보면 이야기 시간이 길다는 사실은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역할 중심의 표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표는 작은 글씨로 정보를 최대한 밀어 넣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항목을 나란히 읽는 곳입니다.

가상 단계	시간	이 단계에서 남길 것
시작	10분	순서와 책을 고른 이유
이야기	35분	두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마무리	15분	기억에 남은 부분과 다음 변경점
합계	60분	가상 진행 한 번의 예시

8명이 35분을 정확히 나눠 말해야 한다는 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짧게 말하고 누군가는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상 진행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지 판단하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차례를 넘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역할 설명 없이 숫자만 보면 시간표를 발언 할당량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모임이라면 인원·책·참가 조건을 확인한 뒤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 판단을 독자에게 남깁니다. 표의 합계가 맞다는 것은 덧셈이 맞다는 뜻이지 운영의 적합성이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의 한 칸에 설명을 너무 많이 넣고 싶다면 열 제목부터 다시 봅니다. ‘준비·방법·주의·담당·결과’ 여섯 항목을 작은 페이지에 모두 넣으면, 독자는 같은 단계의 내용을 찾느라 시선을 계속 옮깁니다. 이번 표는 단계·시간·남길 것 세 열만 둡니다. 사람에게 차례를 넘기는 이유나 예외는 본문에서 풀어 설명합니다. 표가 설명문을 대체하지 않게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화면이 좁아질 때는 세 열을 억지로 한 줄에 넣지 않습니다. 내용의 줄바꿈을 허용하고, 여전히 어렵다면 단계별 카드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 35분 / 두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한 묶음으로 세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순서와 숫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형식만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재배치하면서 합계나 조건을 빼면 정보도 바뀝니다.

표를 그림 파일로만 저장하는 것도 주의합니다. 화면에서 보기에겐 비슷하지만 독자가 글자를 선택하거나 크게 읽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역할 표는 글자와 표 구조로 남기고, 도해에는 이미지를 못 볼 때 읽을 설명을 붙입니다. 실제 EPUB 리더에서 큰 글자로 잘 이어지는지는 별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런 설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화면 검수를 수행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원본과 읽을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든다

도해에는 두 종류의 파일을 남겼습니다. SVG는 도형과 글자의 위치를 기록하는 형식이고, PNG는 그 결과를 화면의 그림으로 저장한 형식입니다. 독자는 이를 모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을 바꿀 원본’과 ‘현재 넣을 그림’을 함께 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본이 있어도 그림 속 숫자만 따로 고치면 다음 출력에서 옛 내용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기준인지 분명히 합니다.

실제 도해에서는 자료 파일의 세 시간을 읽어 막대 길이를 계산했습니다. 처음부터 매번 눈대중으로 선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코드가 멋져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가 들어오면 같은 길이 계산을 적용하고, 숫자가 바뀌면 관련된 표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도구로 만들어도 전체·단위·표시 값의 대응이 남아 있으면 같은 원리를 쓸 수 있습니다.

도해의 첫 출력에서는 한글이 예상보다 가늘었습니다. 사용한 가변 폰트는 굵기를 바꿀 수 있는 폰트인데, 기본값이 아주 얇은 쪽이었습니다. 원본 파일이 크고 글자가 존재한다는 검사만으로는 이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출력 이미지를 열고 보니 제목과 시간 표시가 약했습니다.

같은 숫자, 더 읽을 수 있는 표시

실제 얇은 시험 출력과 글자 굵기 지정본 비교

시험: 가는 글자

60분을 세 가지 역할로 나누기

가상 모의 8명 · 시작 10분 + 이야기 35분 + 마무리 15분

시작	이야기	마무리
10분	35분	15분

시작: 순서와 책을 고른 이유

이야기: 두 질문으로 서로 다른 생각 듣기

마무리: 기억에 남은 부분과 다음에 바꿀 진행 방식

막대 길이는 예시 시간에 비례합니다. 실제 측정·적용 배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정: 굵기 지정

60분을 세 가지 역할로 나누기

가상 모의 8명 · 시작 10분 + 이야기 35분 + 마무리 15분

시작	이야기	마무리
10분	35분	15분

시작: 순서와 책을 고른 이유

이야기: 두 질문으로 서로 다른 생각 듣기

마무리: 기억에 남은 부분과 다음에 바꿀 진행 방식

막대 길이는 예시 시간에 비례합니다. 실제 측정·적용 배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10 · 35 · 15분과 합계60분은 그대로

책 속 크기에서의 읽기 검수는 원본 검토와 별도

그림 09-03. 실제 출력의 글자 굵기 수정 전후. 시험본을 보존했으며, 새 폰트 다운로드나 기존 책 수정 없이 새 도해의 표시를 고쳤다.

폰트 파일을 새로 내려받거나 기존 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 도해에서 본문과 제목의 굵기를 지정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처음의 얇은 시험 출력도 따로 보존했습니다. 바뀐 것은 정보가 아니라 표시 방법이므로 10·35·15와 합계 60은 그대로입니다.

독자는 사용한 숫자와 변경한 표현을 나누어 기록하면 됩니다. ‘글씨를 두껍게 했다’는 수정이 시간 변경까지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바꿨다면 막대 길이와 숫자, 표의 합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한 부분만 고치고 다른 표시가 남지 않도록 원자료에서 어떤 출력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원본 확대 보기와 책 속 보기의 차이를 확인한다

큰 그림을 열면 작은 글씨도 읽힙니다. 하지만 책의 본문 너비에 맞춰 줄이면 같은 글자가 훨씬 작아집니다. 두 수정본을 비교해 글자 굵기를 확인한 것은 원본의 표시 검토입니다. 최종 PDF·EPUB에서 도해가 읽히는지 확인하는 일은 따로 남습니다. 원본의 크기 검사나 시각 검토 기록을 책 속 가독성 통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고 비교 대상을 말해 봅니다. 다음으로 색 없이도 구간을 구별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이 도해는 색과 함께 ‘시작·이야기·마무리’, ‘10분·35분·15분’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본문에 넣은 크기로 보면서 가장 작은 설명을 읽습니다. 원본 확대 보기만 통과해서는 부족합니다.

세 구간에 파랑·잉크색·코랄을 썼지만 색 이름을 기억해야 내용을 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흑백으로 보아도 단계와 시간을 글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옆 본문에서도 합계와 뜻을 설명합니다. 어느 한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 핵심 비교가 모두 사라지지 않게 배치한 것입니다.

대체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는 그림을 보지 못하거나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뜻을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시간표 이미지”보다 “가상 8명 모임의 60분을 시작 10분, 이야기 35분, 마무리 15분으로 나눔”이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있는 글자를 모두 다시 적기보다 비교의 핵심을 남깁니다.

같은 도해를 영상에 쓸 때에도 전체를 한 번에 작게 넣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60분 전체와 세 구간을 짧게 설명하려면 한 화면에서는 시간, 다른 화면에서는 역할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책 도해를 쪼갠 새 영상을 실제 제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부에서 선택 대본과 실제 장면을 보며 그 판단을 이어갑니다.

도해의 의뢰와 선택 원본을 남긴다

그림을 추가하기 전에 한 문장을 씁니다. “독자가 이 그림으로 무엇을 알게 할 것인가?” 이번 도해의 답은 ‘60분 중 어느 단계가 길고 각 단계가 무엇을 남기는지’입니다. 답이 ‘책이 덜 심심해 보이게’뿐이라면 설명 위치부터 다시 봅니다.

다음은 실제 가상 자료와 도해 출력에 맞춰 작성한 완성 작업물입니다. 역할 표와 비율 막대가 같은 조건을 쓰되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도록 했습니다. 원본의 내용을 변경할 때 먼저 볼 자료도 함께 적었습니다.

가상 진행 도해 의뢰와 선택 기록

독자의 질문: 60분 중 어느 단계가 길고 무엇을 남기나?

기준 자료: 선택한 가상 모임 자료; 참가8명, 전체60분

나눌 값과 단위: 시작10 / 이야기35 / 마무리15, 모두 분

전체 확인: $10+35+15=60$

길이 계산: 전체1080픽셀 → $180 / 630 / 270$ 픽셀

모양: 같은 전체를 나눈 가로 막대, 단계명과 시간을 직접 표시

보조 설명: 표에는 단계별 남길 것을 적음; 발언 할당량 아님

선택 원본: duration-map-v2.svg와 그 제작 자료

사용 그림: duration-map-v2.png; 얇은 시험본은 별도 보존

실제 수정: 시간·비율 유지, 제목과 본문의 글자 굵기 지정

캡션: 가상 배분이며 실제 측정·최적 운영 비율이 아님

대체 설명: 60분을 시작10분, 이야기35분, 마무리15분으로 나눔

충돌 때: 선택 배분 확인 전 수치 도해 보류; 역할 삽화는 범위 명시

남은 확인: 책 속 크기·표 줄바꿈·실제 리더 표시, 저자 최종 판단

자기 주제로 바꿀 때에는 장식부터 복사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질문과 자료가 먼저입니다. 세 선택지를 비교하는 표에 합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계 순서를 보여 주는 도해에는 비율 길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양식의 ‘관계’를 채운 뒤 그 관계를 담을 모양을 고르세요.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09-diagram-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도해·표 의뢰서 — 시작 기록

독자가 비교할 질문:

수치의 뜻·전체·근거:

도형·표·캡션의 역할:

원본·출력과 실제 크기 확인:

좋은 도해는 설명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글로 읽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가상 배분과 실제 결과를 구별하고, 숫자와 표시를 함께 고칠 수 있어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완성 글의 핵심을 고르되 단 순히 짧게 요약하지 않고, 화면과 소리로 전달할 짧은 영상 대본을 만듭니다.

4부 짧지만 이해되는 영상

짧게 말하되 뜻은 남기기

글의 모든 소재목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남길 한 행동을 고르고 제목·그림·자막·목소리에 역할을 나눕니다. 실제 파일을 만든 뒤 무음과 실패를 원인부터 좁힙니다.

작은 코드 시험과 전편 기술 검사, 화면 검토와 청취를 구분합니다. 설치 없이 선택 결과와 실패 이유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부에서 남길 결과

긴 글에서 짧은 영상 대본을 뽑는다

글을 줄이는 것과 영상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이 질문을 따라 30~60초 대본과 장면표를 만듭니다.

장면과 자막, 목소리를 맞춘다

화면과 설명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려면? 이 질문을 따라 세로 장면 설계·자막·음성 선택을 만듭니다.

영상을 실제로 만들고 실패를 고친다

파일이 생겼는데도 왜 완성이 아닐까? 이 질문을 따라 MP4·문제 장면·재렌더 결과를 만듭니다.

결과의 이름보다 실제로 확인한 범위를 봅니다. 사용할 파일이 없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영향을 받은 판단부터 다시 읽습니다.

10. 긴 글에서 짧은 영상 대본을 뽑는다

완성 글을 붙여 넣고 “40초 영상으로 줄여줘”라고 요청하면, 중요한 문장이 빠르게 지나가는 요약물을 얻기 쉽습니다. 책·메모·질문·시간표·예외를 모두 넣었는데 무엇을 따라 해야 하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글에서는 잠깐 멈추고 앞 문단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영상의 설명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짧게 만드는 일과 영상으로 바꾸는 일이 다른 이유입니다.

이 부의 실제 영상은 처음 독서모임에 갈 사람이 준비할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글 전체를 빠르게 읽는 영상이 아니라, 책 한 권과 메모 도구, 질문 두 개를 왜 고르는지 알려 주는 짧은 안내입니다. 모임과 인물은 가상입니다. 대본·장면 자료·합성 음성·MP4를 만들어 검토한 제작 과정은 실제이며, 시청 반응이나 조회수를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글의 모든 소제목을 영상의 장면으로 옮기지 않는다

선택 글에는 준비물뿐 아니라 질문을 좁히는 방법, 60분 진행표, 읽지 못했거나 말문이 막혔을 때의 선택이 있습니다. 소제목마다 한 장면을 만들면 내용은 빠짐없이 들어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각 장면의 이유와 예외를 설명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제목을 읽고 바로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는 안내가 되기 쉽습니다.

첫 질문은 영상이 끝난 뒤 시청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실습의 답은 ‘대화에 쓸 책의 한 부분, 메모 도구, 질문 두 개를 고른다’입니다. 실제 날짜를 찾아 신청하거나 진행자로서 전체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 영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결정을 먼저 하니 10·35·15분의 진행 설명을 넣지 않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예외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책을 다 읽지 않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가상 규칙을 모든 실제 모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본에서는 실제 모임의 책 선택과 참가 조건을 공지에서 확인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줄일 것은 세부 운영 설명이지, 독자가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완성 글 전체를 빠르게 읽지 않는다

실제 선택 대본의 범위 · 시청 반응 시험은 아님

글에 담긴 설명

준비물의 이유
질문을 좁히는 방법
60분 진행표
읽지 못한 상황
실제 조건 확인



영상에서 고른 행동

책의 한 부분 고르기
메모로 단서 남기기
질문 두 개 준비하기
실제 조건 확인

진행 상세는 글에 남김 · 필요한 조건은 삭제하지 않음

그림 10-01. 실제 선택 대본의 설명 범위. 글을 영상에 옮길 때 추린 판단이며 모든 짧은 영상에 적용하는 공식은 아니다.

핵심을 하나로 고른다는 말은 정보 한 조각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메모·질문은 세 항목이지만 ‘첫 모임의 대화 준비’라는 하나의 행동에 연결됩니다. 반대로 준비물 영상 끝에 모임 운영자의 홍보 전략이나 참가 모집 방법을 덧붙이면 서로 다른 과제가 섞입니다. 짧은 영상에서는 항목 수보다 서로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글에서 말을 설명도 분명히 남깁니다. 영상의 질문 예시는 출발점 두 개만 보여 줍니다. 책을 서로 다르게 읽은 상황, 평가가 들어간 질문을 바꾸는 이유, 개인

경험을 말할 범위는 글에서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영상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한다고 약속하지 않아야 선택한 범위와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소리 내어 말할 문장으로 바꾼다

글의 ‘메모 도구’ 문단은 긴 받아쓰기보다 짧은 단서를 남기는 이유와 예시를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둘째, 메모 도구입니다. 들으면서 생긴 생각을 짧게 적으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로 바꿨습니다. 물건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며 생긴 생각을 적는 행동과 다음 질문이라는 결과를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원문 문장의 중간을 잘라 이어 붙인 요약과 다릅니다. 글은 읽는 사람에게 맥락을 쌓고, 영상은 듣는 사람이 한 번에 따라갈 수 있는 말을 골라야 합니다. 한 문장 안에 조건이 세 번 들어가면 듣는 동안 처음 조건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본은 준비 항목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바로 할 행동을 이어 말합니다. 세 장면에 같은 말의 리듬을 써 순서를 찾기 쉽게 했습니다.

도입도 과장된 약속 대신 실제 독자의 질문으로 열었습니다. “첫 독서모임이 고정되나요?” 다음에 가상 여덟 명이 한 시간 동안 만난다는 범위를 알립니다. ‘누구나 반드시 성공하는 모임’이나 ‘이것만 하면 독서 전문가’ 같은 표현은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눈길을 끌기 위해 새로운 성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을 설명하는 대본에는 “다 읽은 척하기보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하나 골라 두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이 실제 완독 조건을 무시하라는 뜻으로 들리지 않도록 화면 자막에는 실제 공지 확인 문장을 함께 두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을 작은 글자에만 숨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뒤의 목소리에서도 참가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긴 목록을 여는 대신, 처음의 행동으로 돌아옵니다. “많이 준비하기보다 대화에 쓸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장은 세 준비물의 공통 목적을 뭉습니다. 이어 AI 합성 음성이라는 표시를 말하고 화면에도 남겼습니다. 합성 음성을 실존 인물의 녹음이나 실제 참가자의 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본은 문법상 자연스러운지 읽는 것과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길이인지 보는 일을 모두 거칩니다. 글자 수만 세면 쉽, 숫자를 읽는 방식, 문장 끝의 여유가 빠집니다. 이 장에서는 말할 내용을 고르고, 다음 장에서 실제 음성 길이와 장면 표시를 맞춥니다. 문장을 적었다고 곧바로 ‘40초에 정확히 맞는 대본’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장면에 한 역할을 주고 화면을 연결한다

실제 선택 대본은 여섯 장면입니다. 첫 장면이 가상 예시와 독자의 걱정을 소개하고, 다음 세 장면이 책·메모·질문을 각각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말하기 어려울 때의 가상 규칙과 실제 조건 확인을, 마지막은 준비의 목적과 합성 음성 표시를 말합니다. ‘세 준비물이니 반드시 세 장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입과 조건, 마무리에도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면은 촬영한 장소가 바뀌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같은 밝은 화면 형식 안에서 제목·그림·설명·자막이 바뀌는 한 묶음을 장면이라고 부릅니다. 준비물 삽화는 책 장면과 메모 장면에 반복 사용했습니다. 그림을 새로 만드는 대신 제목과 말할 내용이 각각 책의 한 부분과 메모의 단서를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여섯 장면은 각각 다른 역할

실제 MP4 추출 화면 · 같은 칸 크기는 시간 비율 아님

01 도입

AI 콘텐츠 제작실 · 가영 실습

준비 03

첫 모임이 걱정되나요?



오늘은 준비를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가상 예시: 0명 · 60분

영상 길이 · 내레이션을 AI 합성 동영상입니다.

Coreline-AI

02 책

AI 콘텐츠 제작실 · 가영 실습

준비 01

책 한 권



설명할 한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원래 조건은 실제 공지를 확인하세요.

영상 길이 · 내레이션을 AI 합성 동영상입니다.

Coreline-AI

03 메모

AI 콘텐츠 제작실 · 가영 실습

준비 03

메모 도구



간 받아쓰기보다 짧은 단서를 남겨요.

문항 전체보다 생각의 단서를 남겨요.

영상 길이 · 내레이션을 AI 합성 동영상입니다.

Coreline-AI

04 질문

AI 콘텐츠 제작실 · 가영 실습

준비 03

질문 두 개



정답을 맞추게 하기보다 생각을 들어요.

다른 선택도 가능했을까요?

영상 길이 · 내레이션을 AI 합성 동영상입니다.

Coreline-AI

05 조건 확인

AI 콘텐츠 제작실 · 가영 실습

가상 모임의 규칙

듣기만 해도 됩니다



가상 규칙을 실제 참가 조건으로 옮기지 않아요.

실제 참가 조건은 별도 공지를 확인해요.

영상 길이 · 내레이션을 AI 합성 동영상입니다.

Coreline-AI

06 마무리

AI 콘텐츠 제작실 · 가영 실습

책 · 메모 · 질문 두 개

대화에 쓸 것을 고르세요



가상 예시 · 실제 날짜·주소·상황 링크 없음

내레이션을 AI 합성 동영상입니다.

영상 길이 · 내레이션을 AI 합성 동영상입니다.

Coreline-AI

장면 순서는 왼쪽→오른쪽, 위→아래 · 내용·인물은 가상

그림 10-02. 실제 선택 영상의 장면 비교. 가상 콘텐츠를 제작한 화면이며, 같은 크기의 칸은 시간 비율이 아니다.

같은 그림을 썼다고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화면은 바뀌어도 목소리가 계속 '준비하세요'만 말하면 독자는 새 행동을 얻지 못합니다. 장

면표에는 보일 것과 말할 것을 함께 적습니다. 화면의 작은 메모장을 가리키고 싶는데 목소리는 인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각자만 보서는 자연스러워도 함께 볼 때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질문 장면에는 빈 말풍선의 가상 두 사람을 놓고, 실제 질문 두 개를 자막으로 표시했습니다. 생성 그림에 정확한 한글 문장을 그려 넣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글자는 수정 가능한 장면 자료에 남겼습니다. 질문을 바꿀 때 삽화는 그대로 두고 문장을 고칠 수 있으며, 그림 속 불분명한 글자를 독자에게 해독하게 하지 않습니다.

표에서 시간을 적을 때도 계획과 결과를 나눕니다. 제작 전 목표는 30~60초의 짧은 안내였고, 실제 선택 음성에 맞춘 장면 길이를 합한 결과는 39.3초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장면을 같은 초로 잘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시간은 선택 결과의 장면 자료를 소수점 한 자리로 표시한 값입니다.

선택 결과의 구간	장면과 말할 역할	사용할 화면
0.0~5.9초	걱정의 출발점, 가상 8명 ·60분	대표 삽화 수정본
5.9~12.2초	책 한 권, 이야기할 부분 고르기	준비물 삽화
12.2~18.4초	메모 도구, 생각의 단서 남 기기	같은 준비물 삽화
18.4~24.6초	질문 두 개, 다른 생각 듣 기	질문과 듣기 삽화
24.6~31.8초	가상 규칙과 실제 참가 조 건 구분	같은 질문 삽화
31.8~39.3초	세 준비물의 목적, 합성 음 성 표시	세 역할 삽화

짧게 줄일 때 빠지면 안 되는 말을 찾아낸다

분량이 넘으면 중요한 말을 더 빨리 읽게 하고 싶어집니다. 속도만 올리면 문장이 남아 있으니 내용은 보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한 문장을 이해하기 전에 다음 장면이 나오면, 읽고 듣는 부담을 결과물 바깥으로 떠넘긴 셈입니다. 먼저 이번 행동과 직접 관련 없는 설명을 덜고,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다시 써 봅니다.

다음은 실제 선택하지 않은 가상의 잘못된 대본입니다. “여덟 명이니까 35분을 똑같이 나눠 말하면 됩니다.” 숫자는 원자료에서 가져왔지만, 같은 시간을 나눠 말한다는 규칙은 원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짧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 실제 영상은 진행표를 설명 범위에서 빼면서 이 할당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상 대본은 “책을 안 읽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가상 모임의 읽은 범위 참여와 실제 참가 자격을 섞었습니다. 이런 문장은 뒤에 작은 ‘예시’ 표시만 붙인다고 안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의 범위를 바꾸고, 실제 공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요약에서 조건을 지우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날짜·주소·신청 링크는 영상 끝의 행동 안내에도 넣지 않습니다. 보통 홍보 영상처럼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 신청하세요’ 버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목적은 연습용 준비 설명입니다. 실제 신청 행동이 필요한 영상은 운영자의 확인된 정보와 공개 허가를 받은 뒤 별도 의뢰로 제작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멈출 상황도 정합니다. 대본에는 여덟 명인데 사용할 대표 그림에는 여섯 명이 남아 있으면, 실제 렌더 전에 기존 파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림이 없다면 관계없는 그림으로 자리를 메우지 않습니다. 실제 실패 시험에서는 누락된 그림을 판별하는 경로를 따로 다뤘습니다. 결과 파일을 만들

기 위한 시험과 사람에게 보일 대본을 선택하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말할 대본과 장면표를 함께 남긴다

다음은 실제 선택 영상에 사용한 목소리 대본 전체입니다. 장면 구분은 의미를 나눈 것이고, 각 문장의 실제 길이는 음성을 만든 뒤 확인했습니다. 화면의 제목·본문·자막은 목소리와 모든 글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읽는 부담과 보충할 조건을 따로 배치했으며 그 관계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선택 목소리 대본 — 문장사이 가상 모임

01 도입

첫 독서모임이 걱정되나요? 이 가상 예시에서는 여덟 명이 한 시간 동안 만납니다.

02 책

첫째, 책 한 권입니다. 다 읽은 책하기보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하나 골라 두세요.

03 메모

둘째, 메모 도구입니다. 들으면서 생긴 생각을 짧게 적으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 집니다.

04 질문

셋째, 질문 두 개입니다. 기억에 남은 부분과 다른 선택을 묻는 질문을 준비해 보세요.

05 조건

말하기 어렵다면 차례를 넘겨도 됩니다. 실제 모임의 책 선택과 참가 조건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06 마무리

책, 메모, 질문 두 개. 많이 준비하기보다 대화에 쓸 것을 고르세요. 내레이션은 AI 합성 음성입니다.

이 대본과 앞의 표가 이번 장의 완성 작업물입니다. 독자가 화면을 보지 않고 목 소리만 들어도 준비할 행동과 실제 조건 확인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반대로 소리를 끈 화면에는 무엇이 남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방식이 완전히 같은 경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범위가 어느 한쪽에서만 사라지지 않도록 읽어 봅니다.

말할 내용, 보일 화면, 실제 길이

이 실습의 대본에서 장면 자료로 넘어가는 흐름

대본의 뜻

준비할 행동 + 가상·실제 조건 구분



화면의 역할

제목·삽화·설명·자막을 함께 배치



실제 표시 시간

음성 길이 확인 후 여섯 장면에 대응

목표30~60초 ≠ 사전 보장 · 선택 결과39.3초

그림 10-03. 이 실습의 대본에서 장면 자료로 넘어가는 작업 구조. 장면 길이를 자동으로 정확히 맞추는 보증이 아니다.

내 글에 적용할 때에는 영상의 마지막 행동을 먼저 쓰고, 그 행동에 필요한 설명을 고르세요. 글의 소제목을 전부 복사한 뒤 각 칸의 글자 수만 줄이는 방식보다, 넣고 남길 범위를 먼저 나누는 편이 수정 이유를 찾기 쉽습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10-video-script-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짧은 영상 대본과 장면 설계 — 시작 기록

영상에 남길 한 행동:

선택 대본과 각 장면 역할:

줄여도 남길 조건:

실제 화면·소리의 다음 확인:

대본이 준비됐어도 제작 결과는 아직 확인해야 한다

장면표를 만들면 영상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실제로 열릴지, 자막이 잘바뀌어도 읽힐지, 음성 사이에 불필요한 쉼이 생길지는 아직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본을 보고 자연스럽게다고 생각한 평가를 영상 전체의 통과 기록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실습의 대본은 여섯 장면의 목소리와 화면에 이어졌고, 최종 선택 결과는 약 39초가 됐습니다. 첫 제작에서는 장면 사이의 침묵이 길었고 이후 실제 음성 처리를 고쳤습니다. 이 실패는 대본의 모든 문장을 삭제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소리의 앞뒤 여유와 배치의 문제를 확인해 수정한 것입니다. 상세 과정은 11~12장에서 이어집니다.

짧은 대본의 목표는 긴 글의 모든 정보를 소리로 압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에서 고른 한 행동을 화면과 말로 따라갈 수 있게 바꾸는 일입니다. 설명 범위를 먼저 정해 두면, 다음 장에서 자막이나 목소리를 조정할 때에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1. 장면과 자막, 목소리를 맞춘다

제목도 좋고 그림도 마음에 듭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문장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함께 재생하면 눈은 아직 그림을 보고 있고, 자막은 다음 설명으로 바뀌며, 목소리는 앞 문장의 조건을 말합니다. 각각 잘 만든 결과가 한 화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많은 움직임을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 장에서 고른 영상의 행동은 첫 모임의 세 가지 준비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행동을 제목·삽화·설명·자막·목소리에 나누어 맡깁니다. 실제 선택 영상의 장면 자료와 화면을 사용합니다. 가상 모임을 설명한 제작 결과이지 실제 참가자를 촬영한 영상은 아닙니다. 목소리는 실습용 AI 합성 음성이며 특정 사람의 음성을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자리를 나누어 설명의 순서를 만든다

실습의 세로 화면은 가로 1,080, 세로 1,920픽셀입니다. 위에는 작은 분류 표시와 큰 제목, 가운데에는 그림, 그 아래에는 행동을 풀어 주는 짧은 설명을 놓았습니다. 자막은 어두운 바탕에 밝은 글자로 분리했고, 아래에는 생성 삽화·합성 음성 표시와 저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크기가 모든 플랫폼의 필수 규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로컬 MP4의 제작 조건입니다.

같은 행동을 향해 화면의 역할 나누기

실제 MP4 화면 옆에 책의 설명을 더한 배치

AI 콘텐츠 제작실 · 가상 실습

첫 독서모임 준비

첫 모임이 걱정되나요?



오늘은 준비물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가상 예시: 8명 · 60분

생성 삽화 · 내레이션은 AI 합성 음성입니다.

Coreline-AI

제목

이번 장면의 질문

삽화

가상 대상과 관계

설명

지금 할 행동

핵심 자막

행동·조건을 차례로

표시

생성·합성의 구분

그림 11-01. 실제 선택 MP4 화면과 역할 설명. 책에서 추가한 설명 배치이며 원래 영상의 화면을 바꾼 것이 아니다.

위아래로 나누었다고 반드시 읽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제목이 두 줄이 될 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림과 겹칠 수 있고, 자막이 길어지면 생성 표시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화면 코드는 제목·그림·설명을 넣을 자리를 정해 두었습니다. 글자가 길어져도 그 자리가 자동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 화면에서 줄바꿈과 겹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로 삽화는 가운데 영역에 전체가 들어오도록 놓았습니다. 대표 그림의 양끝 인물이 중요하므로 화면을 꽉 채우려고 잘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빈 여백이 약간 생겨도 총인원을 확인하는 역할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림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과 필요한 대상을 보이게 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책 장면과 메모 장면은 같은 준비물 그림을 사용합니다. 책 장면의 제목은 ‘책 한 권’, 본문 설명은 ‘설명할 한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입니다. 메모 장면은 ‘메모 도구’와 ‘긴 받아쓰기보다 짧은 단서를 남기세요’로 바꿉니다. 제목이 항목을 찾게 하고 짧은 설명이 행동을 줍히므로,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이번 장면의 초점을 알 수 있습니다.

움직임도 설명보다 앞서지 않게 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는 제목이 처음에 조금 이동하며 나타나고, 아래의 얇은 선이 장면의 진행을 보여 줍니다. 모든 물건이 흔들리거나 말풍선이 계속 튀어나오는 연출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동적인 영상은 나쁘다’는 규칙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준비 행동을 읽는 동안 화면이 계속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목소리와 자막에 같은 글자를 모두 넣지 않는다

목소리 대본을 전부 화면에 넣으면 빠뜨린 문장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큰 제목과 본문, 긴 자막이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 시청자는 어디를 읽어야 할지 고르기 어렵습니다. 이 실습의 자막은 말한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옮긴 전문이 아니라, 핵심 행동과 조건을 남기는 ‘핵심 자막’입니다. 정확한 말의 전문은 앞장의 선택 대본과 실습 자료에 따로 남깁니다.

책 장면의 목소리는 “다 읽은 척하기보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하나 골라 두세요”라고 설명합니다. 첫 자막은 ‘이야기할 부분을 하나 고르세요’이고, 다음 자막은 ‘완독 조건은 실제 공지를 확인하세요’입니다. 첫 문장은 행동을 돕고 두 번째는 실제 참가 조건과 가상 예시를 나눕니다. 목소리와 글자가 모두 같지는 않지만, 서로 반대되는 안내가 되지 않도록 대조했습니다.

질문 장면에서는 실제로 준비할 두 질문을 자막으로 차례로 보여 줍니다.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았나요?’ 뒤에 ‘다른 선택도 가능했을까요?’가 나옵니다. 두 질문을 화면 전체에 동시에 큰 글자로 띄우면 그림과 제목을 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단어 하나만 나타내면 문장의 뜻을 조합하느라 질문을 따라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질문을 한 덩어리로 읽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 자막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한 내용 전부를 제공하는 완전한 자막과 같지 않습니다. 화면만 볼 때 핵심 행동과 조건이 남는 지 보는 것과, 모든 말에 대응하는 자막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과제입니다. 실제 배포 채널에서 전문 자막이 필요하다면 선택 대본을 기준으로 별도의 자막 파일과 표시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실습이 그런 자막까지 제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짧게 고칠 때 의미도 다시 읽습니다. ‘완독 조건 확인’을 ‘완독 불필요’로 바꾸면 보기 쉬워졌을지는 몰라도 다른 안내입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차례를 넘길 수 있다’도 이번 가상 모임의 규칙입니다. 실제 참가 조건을 대신 정하는 문장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자막의 글자 수보다 지켜야 할 조건을 먼저 봅니다.

음성 길이를 확인한 뒤 장면의 시간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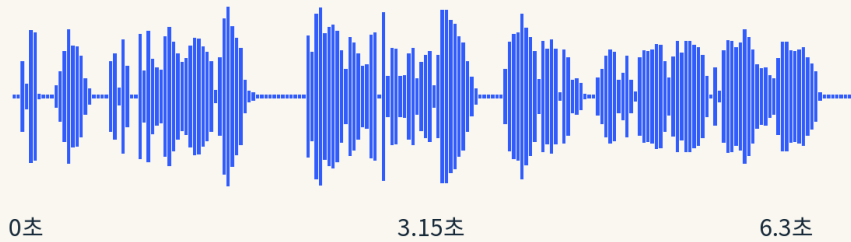
영상 도구에서는 시간을 프레임으로 셉니다. 프레임은 영상의 한 장입니다. 이 실습의 설정은 1초에 30장을 사용하므로 3초는 90프레임입니다. 책 장면의 선택 음성 구간은 189프레임, 즉 6.3초입니다. 전체는 1,179프레임으로 39.3초입니다. 특정 장면의 결과값이지 모든 한국어 문장을 같은 속도로 읽는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 장면 자료에서는 책 장면의 두 자막을 구간의 반씩 나누었습니다. 첫 자막은 장면 시작부터 3.15초 전까지, 두 번째는 3.15초부터 6.3초 전까지입니다. 이 배치는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실습 방법입니다. 합성 음성을 분석해서 단어마다 정확한 경계를 찾은 결과가 아닙니다. 목소리의 어느 단어에서 자막이 바뀌는지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 장면 6.3초, 두 자막은 반씩

실제 음성의 크기 변화와 실제 자막 구간 · 단어 정렬 아님

실제 음성 파일의 크기 변화



이야기할 부분을
하나 고르세요.

완독 조건은 실제
공지를 확인하세요.

189프레임 ÷ 30fps = 6.3초

단순 표시 구간 설계 · 발음 · 의미의 자동 판정 아님

그림 11-02. 실제 음성 파일의 파형과 실제 자막 표시 구간. 파형은 소리 크기의 변화이지 발음 · 의미의 자동 검수 결과가 아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검사만으로 설명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막 두 구간이 장면을 채워도, 시청자가 질문을 다 읽기 전에 다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는 설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장면의 앞과 뒤, 자막이 바뀌는 근처를 실제 화면으로 보고 목소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습의 고정 버전 Remotion 4.0.477 코드에서는 장면의 시작 위치와 지속 프레임 수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현재 공식 Sequence 설명은 이 시간 개념을 설

명하면서 직접 Sequence를 사용하는 방식은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검증한 고정 버전의 작은 예제를 설명하며, 최신 권장 제작법이나 이후 버전의 옵션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0-11.

장면이 짧다면 음성만 빨리 읽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장에 두 가지 행동이 섞였는지 보고, 줄일 설명이나 더 필요한 장면을 판단합니다. 중요한 조건이라면 읽을 시간을 늘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선택 영상의 시간을 바꾸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자가 자기 주제로 옮길 때에는 실제 음성 길이를 새로 확인하고, 변경된 전체 길이와 자막 구간을 함께 기록합니다.

목소리의 선택과 사용 범위를 함께 정한다

이번 실제 합성은 이미 로컬에 준비된 Supertonic 엔진과 캐시 모델의 F1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새 음성 모델을 내려받거나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넣어 장면별 음성 파일을 만들고 그 길이를 읽었습니다. 이는 이 환경에서 수행한 제작 기록이며 다른 컴퓨터에 같은 모델과 권한이 준비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소리를 선택할 때에는 유명인과 얼마나 비슷한지보다 설명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숫자와 준비물 이름이 알아들을 만한지, 문장 끝이 지나치게 급하지 않은지, 가상 규칙과 실제 공지 확인이 구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원고를 예쁘게 읽는 것보다 실제 행동 안내에 가깝습니다. 톤이 친근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을 말하면 같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번 실제 선택	독자가 자기 환경에서 확인할 것
준비된 로컬 합성 음성, 실존 인물 복제 없음	사용할 엔진·음성과 허용 범위
장면별 음성 파일의 실제 길이 사용	새 문장을 만든 뒤의 길이와 발음
화면과 마지막 목소리에 AI 합성 표시	내 결과가 녹음인지 합성인지 알리는 방식

사용한 모델의 공식 OpenRAIL-M 조건은 사용과 모델 재배포에 관한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델 가중치를 독자 자료에 넣지 않으며, 다른 엔진을 선택하면 그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조건을 열어 확인한 것과 독자의 모든 이용 상황을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다릅니다. 확인일: 2026-10-11.

목소리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변경도 있습니다. 인원이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도입 문장만 달라졌습니다. 실제 제작은 도입 음성만 새로 합성하고 나머지 다섯 구간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장면의 행동 문장이 달라지면 그 음성과 자막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림의 색만 조금 고쳤다고 바뀌지 않은 말까지 모두 재합성하지는 않습니다.

화면의 앞뒤와 전편 청취를 다른 확인으로 남긴다

장면 끝의 화면만 보면 모든 글자가 나타난 상태라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등장하는 초반에는 빈 부분이 있거나, 자막이 바뀌는 때에는 설명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선택 영상에서는 장면별 앞·뒤 화면과 매초 추출한 화면을 살폈습니다. 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사람이 하나씩 판정한 검수는 아닙니다. 확인한 범위를 기록해야 지나친 보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의 앞과 뒤를 함께 확인

실제 MP4 추출 화면 · 전편 청취와는 다른 확인

앞: 행동 안내

뒤: 실제 조건 확인

AI 콘텐츠 제작실 · 가상 실습

준비 01

책 한 권



설명할 한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이야기할 부분을 하나 고르세요.

생성 실패 · 내레이션은 AI 합성 음성입니다.

Coreline-AI

AI 콘텐츠 제작실 · 가상 실습

준비 01

책 한 권



설명할 한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원독 조건은 실제 공지를 확인하세요.

생성 실패 · 내레이션은 AI 합성 음성입니다.

Coreline-AI

제목·그림은 이어지고, 아래의 핵심 자막은 바뀜

그림 11-03. 실제 MP4의 같은 장면에서 자막이 달라지는 두 시점. 화면 추출과 사람의 전체 청취는 서로 다른 검사다.

전편을 듣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작은 소리 분석 도구는 한국어 발음이 자연스러운지, 숫자를 알아들었는지 모두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택 MP4는 저자가 끝까지 들은 뒤 ‘발음·속도가 괜찮음’이라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는 해당 파일의 발음과 속도에 대한 확인입니다. 모든 장면의 화면 동기화에 별도로 명시적인 판정을 내렸다거나 최종 출판을 승인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청취 기록을 남길 때에는 파일을 특정합니다. 나중에 도입 음성을 바꾼 다른 영상에 이전 청취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실제 확인한 결과의 파일과 내용을 연결해 두어야 수정 뒤에 어떤 확인이 다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 검수와 청취 검수는 서로 보완하지만 한쪽 기록이 다른 쪽의 수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 장면의 완성 설계와 남은 확인을 적는다

이번 장의 작업물은 책 장면의 실제 화면·자막·음성 설계입니다. 아래 기록은 선택 장면 자료에 근거합니다. 화면의 각 요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와 시간 배치의 한계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다음에 제목만 고칠지, 음성과 시간을 함께 고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책 장면 설계 — 실제 선택 결과

장면: scene-02 / 준비01 / 책 한 권

독자에게 남길 행동: 이야기할 부분 하나를 고르기

그림: 준비물 삽화 전체; 새 생성·잘라 확대 없음

화면 설명: 설명할 한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목소리: 첫째, 책 한 권입니다. 다 읽은 척하기보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하나 골라 두세요.

실제 길이: 189프레임 / 30fps = 6.3초

핵심 자막1: 이야기할 부분을 하나 고르세요. / 0~3.15초

핵심 자막2: 완독 조건은 실제 공지를 확인하세요. / 3.15~6.3초

구간 원리: 장면을 반으로 나눔; 단어별 정밀 동기화 아님

표시: 가상 실습, 생성 삽화, AI 합성 음성

확인한 것: 실제 앞·뒤 추출 화면과 선택 장면 자료

전편 청취: 저자의 해당 파일 발음·속도 확인; 별도 화면동기 판정으로 확대 안함

남길 자료: 목소리 전문, 장면 자료, 음성 파일, 선택 MP4

아래 양식에서는 목소리를 어떻게 꾸밀지보다 각각의 역할을 먼저 채웁니다. 이미지를 보지 않고도 말이 뜻을 전달하는지, 소리를 끄면 중요한 조건이 남는지 읽어 보세요. 어느 한쪽이 모든 설명을 대신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보완할 부분이 더 분명해집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11-scene-design-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장면·자막·목소리 설계 — 시작 기록

제목·그림·말의 역할:

음성 길이와 자막 범위:

가상·합성 표시:

화면·청취의 확인 범위:

장면 설계는 화면을 가득 채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하는 내용과 보이는 내용을 같은 행동으로 연결하고, 실제 길이 안에서 읽고 들을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설계를 실제 MP4로 만든 뒤 발생한 긴 무음과 오류를 따라가며, 파일 생성과 결과 완성이 왜 다른지 살펴봅니다.

12. 영상을 실제로 만들고 실패를 고친다

첫 전편 MP4가 만들어졌을 때 길이는 약 46초였습니다. 세로 화면이 나오고 목소리도 들어 있었으며 목표인 30~60초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뀔 때마다 잠깐 멈춘 듯한 긴 침묵이 나타났습니다. ‘파일 생성 완료’를 ‘영상 완성’으로 읽었다면 놓쳤을 문제입니다.

이 장은 실제 제작에서 발견한 긴 무음, 일부러 잘못된 입력을 넣은 렌더 실패 시험, 정상 재시험을 따라갑니다. 가상 독서모임을 다룬 로컬 실습이며 실제 실행 기록을 사용합니다. 다른 컴퓨터의 설치 성공이나 외부 플랫폼 재생을 시험한 결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는 독자와 직접 다시 만드는 독자의 경로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읽고 살펴보는 경로와 다시 만드는 경로를 나눈다

전자책을 읽는 데 영상 패키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만든 MP4를 열어 대본·장면표·수정 이유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상 파일을 다시 만드는 독자만 별도의 실행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책을 읽기 위해 개발 도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실행에 필요한 준비를 건너뛰게 됩니다.

렌더는 장면 자료와 그림·소리를 실제 영상 파일로 묶는 과정입니다. 이 실습에서는 Remotion으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렌더 명령 설명은 화면 코드의 진입점, 결과 구성의 이름, 저장 위치를 지정하는 역할을 안내합니다. 책에서는 실제 사용한 4.0.477 환경의 제한된 예제를 다루며, 최신 문서의 모든 선택 사항을 그 버전에서 검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0-11.

독자용 작은 예제는 이 책에서 작성한 세로 화면 코드입니다. 제목·그림·설명·자막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범위만 담았습니다. 기존 영상 스킬의 전체 렌더러나 모든 화면 부품을 독자에게 복제해 제공하는 경로가 아닙니다. 실제 제작 초기에는 프로젝트 안에 준비한 원본 기반 경로를 사용했고, 선택 v3 영상은 책에서 작성한 제한된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두 경로를 같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직접 따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기 제작 주체에 맞는 Remotion 4.0.477의 공식 라이선스를 확인합니다. 그 조건은 제작 주체와 이용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제작자가 회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독자의 이용 조건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가 된다는 사실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확인일: 2026-10-11.

예제에는 고정 버전의 패키지 목록과 잠금 파일을 둡니다. 잠금 파일은 여러 부품을 어떤 버전으로 맞췄는지 남기는 기록입니다. 같은 버전을 준비하면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운영체제·브라우저·실행 환경의 모든 차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책의 실행 결과를 모든 독자 환경의 성공 보증으로 읽지 않습니다.

전체 실행 전에 자료와 짧은 결과를 확인한다

실행 전에 그림과 음성의 경로가 실제 파일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장면 자료의 제목과 그림 이름이 맞아도 파일이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원자료의 인원이 여덟 명인데 대표 그림은 최초 여섯 명 파일을 가리키고 있다면, 기술 오류 없이 잘못된 영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일 접근 검사와 내용 검토가 둘 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작은 예제의 실행 준비에서는 코드의 형태를 검사하고, 장면의 구성과 길이를 읽어 보는 단계도 거쳤습니다. 코드 형태 검사에서 통과했다는 것은 글자 크기나 한국어 발음이 자연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프레임의 작은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해당 범위가 실행됐음을 알 수 있지만 전편의 모든 그림과 소리가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각 시험이 확인한 부분만 기록합니다.

아래는 잠금 파일과 자료가 있는 새 실습 폴더에서 직접 재현할 때의 순서입니다. 이 장을 작성하면서 새로 설치하거나 아래 명령을 재실행했다는 로그가 아닙니다. 설치와 렌더용 브라우저 준비는 네트워크·저장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 환경에서 범위와 권한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읽기만 하는 독자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
# 새로 푼 독자 예제 폴더 안에서만 실행
npm ci --ignore-scripts --no-audit --no-fund
npm run typecheck
./node_modules/.bin/remotion browser ensure
npm run render
```

예제의 최초 출력은 [out/reading-circle.mp4](#)입니다. 이전 결과가 있다면 다시 실행하기 전에 별도 버전으로 보존하거나 출력 위치를 바꿉니다. 이름이 같다고 전의 결과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실패한 실행 뒤 남아 있는 이전 MP4를 새 결과로 선택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명령이 끝났는지와 이번 출력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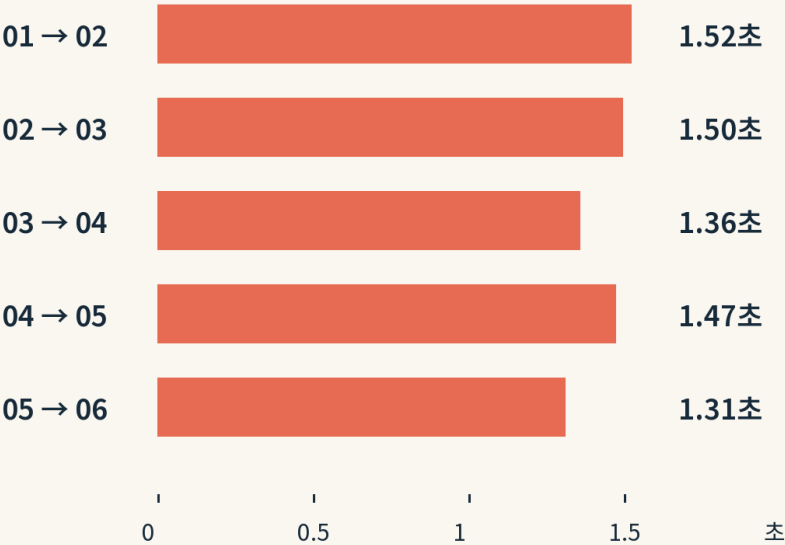
이 독자 경로는 제공된 합성 음성 결과를 사용합니다. 음성 모델 가중치를 함께 넣거나 자동 다운로드하는 코드가 아닙니다. 새 목소리가 필요한 독자는 자신의 권리 있는 녹음이나 조건을 확인한 엔진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영상 예제를 재현하는 설치와 새로운 음성을 만드는 준비를 한 번의 자동 작업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첫 전편의 긴 침묵을 원인부터 좁힌다

첫 전편의 영상 구간은 약 45.87초였습니다. 소리 검사에서는 장면 사이의 1초 이상 무음이 다섯 곳 나타났고, 각각 약 1.31~1.52초였습니다. 장면별 음성의 끝 여백과 다음 음성의 앞 여백이 함께 붙었기 때문입니다. 각 음성 파일만 따로 볼 때보다 전편으로 이어 붙였을 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 전편에서 확인한 장면 사이 무음

실제 검사 기록 · 다섯 구간의 길이를 같은 단위로 비교



설정한 소리 검사 기준의 관측 · 보편적인 실패 기준 아님

그림 12-01. 실제 첫 전편의 검사 기록에서 읽은 무음 길이. 막대는 0에서 같은 단위로 시작하며 실제 참가 반응이나 영상 성과의 측정값이 아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길어서 늘어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삭제하기 전에 침묵이 어디에 있는지 봤습니다. 말하는 중간보다 장면 경계에

반복됐으므로 음성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대본을 모두 새로 쓰거나 목소리 전체를 다시 합성하지 않고, 기존 파일의 앞뒤 여유를 먼저 다듬는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 수정 코드는 소리의 크기를 살펴 말이 나타나는 범위를 찾고, 앞뒤에 짧은 여유를 남겼습니다. 문장 내부를 임의로 잘라 붙이는 방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장면 끝에는 짧은 호흡 여백을 남긴 뒤 영상의 프레임 길이에 맞춰 빈 부분을 채웠습니다. 여백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번 설명에서 불필요하게 길어진 연결만 좁힌 것입니다.

음량도 5dB 올렸지만 소리를 무조건 크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처리 후 최대 크기가 정한 범위를 넘으면 멈추도록 했습니다. dB는 소리 크기의 차이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여기서 5dB는 이번 파일에 적용한 조정값이지 한국어 내레이션의 권장 표준이 아닙니다. 너무 큰 소리의 끝이 잘리는 문제와 원래 발음이 명확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 v2의 영상 구간은 39.2초였고, 같은 범위의 1초 이상 무음이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원을 여덟 명으로 바꾼 v3은 도입 음성을 새로 만들어 39.3초가 됐습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좋은 영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원인과 바꾼 부분을 연결하고, 그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결과	바뀐 것과 검사 범위
v1 약45.87초	장면 사이 긴 무음5곳 확인
v2 39.2초	기존 음성의 앞뒤 여유 조정, 1초 이상 무음 미검출
v3 39.3초	인원 변경에 따라 도입만 새 합성, 전편 다시 검사

무음 미검출은 해당 설정에서 긴 무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침묵이 나쁘거나 모든 소리가 자연스럽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발음·속도는 전편 청

취와 연결하고, 조건을 말할 때 화면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동 검사 결과를 사람의 모든 평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수정 기록의 핵심입니다.

실패한 실행은 이전 선택을 덮어쓰지 않는다

무음 문제와 렌더 오류는 다른 종류의 실패입니다. 무음이 길었던 첫 전편은 파일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내용의 연결에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실패 시험에서는 일부러 지원하지 않는 장면 항목을 넣어 실제 실행이 멈추는지 보았습니다. 이는 자연 발생한 모든 오류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입력 하나를 사용한 범위 한정 시험입니다.

실행은 ‘지원하지 않는 장면 항목’이라는 오류를 내고 종료 코드 1로 끝났습니다. 종료 코드는 실행이 어떤 상태로 끝났는지 알리는 값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오류 종료를 뜻했습니다. 새 후보 MP4를 선택하지 않았고, 직전 후보를 가리키는 기록과 그 내용의 지문이 그대로인지 확인했습니다. 실패가 표시됐다는 것뿐 아니라 현재 결과가 잘못 바뀌지 않았는지도 본 것입니다.

실패 뒤에 현재 선택을 바꾸지 않기

의도적 잘못된 입력의 실제 실행과 정상 재시험

실제 오류 종료1

지원하지 않는 장면 항목 → 새 후보 선택 안 함



이전 후보 유지

선택 기록과 파일의 내용 지문 그대로



정상 입력 재시험

두 프레임 출력 → 전편 수정 결과 별도 확인

작은 재시험 성공 ≠ 전편 내용·소리 검수

범위 한정 시험, 모든 오류에 대한 보증 아님

그림 12-02. 실제 실패·보존·재시험 기록의 관계. 작은 재시험의 성공을 전편 검수의 성공으로 대신하지 않았다.

해시는 파일 내용에서 계산한 지문입니다. 파일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내용이 바뀌면 비교에 사용할 지문이 달라집니다. 이번 실패 시험에서는 이전 후보 기록의 해시가 유지됐는지 대조했습니다. 해시가 같다는 사실은 같은 파일 내용을 가리킨다는 확인이지, 영상의 뜻이나 권리가 맞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정상 입력으로 되돌린 뒤에는 먼저 두 프레임을 실제로 만들어 작은 재시험을 했습니다. 이후 전편의 수정 결과를 검사했습니다. ‘오류가 없어졌으니 완료’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원 항목을 고치는 수정과 음성 여백을 다듬는 수정은 원

인이 다르므로, 각각 필요한 결과를 보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사용 불가 그림도 숨기지 않습니다. 실제 별도의 실패 시험에서는 일부러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파일을 읽게 했고, 파일 부재가 오류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로는 본격 렌더 이전의 확인입니다. 임의의 다른 그림을 넣어 성공처럼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만난 다른 오류가 모두 같은 메시지로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며, 자료의 실제 경로와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는 원리를 보여 줍니다.

기술 검사와 설명 검수를 묶되 섞지 않는다

최종 선택 v3은 1,080×1,920, 30fps, 1,179프레임의 영상입니다. MP4를 간편 디코딩해 파일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했고, 장면별 앞·뒤와 매초 추출 화면을 샅폈습니다. 여기서 디코딩은 저장한 영상 데이터를 화면과 소리로 풀어 읽는 과정입니다. 모든 프레임을 사람이 하나씩 평가하거나 실제 휴대폰과 모든 플랫폼에서 재생한 시험은 아닙니다.

영상 구간은 39.3초지만 파일의 전체 길이 정보는 39.36초로 나타났습니다. 영상과 음성 같은 내용을 함께 담은 파일의 길이 표시와 영상 프레임 수를 나눈 값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항목을 읽은 값이므로 하나를 다른 값으로 고쳐 맞추지 않았습니다. 장면의 실제 구간을 설명할 때는 프레임으로 계산한 39.3초를 씁니다.

선택 v3의 결과와 확인 범위

실제 로컬 가상 콘텐츠 제작 · 공개 · 출판 승인 아님

39.3초 · 1179프레임 · 30fps

1080 × 1920 / 파일 전체 길이 정보 39.36초

파일 읽기

전편 디코딩, 긴 무음 검사

화면 보기

매초 샘플 + 여섯 장면 앞 · 뒤

사람 청취

저자의 해당 파일 발음 · 속도 확인

실제 기기 · 프레임별 시각 · 별도 화면동기 승인은 아님

그림 12-03. 선택 영상의 확인 범위. 실제 기기 · 프레임별 시각 검사 · 화면동기 별도 승인까지 수행한 것으로 넓히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읽을 수 있어도 설명이 다르면 다시 고쳐야 합니다. 대표 그림은 여덟 명인데 음성은 여섯 명이라고 말하거나, 자막이 실제 참가를 보장한다면 파일 검사만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같은 자료를 쓰는 글 · 그림 · 목소리를 다시 대조합니다. 이 교차 확인은 다음 장에서 콘텐츠 묶음의 기준으로 다룹니다.

저자는 선택 MP4를 끝까지 듣고 발음과 속도가 괜찮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답변은 해당 파일의 청취 범위로 남겼습니다. 수정된 다른 영상, 별도의 화면 동기화 판정, 외부 공개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면 영향을 받은 검사

와 사람의 확인도 다시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원인과 재시험을 찾을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긴다

이번 장의 작업물은 실제 무음 수정과 렌더 실패의 기록입니다. 기록은 명령을 길게 복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고, 무엇을 보존했으며, 다음 결과를 왜 선택했는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읽기만 하는 독자도 이 연결을 보면 자신의 제작 요청에서 확인할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 수정 기록 — 가상 콘텐츠 로컬 제작

문제1: 첫 전편 약45.87초, 장면 사이1초 이상 무음5곳

근거: 실제 소리 검사 기록; 약1.31~1.52초

원인: 장면별 음성의 끝 여유와 다음 음성의 앞 여유가 이어짐

수정: 기존 음성 앞뒤 여유 조정, 짧은 호흡 남김, 최대 크기 확인 후 음량 조정

그대로 둔 것: 대본의 뜻과 문장 내부, 첫 결과·음성 원본

재시험: v2 39.2초, 같은 범위의 긴 무음 미검출

추가 변경: 인원6→8, 도입 음성만 새 합성; v3 39.3초

문제2: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장면 항목을 넣은 시험

실제 결과: 오류 종료1; 새 후보 선택 안 함

보존 확인: 직전 후보 기록과 해시 유지

재시험: 정상 입력의 두 프레임 실제 출력, 전편 수정 결과 별도 확인

선택 결과: v3의 기술 검사·샘플 화면 검토, 저자의 해당 파일 발음·속도 청취

미수행 범위: 모든 기기·플랫폼, 프레임별 사람 검사, 화면동기 별도 승인

새 실습 폴더에서 다시 실행할 때에는 그 실행의 입력과 결과를 새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의 성공 기록을 독자의 컴퓨터가 실행했다는 증거로 복사하지 않습

니다. 아래 양식은 자기 실패가 대본, 자료, 화면 코드, 소리 연결 중 어디에 가까운지 좁히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12-video-failure-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영상 실행·수정 기록 — 시작 기록

입력·환경과 실제 출력:

오류와 원인 판단:

수정·재시험과 보존 파일:

검사 범위와 남은 확인:

영상 제작의 마지막은 오류 없이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파일이 이번 설명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실패에서 바꾼 이유와 남은 범위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글·이미지·영상이 각자 완성됐더라도 같은 원자료와 조건을 말하는지 한 묶음으로 대조합니다.

5부 내 제작실로 옮기기

연결하고 보존하고 옮기기

글·이미지·영상의 공통 조건을 대조합니다. 현재 선택 파일을 찾고 변경 영향에 따라 재사용과 재검토를 나눕니다. 자기 주제에서는 예제의 숫자가 아니라 제작 판단을 가져갑니다.

준비를 공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미수행 확인·권리와 공개 결정의 범위를 남기고 사람이 최종 파일을 읽습니다.

이번 부에서 남길 결과

글·이미지·영상을 한 묶음으로 완성한다

세 결과의 사실과 말투가 같은가? 이 질문을 따라 통합 콘텐츠 묶음을 만듭니다.

순서대로 실행하고 멈춘 곳에서 이어간다

무엇을 다시 만들고 무엇을 보존할까? 이 질문을 따라 실행 순서·버전·재개 기록을 만듭니다.

내 주제로 바꾸고 발행 전 확인한다

남의 예제를 내 콘텐츠로 옮기는 기준은? 이 질문을 따라 주제 변환 결과와 발행 전 확인서를 만듭니다.

결과의 이름보다 실제로 확인한 범위를 봅니다. 사용할 파일이 없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영향을 받은 판단부터 다시 읽습니다.

13. 글·이미지·영상을 한 묶음으로 완성한다

내용 불일치를 설명하는 가상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글에서는 여덟 명이 만난다고 말하지만 대표 그림과 영상 목소리에는 여섯 명이 남아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은 잘 열리고 제법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한 독자가 세 결과를 이어 보면 어느 설명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콘텐츠 묶음의 완성은 결과 개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을 때 뜻이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 장의 종합 실습은 가상 원자료를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바꾼 실제 제작 기록을 사용합니다. 실제 행사 운영의 변경 승인이나 참가 경험을 설명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글·그림·목소리에 영향을 따라 반영하고 로컬 준비 자료를 만든 과정입니다. 다음 장의 실행 순서와 재개 방법에 앞서, 이번 묶음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정합니다.

같은 정보와 같은 표현을 구분한다

글·이미지·영상이 같은 내용을 말해야 한다고 해서 같은 문장을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은 준비물을 고르는 이유와 예외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림은 대상과 관계를 보여 주며, 영상은 대화에 쓸 세 가지를 고르는 행동에 집중합니다. 형식별로 말은 일이 다르므로 설명의 길이와 배치도 달라집니다.

반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 원자료의 가상 인원은 여덟 명, 전체 모임 시간은 60분, 진행 예시는 10·35·15분입니다. 준비는 책 한 권·메모 도구·질문 두 개이며, 실제 참가 조건은 별도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날짜·주소·참가비·신청 링크가 없다는 점도 공통입니다. 영상에서 시간표를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총시간을 다른 값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미지는 숫자를 모두 쓰지 않아도 공통 조건과 연결됩니다. 대표 삽화는 전체 인원을 보여 주므로 여덟 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질문 삽화의 두 인물은 전체 참가자 수가 아니라 질문과 듣기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원 변경 뒤에도 두 사람인 채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한 그림인지 알려 주지 않으면 두 그림의 인원이 서로 모순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 기준	이 묶음에서 뜻을 지키는 방식
가상 참가8명	글의 인원 문장, 대표 그림, 영상 도입의 말·자막에서 대응
모임 60분	글과 도해의 전체 시간, 영상 도입의 ‘한 시간’
준비할 세 가지	글은 이유, 그림은 대상, 영상은 선택 행동을 설명
실제 조건 별도 확인	가상 규칙을 실제 참가 자격으로 일반화하지 않음
없는 행사 정보	날짜·주소·신청 링크를 생성해 채우지 않음

묶음의 분위기도 공통 기준으로 봅니다. 글은 평가하지 않고 선택을 돕는 쉬운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림은 밝은 종이 질감과 같은 색 계열, 영상은 같은 그림과 밝은 화면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결과의 색상 값과 문장을 동일하게 만드는 규칙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형식에서 갑자기 강압적인 말이나 실제 행사 사진처럼 보이는 표현이 끼어들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파일의 버전 숫자보다 선택 기준을 읽는다

선택 원자료는 v2인데 글은 v3, 대표 그림은 v2, 본문 삽화는 v1, 영상은 v3입니다. 이를 보고 버전이 맞지 않는다고 전부 v3으로 이름을 바꾸면 오히려 이력이 사라집니다. 파일마다 바꾼 횟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선택했는지와 파일 이름의 끝 숫자가 같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기준, 서로 다른 버전 숫자

실제 선택 파일 목록에서 읽은 관계 · 가상8명 · 60분

선택 원자료 v2

같은 조건에 맞는 결과를 목록과 내용 지문으로 연결

글 v3

인원 문장 세 곳 수정

대표 삽화 v2

가상 여덟 명으로 수정

본문 삽화 v1

세 역할의 조건 유지

영상 v3

도입 수정 + 전편 재검토

버전 숫자를 같게 바꾸는 것과 기준 일치는 다른 일

그림 13-01. 실제 선택 목록의 서로 다른 파일 버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이름의 숫자가 같아야 한다는 규칙은 아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사용할 파일을 명시한 선택 목록을 남겼습니다. 파일 경로와 내용의 지문을 함께 적어 어느 자료와 결과를 묶었는지 대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목록에 39개 파일이 있다고 독자에게 모두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자료 · 글 · 그림 · 대본 · 음성 · 영상 · 작은 실행 예제 · 검토 기록이 서로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는지 찾기 위한 제작 기록입니다.

‘가장 최근 파일’이라는 말만으로는 선택을 고정할 수 없습니다. 실패 시험의 파일이 더 늦게 생길 수도 있고, 첫 결과를 설명하려고 보존한 그림을 다시 열어 수정 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 목록은 파일이 생긴 순서가 아니라 검토 뒤에 고른 결과를 가리킵니다. 새 결과가 실패했다면 이전 선택을 그대로 두고 실패 기록을 따로 남깁니다.

읽을 수 있는 목록도 함께 만듭니다. 사람이 한눈에 볼 때는 ‘어떤 콘텐츠인지, 왜 골랐는지, 어디까지 확인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컴퓨터가 대조할 지문과 사람의 설명은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자동 대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캡션·가상 여부·남은 검토를 숨기지 않습니다.

한 조건의 변경을 영향받은 결과로 따라간다

가상 인원이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바뀌자 먼저 글의 인원 문장을 찾았습니다. 실제 선택 글의 도입과 이야기 구간, 마지막 확인 문장 세 곳을 고쳤습니다. 준비물의 이유나 두 질문의 예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자료의 변화가 설명 전체를 새로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대표 그림은 기존 이미지를 참조해 두 인물을 추가하는 수정본을 만들었습니다. 본문 그림 세 장은 인원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도입 목소리만 새로 합성했고, 다른 다섯 음성 구간은 재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덟 명을 보여 주는 새 대표 그림과 도입 자막도 반영했습니다. 앞 장들에서 따로 본 수정이 여기서 한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인원 변경, 만들 것과 다시 볼 것

실제 6→8 가상 변경의 영향 · 변경 없는 파일도 검토

바뀌 만든 결과

글의 인원 세 문장

대표 그림 한 장

도입 목소리·자막

그대로 쓴 파일

본문 그림 세 장

다른 음성 다섯 구간

10·35·15분 시간 비율

전편은 다시 확인

도입 길이 변화 → 뒤 장면 시작 위치와 공통 조건 검토

그림 13-02. 실제 종합 실습의 변경 영향. 변경 없는 파일의 재사용과 변경된 전편의 재검토를 구분했다.

그대로 둔 파일도 새 기준과 무관한지 읽어 봅니다. 준비물 조건이 바뀌었다면 본문 그림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 도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새로운 가상 조건을 정했다면, 글·준비물 그림·메모 장면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실행한 변경이 아니라 독자에게 영향 판단을 설명하는 가상 비교입니다.

새 영상은 전체를 다시 만들고 검사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음성이 같더라도 도입 길이가 달라지면 뒤 장면의 시작 위치가 이동합니다. 실제 v2는 39.2초, 인

원 수정 v3은 39.3초였습니다. 내용이 같은 구간을 재사용했다고 전편의 시간과 연결 확인까지 생략하지 않습니다. 재생성할 파일과 다시 검토할 결과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은 ‘현재 기준으로 쓸 수 없는 결과’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섯 명 그림은 최초 결과의 설명용으로 보존할 수 있지만 현재 대표 그림으로 고르지는 않습니다. 옛 음성도 비교 자료로 남길 수 있으나 여덟 명을 안내하는 목소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존과 선택을 나누면 옛 자료를 지울 필요 없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스킬에는 완성한 입력을 넘기고 결과를 다시 읽는다

스킬을 이어 쓴다는 것은 모든 도구가 한 문장을 알아서 같은 뜻으로 해석한다고 기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글 작성 도구에는 독자 질문과 자료, 제목 도구에는 본문이 약속할 내용, 영상 도구에는 선택 대본과 장면 자료를 넘깁니다. 각 도구가 필요로 하는 입력이 준비됐는지 사람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작에서는 기존 글·제목·영상 관련 스킬의 작업 규칙을 활용했습니다. 스킬의 내부 구조를 새로 개발하거나 전역 설치하는 일을 독자의 필수 실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독자는 사용할 스킬이 자기 환경에 준비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한 편의 입력과 출력 위치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글 한 편을 요청했는데 기본 시리즈 여러 편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완성 글과 이미지의 플랫폼용 준비에는 기존 [naver-series-workflow](#)의 로컬 준비 경로를 실제 사용했습니다. 선택 글과 네 그림의 자리, 캡션, 검토 자료를 넣어 한 편의 준비 묶음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에서 글·구조·이미지 준비가 갖춰졌다는 로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글을 임시저장·발행한 과정은 아닙니다.

로컬 준비 완료와 공개는 다르다

실제 로컬 prepare 보고의 확인 범위

글 1편 + 이미지 4장

대표1 · 본문3 · 캡션 · 검토 자료 연결

하지 않은 일

계정 로그인 · 실제 화면 입력 · 임시저장 · 발행

로컬 ready는 플랫폼 공식 승인·검색 성과가 아님

그림 13-03. 실제 로컬 준비 보고의 범위. 플랫폼 공식 승인이나 실제 화면 저장 결과가 아니다.

준비 묶음에는 대표 그림 하나와 본문 그림 세 장을 구분해 넣었습니다. 질문 그림의 요청과 다른 소품도 캡션을 실제 모습에 맞춰 남겼습니다. 이미지를 네 개 세었다는 사실만으로 문단에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파일 접근을 확인하고 각 그림의 역할과 대체 설명을 대조한 뒤 넘겼습니다.

이 스킬에서 정한 원고 길이나 이미지 수는 해당 작업 규칙입니다. 플랫폼이 모든 글에 강제하는 공식 의무, 검색 순위나 독자 반응의 보증으로 쓰지 않습니다. 로컬 준비가 통과했다면 그 입력과 결과의 형식이 해당 경로에서 맞았다는 뜻으로 기록합니다. 실제 화면 동작과 공개 여부는 이후 별도 권한과 확인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내용 차이는 사용 위치와 함께 판정한다

같은 그림이 언제나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듣기 삽화에는 두 사람만 보이지만 전체 인원이 두 명이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반대로 대표 그림이 여섯 명인 채로 남으면 여덟 명을 보여 주는 역할과 충돌합니다. 따라서 차이를 찾은 뒤에는 어느 사실을 표현하고 어느 문단에 쓰는지 읽어야 합니다.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실패라고 하거나,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모두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림 속 두 카드는 질문 두 개를 표현합니다. 실제 준비물 조건에 카드 구매가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림의 책도 요청한 메모장 조건을 만족하는 증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세 역할 삽화의 같은 칸 너비는 10·35·15분의 시간 비율이 아닙니다. 캡션은 이런 범위를 보완하지만 그림의 잘못된 핵심 정보를 감추는 수단은 아닙니다.

다음은 판단 방법을 설명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검토 기록이 없는데 글과 그림이 모두 보기 좋다는 이유로 ‘모든 항목 검수 완료’라고 적었다고 해 봅시다. 준비 스킬은 검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칸을 ‘통과’로 채우는 것만으로 내용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파일을 읽고 확인한 위치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사람의 확인이 없는 항목은 그 상태를 드러내고 필요한 결과만 보류합니다.

실제 실습의 내용 검토는 현재 작성 AI의 자체 검토였습니다. 저자의 영상 청취 답변은 별도로 남겼으며 범위는 발음과 속도입니다. 이를 독립 기관 인증이나 모든 자산의 법률 검토 완료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구분해야 묶음을 넘겨받은 사람이 남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묶음과 넘길 범위를 기록한다

이번 장의 작업물은 통합 콘텐츠 목록과 공통 조건 확인입니다. 아래는 실제 선택 결과를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추린 목록입니다. 모든 제작 파일의 목록을 본문에 넣지 않고, 독자가 어떤 결과를 고르면 되는지 찾도록 했습니다. 이름의 버전 숫자는 서로 달라도 모두 같은 가상 조건에 맞춰 선택했습니다.

선택 결과	실제 파일과 말긴 일
기준 자료	source-packet-v2.md; 가상 8명·60분 조건
글	blog-final-v3.md; 준비 이유·질문·진행·예외 설명
대표 그림	lead-reading-circle-v2.png; 가상 여덟 명의 분위기
본문 그림	준비물·질문·세 역할의 v1 세 장; 서로 다른 문단 역할
시간 도해	duration-map-v2.svg/png; 정확한 가상 비율과 수정 원본
대본·장면	script-v2.json과 선택 장면 자료; 뜻·시간·자막 연결
영상	reading-circle-v3.mp4; 약39초 실제 로컬 결과
로컬 글 준비	글 한 편·대표 1·본문 3·검토 기록; 화면 입력·발행 없음

다음 기록은 그 목록을 사용할 때 함께 읽을 의뢰입니다. 직접 재현하는 경로와 결과를 읽는 경로를 구분하고, 넘길 수 없는 원본과 권한도 분명히 합니다. 로컬 제작 완료가 외부 배포나 판매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합 콘텐츠 인수 기록 — 문장사이 가상 실습

목적: 첫 모임 전 대화 준비를 글·이미지·영상으로 설명

공통 조건: 가상 8명, 모임 60분, 책·메모·질문 두 개

없는 정보: 실제 날짜·주소·참가비·신청 링크

현재 선택: 위 목록과 실제 선택 파일의 내용 지문

형식별 범위: 글은 이유·예외, 그림은 대상·관계, 영상은 세 준비 행동

수정 반영: 글의 인원 세 문장, 대표 그림, 도입 목소리·자막

재사용: 본문 그림 3장과 다른 음성 5구간; 새 기준의 영향 확인

다시 확인: 전편 영상의 기술·샘플 화면, 세 결과의 공통 조건

로컬 준비: 한 편의 글과 그림 슬롯·캡션·검토 기록

수행하지 않은 것: 로그인·임시저장·발행·전역 스킴 설치

독자 재현: 책에서 작성한 작은 예제; 원본 전체 렌더러·모델 가중치 제외

남은 결정: 자기 사용 환경·권리·실제 조건·공개 여부를 사람이 확인

내 묶음에서는 먼저 공통 조건 한 줄을 쓰세요. 다음으로 각 형식에 맡기지 않을 설명을 적습니다. 모든 결과가 같은 길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서로 다른 사실이나 새 약속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래 양식은 파일을 압축하기 전에 읽는 내용 확인용입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13-integrated-handoff-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통합 콘텐츠 목록 — 시작 기록

공통 조건과 형식별 역할:

현재 선택 파일과 이유:

변경·재사용·재검토의 범위:

로컬 준비와 남은 공개 결정:

한 묶음으로 완성한다는 것은 글·이미지·영상이 서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자료와 목적을 지키면서 각 형식이 다른 설명을 맡게 하고, 현재 선택을 찾을 수 있게 남기는 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연결을 실제 실행 순서와 재개 지점으로 바꾸어, 작업이 멈춰도 무엇을 이어가고 무엇을 보존할지 정합니다.

14. 순서대로 실행하고 멈춘 곳에서 이어간다

어제는 글을 고쳤고 오늘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영상까지 만들려다가 작업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글을 기준으로 그림을 골랐는지, 지금 대본이 수정 전인지 후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불안하니 전부 다시 만들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결과가 더 낫다는 보장은 없고 이미 확인한 부분까지 달라집니다.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화의 모든 문장을 기억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사용할 자료와 결과, 실제로 마친 확인, 다음 행동을 찾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장은 문장사이 가상 콘텐츠의 실제 로컬 시험을 바탕으로 실행 순서와 재개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 AI가 모든 일을 자동으로 이어 준다는 제품 기능이나 완전한 자동 발행 시스템을 소개하는 장은 아닙니다.

먼저 끝낼 것과 나중에 가능한 것을 나눈다

글·이미지·영상을 만드는 순서는 파일 종류의 순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뒤의 판단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합니다. 독자와 질문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목을 수십 개 뽑아도 무엇을 고를지 알기 어렵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없는데 그림부터 만들면 장면을 본문에 억지로 끼워 넣게 됩니다. 대본을 고르지 않았는데 목소리를 합성하면 수정할 때마다 소리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실습의 출발점은 독자 질문과 가상 자료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제목과 글을 만들고, 글에서 시각적으로 설명할 역할을 골랐습니다. 영상은 완성 글의 모든 문장을 옮기는 대신 준비 행동 한 가지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선택 대본을 장면과 연결한 다음 목소리 길이와 자막을 조정했습니다. 각 단계가 끝났다는 말은 파일을 만들었다는 뜻에 더해 다음 단계의 판단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글의 인원이 여섯 명인지 여덟 명인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전체 인물을 보여 주는 대표 그림은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인원과 무관한 준비물 설명을 읽고 장면 의뢰서를 정리하는 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멈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한 문제 때문에 모든 작업을 포기하거나, 문제를 숨긴 채 전부 진행하는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단에 필요한 결과부터

이 책 실습의 제작 순서 · 자동 제품 기능 아님

독자 질문과 자료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만들지 않을까?



글과 시각 역할

설명할 이유를 읽고 필요한 장면을 고른다



대본 → 장면·음성·자막

선택한 말의 길이와 화면 역할을 맞춘다



묶음과 확인 기록

같은 조건인지 보고 현재 선택을 남긴다

충돌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다음 작업을 멈춤

그림 14-01. 이 책 실습의 제작 순서. 저자의 작업 모델이며 도구가 자동으로 보장하는 기능은 아니다.

일정이 급하다고 이런 판단을 없애면 나중에 더 큰 작업이 생깁니다. 핵심 질문이 바뀌면 제목·본문·그림·대본의 역할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 단계에서 오래 고민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 넘길 최소 기준을 짧게 써 두자는 뜻입니다. 자료가 충분한지, 현재 선택은 무엇인지, 해결되지 않은 조건은 어

느 설명에 영향을 주는지가 그 기준입니다.

완료 기록에는 확인의 범위를 함께 적는다

‘이미지 완료’라는 메모만 보면 누군가는 파일 저장까지 끝났다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은 권리와 본문 배치까지 승인됐다고 이해합니다. 그 차이는 마지막에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미지 파일 열기, 실제 모습의 자체 검토, 문단 역할 확인을 구분했습니다. 질문 그림의 소품이 요청과 다르게 나온 점도 기록했습니다. 파일이 정상이라고 요청을 완전히 만족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두 프레임 시험은 화면 코드가 정상 입력을 받아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은 시험입니다. 전편 영상의 장면 연결과 소리를 끝까지 살핀 결과는 아닙니다. 실제 전편 제작 후의 기술 검사, 샘플 화면 검토, 저자의 발음·속도 청취 답변은 서로 다른 범위입니다. 하나를 마쳤다고 나머지 기록까지 통과로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 작업에 쓸 결과를 고른 뒤에는 그 결과와 연결된 확인 기록을 남깁니다. 사람에게서는 무엇을 왜 골랐는지가 필요하고, 파일 대조에는 내용의 지문이 도움이 됩니다. 파일 지문은 내용에서 계산한 긴 문자열입니다. 내용이 달라지면 대조할 값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값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확인했던 바로 그 파일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일 이름과 수정 시각만으로 이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름을 유지한 채 안의 숫자를 바꿀 수 있고, 파일을 복사하면서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 지문이 같으면 기록된 바이트가 같다는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올바른지, 독자가 쉽게 이해하는지, 권리를 확보했는지는 별도로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완료 기록은 다음 사람이 작업할 때 필요한 만큼만 구체적이면 됩니다. ‘현재 글은 가상 여덟 명 조건으로 읽었고 대표 그림도 그 조건에 맞춰 선택했다. 질문 삽

화는 관계를 보여 주는 용도다. 다음에는 도입 목소리와 전편 연결을 확인한다'라는 메모가 '전체 완료'보다 도움이 됩니다. 짧은 상태표를 남기더라도 무엇을 확인했는지 설명하는 한 문장을 함께 적으세요.

같은 파일이면 보존하고, 달라졌으면 영향부터 본다

이번 제작에는 같은 선택 목록으로 재개하는 실제 로컬 대조 시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택 목록의 39개 파일을 하나씩 찾아 내용 지문을 비교했습니다. 원자료·글·그림·대본·음성·영상과 작은 실행 예제, 준비 기록이 모두 기록값과 같았습니다. 결과는 변경 없는 파일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계획으로 남겼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미지 생성은 0회, 목소리 생성은 0회, 영상 렌더는 0회였습니다. 확인한 결과를 보존하고 다음 작업을 정리한 것이지, 새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외부 발행도 없었습니다. 해당 파일 목록의 대조 시험이며 어떤 도구에나 적용되는 자동 재개 능력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변경 없으면 새로 만들지 않는다

실제 선택 파일 대조 시험 · 새 실행 성과 아님

39개 파일의 내용 지문 일치

기록된 바로 그 파일인가를 대조

이미지 생성

0회

음성 생성

0회

영상 렌더

0회

확인한 결과 보존 → 다음 미완료 작업으로

파일 대조 ≠ 내용·권리 자동 승인

그림 14-02. 실제 변경 없는 입력의 재개 계획 시험. 39개는 이 실습의 선택 파일 수이며 효율 지표나 일반 성능 수치가 아니다.

반대로 파일이 달라졌다면 모든 결과를 버리지도, 그대로 통과시키지도 않습니다. 달라진 자료가 어떤 판단에 쓰였는지를 찾습니다. 가상 인원이 바뀌었을 때 글의 인원 문장과 대표 그림, 영상 도입이 영향을 받은 이유를 앞 장에서 보았습니다. 인원과 무관한 그림과 음성은 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재사용했습니다. 재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기록으로 남겨야 다음 재개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존은 새 결과를 만들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선택한 결과를 검토하지 않은 새 결과로 교체하지 않는 적극적인 결정입니다. 더 늦게

생겼다는 이유로 새 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수정 목적을 만족했는지 확인한 뒤 선택 목록을 바꿉니다. 실패한 시험 파일은 기록으로 남기되 현재 사용할 결과와 섞지 않습니다.

멈춘 지점을 성공한 것처럼 넘기지 않는다

중간 결과를 이어 쓸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별도의 가상 시험 파일을 실제로 변경했습니다. 그 파일을 확인했던 옛 내용 지문과 현재 값이 달라지자 로컬 검사에서 **Checkpoint source hash changed** 오류가 났습니다. 이전 기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본 원자료를 덮어쓴 시험이 아니라 분리한 시험 파일의 변경이었습니니다.

이 오류를 없애려고 현재 지문만 몰래 새 값으로 적으면 무엇을 바꿨고 왜 수용했는지가 사라집니다. 시험에서는 변경 내용을 읽고 새 기준을 선택한 뒤 그 내용의 지문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값이 생겼다는 사실과 새 기준을 수용했다는 판단을 함께 남겼습니다. 이것이 재개 가능한 기록입니다. 모든 자료 변경을 자동으로 승인해 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파일이 바뀌면 옛 기록을 멈춘다

실제 분리한 시험 파일 변경 · 원자료 보존

1 달라진 시험 파일

옛 내용 지문과 불일치 → 실제 오류



2 변경 내용 읽고 기준 선택

새 값으로 조용히 통과시키지 않음



3 선택한 새 내용으로 재시험

변경과 수용 이유를 함께 기록

파일 지문만으로 정확성·권한을 승인하지 않음

그림 14-03. 실제 파일 변경을 이용한 범위 한정 시험. 원자료의 내용·권한·정확성을 파일 지문만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접근 실패도 완료 기록을 이어 붙일 이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없는 자료 경로를 읽었을 때는 파일 접근 오류가 났습니다. 다른 파일을 임의로 끼워 넣고 ‘원자료 확인 완료’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 가능한 올바른 파일 경로를 다시 읽어 재 시험했습니다. 자료의 주소가 없거나 접근 권한이 없는 독자의 작업에서도 무엇을 읽지 못했는지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원 총돌 시험에서는 여섯 명과 여덟 명이 같이 넣자 멈췄습니다. 두 값을 평균 해 일곱 명으로 만들거나 더 그럴듯한 값을 고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여

덱 명을 고른 것은 이 가상 시험을 위한 작업자의 선택입니다. 실제 행사의 담당자가 승인한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해당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의 답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합성 시험은 원자료 안의 무단 발행 지시를 정상 조건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컬 검사는 허용한 자료 항목과 로컬 새 원고 작성 범위만 사용했습니다. 외부 행동은 없었습니다. 자료에 ‘업로드하라’고 쓰여 있다고 계정 접근이나 공개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은 정한 입력 구조의 검사이며 모든 공격과 AI를 포괄한 보안 검증은 아닙니다.

새 실행에 필요한 비용과 권한도 재개할 때 다시 읽습니다. 이전에 이미지 몇 장을 허용했다는 답이 추가 생성의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인한 한도를 다 썼다면 기존 파일을 정리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지만 추가 생성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 결과의 보존은 불필요한 재실행을 줄이는 동시에 권한의 범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재개 메모를 실제 다음 행동으로 쓴다

‘영상 작업 중’이라고 적으면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지, 대본을 고쳐야 할지, 최종 영상을 열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재개 메모에는 다음 행동의 대상과 멈춤 조건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영상 v3의 실제 파일을 열어 전편 연결을 확인한다. 없거나 지문이 다르면 이전 검사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다음 표는 재개할 때 상황을 고르는 저자의 운영 기준입니다. 실제 시험의 결과를 모든 상황의 정답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표가 아닙니다. 독자는 자기 주제에서 어느 파일이 다음 판단에 필요한지를 추가로 읽어야 합니다.

발견한 상태	이어갈 작업과 보존할 것
선택 파일·조건이 그대로임	확인 범위를 읽고 다음 미완료 작업으로; 이미 선택한 파일 보존
조건이 달라짐	바뀐 뜻과 영향부터 검토; 무관한 결과도 재사용 이유 확인
접근 실패·파일 없음	해당 의존 작업을 멈추고 경로·권한 확인; 확인 완료로 쓰지 않음
새 실행이 실패함	오류와 시험 입력 보존; 이전 선택은 그대로 유지
공개 권한이 없음	로컬 자료까지만 정리; 업로드·발행은 하지 않음

아래 완성 기록은 실제 변경 없는 입력 시험을 사람이 읽기 쉽게 줄인 것입니다. 당시 파일 목록을 대조한 사실과 하지 않은 작업을 같이 남겼습니다. ‘다음 행동’은 독자에게 권하는 운영 절차이며 이 시험에서 새로 영상 검수를 수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개 기록 — 문장사이 가상 실습의 실제 파일 대조

출발점: 당시 선택 목록에 기록된 39개 파일과 내용 지문

읽은 기준: 가상 8명·60분, 책·메모·질문 두 개

실제 대조 결과: 39개 파일 모두 변경 없음

판단: 해당 목록의 파일을 다시 생성하지 않고 보존

이 재개 시험에서 생성: 이미지 0회, 음성 0회, 영상 렌더 0회

외부 행동: 없음

범위: 코걸 파일 대조와 재개 계획; 내용·권리의 자동 승인 아님

별도 실패 시험: 시험 파일 변경 → 옛 지문 오류 → 변경 검토 후 새 기준 재시험

다음 행동의 예: 현재 선택 목록과 실제 파일부터 읽고 미완료 검토를 수행

멈춤 조건: 파일 부재·지문 불일치·조건 충돌·허용하지 않은 외부 행동

내 작업에서는 모든 대화 내용을 다시 요약하기보다 다음 판단에 필요한 작은 기록을 만드세요. 기록 자체가 오래되면 실제 파일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시 시작할 때는 둘을 대조합니다. 없는 결과를 예정 경로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14-resume-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실행 순서·재개 기록 — 시작 기록

선택 자료·마친 작업:

실제 확인과 변경 영향:

보존할 결과와 다음 행동:

다시 멈춤 조건·비용·권한:

순서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긴 자동화 명령 한 줄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판단에 필요한 결과를 준비하고, 실제로 확인한 범위를 남기며, 실패해도 이전 선택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이 있으면 자기 주제로 옮길 때도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그 변경을 작은 콘텐츠 한 편부터 시작하고 발행 전에 남은 결정을 정리합니다.

15. 내 주제로 바꾸고 발행 전 확인한다

독서모임 실습을 따라 해 본 독자가 자기 일에 쓰려고 합니다. 주제를 ‘작은 공방의 첫 수업’으로 바꾸고 책을 만들던 도구 이름만 고치면 될까요? 그렇게 옮기면 책 한 권과 질문 두 개를 준비하라는 문장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예제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과 새 독자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실습은 다른 주제를 크게 하나 더 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만든 콘텐츠에서 바꾸어야 할 판단을 찾고, 자기 자료로 작은 설명 한 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독자 질문과 확인한 자료를 바꿉니다. 그다음 글·이미지·영상에 맡길 역할을 다시 고릅니다. 도구와 순서는 도움이 되지만 예제의 숫자와 규칙은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제의 조건이 아니라 제작 판단을 가져간다

문장사이 사례의 여덟 명과 60분은 가상 조건입니다. 독자의 실제 수업·행사·제품에도 맞는 기본값이 아닙니다. 준비물을 설명하는 글에서 이유를 풀었던 방식, 그림에서 대상과 관계를 나눴던 방식, 영상에서 행동 하나를 골랐던 판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참석 조건과 가격, 일정, 사용 권리는 새로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초보자를 위한 공방 수업을 가상의 비교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자가 궁금한 것은 독서모임의 대화 준비와 달리 ‘처음 오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현장에서 받는가’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도구 제공 여부가 없다면 이미지에 도구가 보인다는 이유로 제공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상 비교에서도 준비 조건을 꾸며 채우지 않고 확인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이미지 수와 영상 길이도 목적에 맞춰 선택합니다. 이 책 실습이 대표 한 장과 본문 세 장을 사용했다고 모든 안내에 네 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 글에서 비교 한 장만으로 핵심이 충분하면 그것부터 만드세요. 영상에 들어갈 설명이 없

는데 실습의 여섯 장면을 채우려고 새 이야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설명과 형식이 먼저입니다.

주제는 바꾸고, 판단은 가져간다

저자의 주제 변환 모델 · 새 전편 실행 기록 아님

가져갈 판단

글에서 이유 풀기
그림의 역할 고르기
영상의 행동 좁히기
실패와 수정 기록

다시 확인할 조건

새 독자의 질문
실제 자료와 숫자
일정·가격·참가 조건
사용 권리와 공개 범위

작은 설명 한 편부터

예제의8명·60분을 새 주제의 기본값으로 쓰지 않음

그림 15-01. 자기 주제로 옮기는 저자의 판단 모델. 새 주제를 실제 전편 제작한 실행 기록은 아니다.

새 주제의 첫 결과를 작게 잡는 이유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 문단을 읽어 제목과 약속이 맞는지, 한 장면을 보아 그림의 역할이 분명한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가 맞으면 설명을 넓힙니다. 처음부터 글 여러 편과 이미지 수십 장, 긴 영상을 요구하면 잘못된 조건이 많은 파일에 퍼지고 사람이 읽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기존 스킬 소개를 작은 실제 설명으로 바꿔 본다

이번 장에서 실제로 새로 작성할 작은 결과는 Coreline-AI가 보유한 로컬 제목 스킬을 소개하는 설명입니다. [naver-title](#)의 실제 [SKILL.md](#)를 읽고 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 규칙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사용자의 제작 도구 소개라는 작은 예이며 새로운 스킬 설치·수정이나 계정 통계 시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플랫폼의 최신 공식 순위 요소를 검증하는 실습도 아닙니다.

독자는 제목을 만드는 데 AI를 써 봤지만 후보가 비슷하거나 본문보다 과장되는 문제를 겪는 제작자입니다. 이 소개를 읽고 할 행동은 주제와 독자 상황, 본문이 실제로 설명할 내용을 제목 의뢰에 넣는 것입니다. 도구의 기능 목록을 길게 나열하는 대신 이 행동에 필요한 한 가지 차이를 설명합니다. ‘제목은 잘 짓는 도구’보다 ‘제목과 본문이 약속하는 내용을 맞추는 작업 규칙’이라는 출발점이 구체적입니다.

실제 읽은 로컬 문서는 검색형·홈판형·혼합형 후보의 목적을 나누고 확인되지 않은 수치나 경험을 꾸미지 않도록 정합니다. 유형과 개수를 지정하면 그 요청을 우선한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개에서는 후보 개수를 세 개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의 규칙을 플랫폼 전체의 공식 의무나 노출 보장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번 장을 위해 실제로 작성한 짧은 소개 원고입니다. 3,000자 이상의 완성형 게시 본문 실습을 다시 수행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새 주제에서 독자 질문과 사실 경계를 먼저 잡는 작은 설명 결과입니다.

제목 후보가 열 개 나왔는데도 고르기 어렵다면, 더 많이 만드는 대신 본문이 해 줄 일을 먼저 적어 보세요. Coreline-AI의 로컬 [naver-title](#) 스킬은 제목의 대상과 독자 상황, 행동 의도를 나누어 후보를 만드는 작업 규칙입니다. 검색형은 찾는 대상과 문제를 알아보기 쉽게, 홈판형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쉽게, 혼합형은 주제와 선택 이유를 함께 보여 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본문에 맞는 제목 세 개만 요청해도 됩니다. ‘첫 독서모임에 가져갈 책과 메모,

질문을 고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처럼 본문이 답할 내용을 함께 넣으세요. '조회수 두 배'나 '상위 노출 보장'은 자료가 없으므로 넣지 않습니다. 후보를 읽고 제목이 약속한 답이 본문에 있는지 확인한 뒤 하나를 고릅니다. 제목을 정한 것이 글의 사실 검토나 실제 발행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소개에 넣을 그림은 스킬의 설치 화면을 꾸미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본문의 약속 → 목적별 후보 → 본문과 대조'라는 선택 흐름을 보여 주는 도해가 더 알맞습니다. 영상도 설치 과정을 흉내 내지 않고 후보를 고르는 행동 한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그림과 영상은 이번에 정한 의뢰이며 실제 새 삽화 생성이나 MP4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형식	이 작은 소개에서 맡길 설명
글	후보를 늘리기 전에 본문이 답할 질문을 넣는 이유
도해 의뢰	본문 약속에서 후보를 거쳐 다시 본문과 대조하는 흐름
영상 의뢰	제목 세 개 중 본문이 답하는 약속 하나를 고르는 행동
하지 않을 설명	설치 시연·순위 보장·계정 통계·실제 발행 성과

이처럼 기존 스킬은 실습의 입력을 구체화하는 데 참조합니다. 모든 내부 파일과 기능을 전자책에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자가 도구를 실제 사용할 때는 자기 환경의 설치 상태와 문서,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소개는 로컬 문서에서 읽은 작업 규칙과 새로 쓴 설명이며 공식 플랫폼 홍보나 제휴 소개가 아닙니다.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더 물어볼 내용을 구분한다

그럴듯한 소개를 만들었다고 바로 발행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실로 적었는지 읽어 봅니다. 방금 소개에서는 로컬 스킬 문서의 규칙을 설명했고, 실제 검색 성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원고에 ‘최근 개편된 공식 알고리즘을 반영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면 지금 자료만으로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그 표현을 삭제하거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로 좁혀야 합니다.

자기 경험을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용한 날과 자료, 실제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숫자를 내 경험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실제 장소를 닮았다고 실제 촬영 사진으로 소개하지 않고, 합성 목소리가 자연스럽다고 사람의 녹음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글과 그림, 소리의 표시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자료를 읽을 수 없을 때는 확인 완료라고 적는 대신 어떤 주장을 보류했는지 남깁니다. 새 도구의 화면이 바뀌었는데 예전 캡처만 있다면 현재 화면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실제 화면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능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해로 범위를 바꾸되 제품 화면과 구분합니다. 설명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데 표나 차트부터 만들면 없는 정보에 시각적인 확신을 더하게 됩니다.

권리 확인도 결과의 외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와 그림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폰트와 목소리의 조건은 무엇인지, 참고 코드의 어떤 부분을 넘기는지 기록합니다. 제작자가 가진 회사 라이선스가 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사람·고객·계정이 식별되는 자료는 사용 허가와 필요한 보호를 확인한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책의 자체 점검을 전문 확인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발행 준비와 실제 발행을 따로 확인한다

문장사이 실습에서는 로컬 글 준비를 마쳤지만 로그인·임시저장·공개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파일을 ‘게시 완료’라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독자는 자기 작업에서도 원고가 준비됐는지, 플랫폼에 입력됐는지, 실제로 공개됐는지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의 이름이 분명하면 지금 무엇을 승인해야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준비와 공개는 서로 다른 결정

이 책의 로컬 제작 범위 · 계정 입력 · 발행 없음

내용 확인

글·그림·영상의 뜻, 사실과 표시



파일 준비

선택한 최종 결과와 필요한 자료



실제 환경 확인

화면 · 재생 · 리더에서 직접 확인



공개 결정

목적 · 권리 · 개인정보 · 권한을 사람이 판단

로컬 통과 ≠ 실제 화면 검수 ≠ 공개 승인

그림 15-02. 발행 전 결정의 범위. 이 책에서 계정 로그인·업로드·임시저장·외부 발행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아니다.

공개 전에는 실제 사용할 화면과 파일에서 읽힐지 확인해야 합니다. PDF의 글자가 잘 보여도 작은 EPUB 화면에서는 넓은 표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원본이 선명해도 최종 배치가 작으면 글씨를 읽기 어렵습니다. 영상은 화면만 보는 것과 소리를 듣는 것, 실제 재생 환경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해당 검

사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한 범위를 줄여 기록합니다.

여기서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공개 목적과 대상, 권리와 개인정보, 플랫폼의 현재 규칙, 수정이 필요한 문장을 함께 읽습니다. AI가 로컬 검토를 통과했다고 사람이 해야 할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추가 이미지 생성이나 유료 실행이 필요하면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발행 권한이 없다면 준비 자료까지 넘깁니다. 재개 기록에 적힌 다음 작업도 공개 허가로 자동 해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는 빈 확인서에 모두 ‘통과’라고 적어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오류가 없는지 읽지 않았는데 검사를 했다는 기록만 생깁니다. 확인서는 실제 확인을 한 뒤 결과를 남기는 문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누가 무엇을 보고 결정할지 적어야 합니다. 숨긴 빈칸보다 드러난 미확인이 다음 작업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공개할 파일을 선택한 뒤에는 그 파일을 다시 열어 확인합니다. 검토한 뒤 문장을 바꾸거나 이미지를 교체했다면 영향을 받은 확인은 새 결과에 맞춰 다시 수행합니다. 이전 결과의 통과 기록을 새 파일에 그대로 붙이지 않는 습관이 마지막 순간의 혼동을 줄입니다.

내 콘텐츠의 작은 첫 결과를 남긴다

이번 장의 완성 작업물은 새 주제 의뢰와 발행 전 판단입니다. 다음 기록은 위에서 실제 작성한 짧은 소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목은 소개의 약속에 맞춰 작성한 선택 예이며 실제 노출 성과를 시험한 제목이 아닙니다. 그림과 영상은 의뢰까지 작성했고 새 생성과 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경계를 함께 남깁니다.

주제 변환 기록 — Coreline-AI 로컬 제목 스킬 소개

독자: AI 제목 후보가 비슷하거나 본문보다 과장돼 고르기 어려운 제작자

질문: 후보를 늘리지 않고 본문과 맞는 제목을 어떻게 고를까?

자료: 실제 로컬 naver-title/SKILL.md의 작업 규칙, 2026-10-11 읽음

선택 제목: 제목 후보가 많아도 못 고를 때, 본문의 약속부터 적어 보기

실제 작성: 본 장의 짧은 소개 원고; 완성형 3,000자 게시 실습과 구분

그림 의뢰: 본문 약속 → 목적별 후보 → 본문과 대조하는 도해

영상 의뢰: 후보 세 개에서 본문이 답하는 약속 하나를 고르는 행동

실행하지 않은 것: 새 이미지 생성·새 음성·새 MP4·설치·계정 접근·발행

근거 없는 표현: 조회수·순위·최신 공식 알고리즘 보장 제외

확인 범위: 문서 규칙과 소개 문장의 대응을 작성 AI가 자체 검토

남은 공개 결정: 최종 원고·권리·실제 사용할 환경과 공개 여부를 사람이 확인

아래 양식에서는 첫 칸보다 마지막 칸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만들었지만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새로운 주제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실과 권한을 찾는 것이 이 책의 마지막 제작 판단입니다.

전체 빈 양식은 실습 자료의 [work-products/ch15-publication-review-blank-v1.txt](#)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다음 네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내 주제 변환과 발행 전 확인서 — 시작 기록

독자·질문과 확인한 자료:

글·그림·영상의 역할:

실제 결과 / 의뢰 / 미수행:

권리·환경·공개 결정:

자기 주제로 바꾸는 시작은 거창한 자동화가 아니라 독자가 답을 얻을 한 편입니다. 그 한 편에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그림을 고른 뒤 영상에 남길 행동을 정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뜻과 파일을 다시 읽고 바꾼 이유를 남깁니다. 그렇게 만든 콘텐츠는 도구 이름보다 독자의 질문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제작 지도는 여러분의 자료와 판단으로 채울 차례입니다.

한 편을 끝낸 뒤 남는 것

첫 결과를 빠르게 얻는 일과 한 편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은 다릅니다. 한 편을 끝내면 제목 후보나 예쁜 그림보다 더 중요한 기록이 남습니다. 어떤 독자의 어떤 질문을 선택했는지, 없는 자료 때문에 무엇을 멈췄는지, 왜 글과 그림과 말을 다르게 구성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도구를 새로 바꾸기 전에 지난 기록에서 재사용할 판단을 찾으세요. 자료가 같은지 확인하고 무관한 결과는 보존합니다. 새로운 조건이 생기면 영향을 받은 설명부터 고칩니다. 파일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현재 선택을 찾을 수 있는지가 제작의 안정성을 만듭니다.

독자의 주제는 이 가상 모임과 다를 것입니다. 더 엄격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실제 사람의 권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제의 규칙을 복사하는 대신 질문·자료·역할·확인 연결을 옮기세요. 그렇게 만든 한 편이 다음 제작의 출발점이 됩니다.

필요한 말만 다시 보기

스킬은 이 책에서는 반복 작업에 쓰는 지침과 참고자료의 묶음입니다. 제목이나 글 작성의 입력과 판단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합니다. 도구가 모든 일을 자동으로 끝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자료는 이번 콘텐츠에서 설명할 조건의 출발점입니다. 가상 실습 자료와 실제 사업 자료, 제품 공식 문서는 역할이 다르므로 나눠 읽습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맡길 입력과 작업 요청입니다. 긴 문장 자체보다 결과가 답할 질문과 지켜야 할 조건이 중요합니다.

장면 의뢰서는 필요한 대상과 관계, 구도·표시·하지 않을 표현을 정리한 글입니다. 그림을 꾸미는 형용사 모음과 다릅니다.

캡션은 그림이 무엇을 보여 주며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적은 문장입니다. 틀린 핵심 정보를 감추는 주의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체 설명은 그림을 보지 못할 때에도 역할과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쓴 글입니다. ‘이미지’라는 파일 종류만 적지 않습니다.

프레임은 영상의 한 장입니다. 30fps는 1초에 30장을 사용한다는 제작 설정입니다. 목소리의 길이와 장면 시간을 함께 봅니다.

렌더는 장면 자료와 코드를 실제 재생할 영상 파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파일 생성 성공과 내용 검토 완료는 다릅니다.

버전은 바꾸어 보존한 결과의 구분입니다. 서로 다른 파일의 끝 숫자가 같아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같은 선택 조건인지 읽습니다.

내용 지문은 파일의 바이트에서 계산한 대조 값입니다. 같은 파일인지 찾는 데 쓰며 사실·의미·권리를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리플로는 화면과 글자 크기에 맞춰 문단의 줄과 배치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EPUB에는 PDF와 같은 고정 쪽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습 자료에서 길 찾기

[inputs](#)에는 선택 원자료와 자료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바꾸기 전에 현재의 가상 인원과 준비 조건을 읽으세요. 처음 조건과 변경 조건의 차이는 제작 이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blog](#)에는 실제 짧은 초안과 현재 선택 글이 있습니다. 제목과 표를 포함한 글자 수는 본문만 센 값과 다릅니다. 수정 전후 문장과 안내 행동을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images](#)에는 요청문과 실제 생성 삽화, 인원 수정본이 있습니다. [diagrams](#)에는 정확한 시간 비율과 책 설명 그림의 수정 가능한 SVG 원본·PNG 결과가 있습니다. 편집할 때 숫자와 캡션을 함께 바꾸고 이전 결과를 보존하세요.

[video](#)에는 선택 대본·장면 자료와 이미 만든 MP4가 있습니다. [reader-demo](#)는 책에서 새로 작성한 작은 화면 예제입니다. 큰 원본 렌더러가 아니며 음성 모델과 설치된 의존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설치하지 않고 결과를 읽는 길과 직접 재현하는 길을 README에서 나눴습니다.

[work-products](#)에는 각 장의 완성 기록과 전체 빈 양식이 있습니다. 자기 자료로 바꾸어 쓰되 확인하지 않은 결과를 통과로 채우지 않습니다. [notices](#)의 출처·폰트 고지·사용 조건도 함께 읽으세요. 파일이 없거나 경로가 다르면 다른 파일로 몰래 대체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멈춥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한 범위

확인일은 2026-10-11입니다. 다음 링크는 제품 기능과 이용 조건의 제한된 근거입니다. 가상 사례의 운영 사실이나 이 책의 실제 실행 성공을 증명하는 링크가 아닙니다.

OpenAI 이미지 생성·편집 안내는 기존 이미지 편집과 참조 이미지 사용을 설명합니다. 기본 이미지 도구의 실제 호출을 특정 API·모델의 성능 시험으로 바꾸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Remotion Sequence는 장면의 시작 위치와 지속 시간을 설명합니다. 현재 직접 Sequence 사용의 권장 변화와 고정 실습 버전 4.0.477을 구분했습니다.

Remotion render CLI는 입력 진입점·장면 ID·출력 위치와 JSON 입력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모든 최신 옵션을 고정 예제가 지원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Remotion 4.0.477 이용 조건은 실제 이용 주체별 조건을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제작자의 회사 라이선스는 독자의 자격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Supertonic-3 모델 조건은 사용과 모델 재배포, 생성물 책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모델 가중치를 실습 ZIP에 넣지 않습니다. 현재 문서의 이름은 BigScience Open RAIL-M License입니다.

Noto Sans KR 폰트 고지는 고지 유지와 조건 확인에 참고합니다. 실제 사용한 폰트의 동봉 고지도 읽어야 하며 공식 링크만으로 모든 파생본의 조건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기 전에 사용 범위 읽기

이미 만든 결과를 읽거나 시청하는 길에는 영상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렌더하는 길에는 실행 환경과 의존성, 렌더용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권한과 네트워크·저장공간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실습의 새 화면 코드는 제한된 장면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본 스킴 전체나 그 안의 모든 노드를 독자에게 넘기는 자료가 아닙니다. 원본의 로컬 사용·수정 권리와 전체 소스의 재배포 권한을 함께 취급하지 않습니다.

폰트 고지는 파일과 함께 유지합니다. 합성 음성임을 알리는 표시를 지우지 않습니다. 새 음성을 준비한다면 권리 있는 녹음이나 자기 조건을 확인한 엔진을 사용하세요. 예제는 음성 모델을 자동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과 고객 정보, 계정 비밀은 연습 입력에 넣지 않습니다. 외부 공개는 최종 원고·표지·권리와 사용 목적을 확인한 별도 결정입니다. 로컬 제작 자료가 준비됐다고 업로드 허가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파일을 다시 열기

최종 선택 글을 읽고 제목이 약속한 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은 요청한 모습만 떠올리지 말고 현재 파일에서 인물·소품·관계·숫자를 봅니다. 도해의 합계와 비율, 표의 제목과 행을 대조합니다. 영상에서는 전문 대본과 핵심 자막의 역할을 나누어 실제 화면과 소리를 함께 봅니다.

어느 결과를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전 확인이 새 파일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 검사와 내용 검토, 권리 판단, 실제 환경 확인을 구분하면 남은 작업을 찾기 쉽습니다.

공개 결정을 할 사람은 내용과 목적뿐 아니라 실제 사용 조건·개인정보·권한도 봅니다. 하지 못한 확인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그 결과와 다음 행동을 남깁니다. 최종 검토는 빈 확인서에 통과를 적는 일이 아니라 실제 파일을 읽는 일입니다.

Coreline-AI

Coreline-AI는 이 책의 저자명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존 콘텐츠 제작 스킬을 참조해 한 주제의 글·이미지·영상을 연결하는 판단과 실제 로컬 제작 과정을 설명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력·성과·독자 반응을 저자 소개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최종 원고·표지·권리와 출판 여부는 저자가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한 주제, 세 가지 표현

글이 설명하고, 그림이 보여 주고, 짧은 영상이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AI 콘텐츠 제작실》은 결과를 많이 만드는 대신 독자가 이해할 한 편을 끝까지 만드는 책임입니다. 실제 초안과 수정 글, 생성 삽화의 전후, 정확한 도해, 약 39초 MP4의 실패와 수정 이유를 같은 주제에서 따라갑니다.

쉬운 한국어로 제작 판단을 읽고, 완성 작업물과 빈 양식으로 자기 주제를 시작하세요.

Coreline-AI